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땀부기 살리기)

편자 송 충 근

도서출판 삼진

서 문

본 책자(프로포폴에 중독된 뜬부기 살리기)의 뜬부기(익명)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100일간‘면역요법’중심교육으로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되지 않은 세계최초 마약중독재활에 성공한 사례자 중 1명이다.

그녀(32세)는 2009년 강남 신사동 소재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동안 6억원을 썼다. 1회 주사료 30만원씩 지불(3백만원 예치 시 1회 무료: 비보험) 했으며, 동료 3명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살을 했는데도 머릿속에는 온통 환각주사 뿐이었다고 했다. 결국에는 돈이 없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도 과다투약 하여 의식을 잃고 차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여 신고, 구속되었다.

뜬부기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재활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마약중독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여 100일간‘면역요법’중심 재활교육을 받은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마약과의 전쟁 이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2만 여명이 마약중독으로 법적처벌을 받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매일 수십 명씩 마약중독으로 자살 또는 사망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장·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 전경수 박사는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 「마약범죄학」 창시자로 2010년 사재를 출연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가평중앙교육원(마약중독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여“살려달라”고 찾아오는 마약류등 중독자 360명을 무료로 입교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독증을 제거하고 사회에 복귀시켰다.

현대의학으로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없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마약중독재활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현대의학으로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 뜬부기의 재활교육과정에서 재발방지교육사 전경수, 노철환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뜬부기가 직접 작성한 ‘면역요법’중심 재활교육수기 내용을 편저하였다.

마약중독재활은 하루아침에 상담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정성스런 시간을 통하여 재활하는 과정을 이겨내야 기적처럼 단약에 성공한다. 이런 수많은 가평중앙교육원 시범운영 교육과정을 통해 23년간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사람 살리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일명,‘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하루 빨리 입법시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360명을 재활시켰듯 이제는 국가에서 100만명의 중독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을 살리는‘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평중앙교육원을 모델로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500만명의 중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전 국민이 함께‘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재단법인 K-희망교육원을 설립하여 마약의 재앙으로부터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닉슨대통령은 1971년‘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미국은 2021년 100,306명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순천시 전체 인구수가 죽은 셈이다. 2022년에는 10만명 이상이 약물중독으로 죽었다. 공주시 전체 인구수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에는 마약중독으로 상주시 전체 인구수 만큼이 죽을 것이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하나씩 증발하고 있다는 셈인 것이다.

청소년 18세~45세까지 사망원인 중 1위가 마약중독이다. 1개월 1만명(1일 300명)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 911테러 당시 3,000명이 사망하였는데 10일에 한번씩 세계무역센터가 폭격당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현재 미국은 통제불능의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의 폐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펜타닐에 이어 자일라진이 폭격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중이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뜻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전쟁이 마약과의 전쟁이다.

바이든 미국대통령 멕시코 밀매조직 지목
- 펜타닐 10만명 미국인 사망 -



2021년 펜타닐 사망자 100,306명
2019년 대비 39% 증가



청소년 인구 사망 원인 1위 '마약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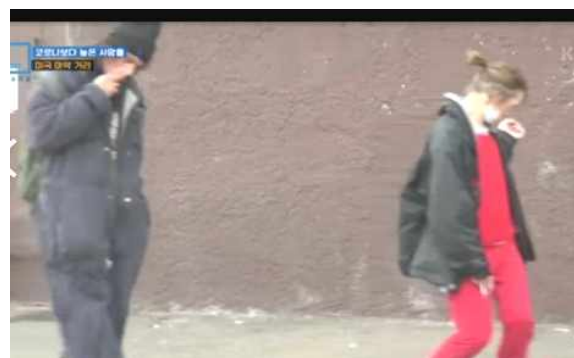
펜타닐 이어 자일라진
뉴욕시 유통 마약 20% 이상 검출



뉴욕, 동물마취제 '자일라진' 확산



첸싱턴(필라델피아) 죽음의 좀비거리



자료출처: 유튜브

이런 지정인데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2023년 8월 현재 1만8천명이 마약중독으로 교도소에 갇거나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간 재소자 1명당 수용비용은 무려 3,100만원이며 1일 85,000원이다. 3만명이면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저비용 고효율 마약정책이 아쉽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법안이 '마약류 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다.

1년에 1만 5,000명이 자살에 성공한다. 1개월 1,250명, 1일 40명, 1시간에 2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하고 있다. 그중 마약과 관련이 있는 자살자는 몇%일까? 통계도 없다. 정부는 답하라!

세계는 마약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세계최초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한다.

미국은 교도소가 넘쳐서 교도소에 수용이 안되니 마약거리를 지정하는 지정에 이르렀다. 켄싱턴(필라델피아)은 좀비거리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전쟁은 끝나면 재건하면 되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재건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재건이 안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2세를 낳으면 더욱 심각하다. 대를 이어 정신병 등 문제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강력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사관을 늘리고 기존제도가 있으니 걱정 없다는 태도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대책은 이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 전문가 부재이다. 대통령 곁에 사람이 없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곽재우 등 의병활동이 승리의 요체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민간참여가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체계의 우위다. 이순신 장군은 1,000m 총통 원거리 사격이고 일본은 100m 조총 근거리 사격이다. 옥포해전은 단 1명의 전사자도 없이 승리했다. 또한 의병지원이 계속되었기에 군세가 확장되고 23전 23승의 대승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23년간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거북선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 놓고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며, 마약중독으로 부터 재발·재범·재중독을 방지하는 ‘면역요법’마약중독자 구제법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하고 민간참여를 시키기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

뜸부기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민간인이 무료로 살렸다. 이제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의 법규(무기 체계), 현재의 전쟁사령관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잠이 안 온다. 걱정이 태산이다.

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마약대책위원회와 마약청 또는 마약부 신설-을 제안한다. 법무부, 교육부, 보사부, 국방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통계청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첩첩산중에서

2023. 8. 29. 새벽 3시 15분

편자 **백향 송충근** 마약범죄학석사

- 전) - 육군종합학교 헌병학처 마약수사교관
 - 육군 제12사단 헌병대장 예) 육군중령
- 현) - 한국마약범죄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부단장
 - 가평중앙교육원(마약중독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이사장
 - 마약과의전쟁 대표
 - 마약류등의중독증제거및재발방지평생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추진위원장

東 亞 日 報

2012년 10월 대한생명이
한화생명으로 새출발 합니다

한화생명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2012년 8월 25일 토요일 단기4345년 (음력 7월 8일 戊午)

제28326호 동아일보

프로포폴 늪에 빠져 6억 날린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고백

어느날 그병원에 돈 들였어... 그 분께 저는 병원에서 사들였어 그냥
프로폴만 맞은순 없나? 물어봐, 생각중해볼게 라는 답을 리서 얼마후,
프로폴을 쉽게 구할수 있었습니다.

조 [] 이라는 병으로부터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그 당시는 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정박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50 여의정도로 걸쳐 프로폴 미약한
상수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에 중독돼 약 구입에만 6억 원을 쓴 뒤 병원에서 이를 훔치다 들켜 불구속 입건된 이모 씨가 허술한 관리 실태를 고발하겠다고
작성한 수기. 수기에는 관리 실태가 허술한 병원 16곳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가평=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포폴 중독’ 동료 셋 자살해도 머릿속엔 온통 환각주사 뿐

2009년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성형외과. 이모 씨(32·여)는 지방분해 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수술에 앞서 수면마취제(프로포폴)를 맞았는데 깨어나 보니 폭 잔 것처럼 개운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이때부터 이 씨는 이 일대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기 시작했다. 이 씨가 다녔던 대부분의 병원은 프로포폴을 맞으러 온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침상이 부족할 때는 환자대기실에 누워 맞는 사람도 있었다.

이 씨는 병원을 한 번 찾으면 오전

20mL 앰플 1개에 10만원 하루 200만원어치 맞기도 나중엔 팔다리 대신 목에 주사

10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프로포폴 20mL를 10만원에 구입해 5~10mL씩 나눠 맞았다. 한 번에 20~30분간 약효가 지속됐다. 약효가 사라지면 간호사를 불러 다시 주사를 맞았다. 여기저기서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심할 때는 하루에 200만 원을 썼다. 한 병원의 프로포폴 단골손님 중엔 익숙한 유명 연예인도 여러 명 있었다. 얼굴이 익다 보니 이 씨와 인사를 나눌 정도였다.

그로부터 큰 3년 후인 지난달 이 씨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재범방지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재활교육생이 됐다. 이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훔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의식을 잃고 자신의 차 안에 쓰러져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다시 태어나 평범하고 예쁘게 살고 싶다”며 재범방지센터 입소를 자원했다.

동아일보는 23일 가평군의 재범방지센터에서 이 씨를 만나 프로포폴 중독의 위험과 실태에 대해 상세한 얘기를



23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서 만난 이모 씨가 직접 가곤 뒷밭을 바라보고 있다.

가평=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들었다. 이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번 돈과 빌린 돈 등 총 6억 원을 프로포폴 구입에 썼다고 한다. 그녀는 2009년 프로포폴을 처음 맞기 전부터도 이 약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의사나 유흥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포폴’, 프로포폴의 흰색에서 유래된 ‘우유주사’,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해 ‘힘주사’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낱설지 않았다.

중독의 대가는 컸다. 환각 지속시간은 짧아졌고 곧 우울증이 찾아왔다. 프로포폴을 살 돈이 떨어지면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다. 지난달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이 씨는 여러 차례 자살도 시도했다. 그녀는 “중독이 심한 친구 3명이 목을 매 자살했다는데 무섭지도, 걱정되지도 않았다”며 “무슨 수

를 써서라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전까지 상당수 병원은 거리낌 없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투약해줬다. 심지어 한 산부인과에는 산모보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더 많았다. 이 산부인과는 프로포폴 투약 손님이 늘자 주사기에 환자 이름을 쓰고 재사용하기도 했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불가능해졌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올 2월 B성형외과 사무장은 프로포폴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이 씨에게 밀거래를

약팔아 돈벌기 바빴던 병원 불법화 뒤엔 밀거래 제한 16곳 명단 만들어 알릴 계획

제안했다. 사무장은 이 씨와 병원 주변의 아파트 계단이나 후미진 화단에서 만나 50mL 앰플 한 개에 5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50여 차례나 팔았다. 이 씨는 “의사들이 양팔과 다리, 심지어 목의 술한 주삿바늘 자국을 보고도 대부분 아무 말 없이 투약했다”고 말했다. 24일 동아일보가 이 씨가 지목한 병원 중 세 곳을 방문했으나 이들은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자신과 같은 중독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다녔던 병원 16곳의 이름과 투약 날짜, 비용, 시술 내용 등을 리스트로 만들었다.

성형시술이 늘면서 과거 의사나 연예인 등 특정 직업군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도 중독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재범방지센터를 찾은 사람들의 직업과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특히 강남의 부유층 주부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평=박훈상 기자 tiger@donga.com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1 형 사 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 준수사항

사 건 조합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대마·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등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손을 대거나 사용하지 말 것.
5. 마약·대마·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등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6.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한국마약범죄재범방지재단 가평중앙교육원에 입소하여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재판장 판사 이 상 철

프로포폴에 중독된 뜬부기 살리기

(이 글은 필자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오타자 수정은 하지 않았다) 편자

“전, 노 가짜 장군 마약류 등 중독증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정신혁명 사령부 창설하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연장을 챙겨 들고 마약범죄학박물관(마약류, 사행성도박, 인터넷게임, 알코올 등 중독 예방 홍보전시실)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바알... 노장군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배합하고, 전장군은 사닥다리 위에서 일을 하는 미장기술자다. 노장군은 전장군과 공사현장에서는 사수와 조수 관계이다. 노장군은 전장군의 앞서가는 전술을 부러워하지만, 기술을 중요시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노장군,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장군 출신이다. 전경수 가짜 장군이 노철환 가짜 장군에게 한 말이다. 전장군은 분수에 넘치는... 무모하게 마약 중독자를 구한다며 사재를 털어가며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약범죄학박물관 공사 현장에서 일음, 노가다 미장일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나눈 전, 노 가짜 장군의 대화였다.

다름아닌, 두 장군은 이 시대의 선악과이자 고질적 병폐... 마약과의 전쟁과 더불어 마약에 중독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신혁명 사령부(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창설한다는 일념으로 돈키호테처럼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 평생을 동거동락해 왔다. 전장군은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키기 위해 일찍이 경찰에 입문 마약수사 현장에서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중독 심리를 터득하고 이론을 접근시켜 20여년만에 마약범죄학을 창시하고,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탄생시킨 가짜가 아닌 진짜 장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장군이 경찰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마약수사 경찰관들이 승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위직 출신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직접 보고 듣고 전장군이 경찰에서 퇴임 후 노장군과 합세 건국이후 60년간에 이어져 온 순경, 소방사 출신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노예적 승진 해방 전투를 벌려 승진에 목말라 하는 하위직 경찰, 해경, 소방관들이 돈과 뺨이 없어도 경위(무궁화 1개)까지 자동승진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토록 투쟁해 주었다.

그 후 전, 노장군의 전설적인 승진제도 개선에 의해 해마다 돈과 뺨을 동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경찰, 해경, 소방관들이 자동승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마약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전, 노 가짜 장군 역시 승리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경수 장군과 노철환 장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설립에 이어 마약범죄학박물관 공사장에서 손톱이 빠질 정도로 정신과 육체를 혹사시켰다.

그러나 두 장군은 어느 재벌, 정치인이나 위정자보다 값진 보람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 친다. 마약에 중독된 국민을 재활시켜 이미 307명째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 되돌려 보낸 것도 사실이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중독증을 끊었다. 중독“증”범죄자들이 재범방지에 성공한 자가 한명이든 두명이든 1기생이라고 한다. 교도소, 정신병·의원 등 그 누구도 마약중독자를 완치시킨 사례가 없을 정도로 치료가 불확실한 환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소문을 들은 경찰관, 목사 등 성직자들이 2012. 4.부터 재범방

지 센터에 입교“가상”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체험교육을 전, 노장군에게 직접 받았다. 전, 노장군의 운명은 자타 공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약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구제 사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ㅋㅋㅋ

전, 노장군이 2012년 6월 마약범죄박물관 공사 현장에서 전, 노장군이 노동하는 날 강북에서 놀러온 유사장도 지켜보았다. 유사장은 진짜 기술자로 판넬 한 장이 부족해 방치된 것을 지붕을 마무리 해주었다. 공사비가 모자라 찢찢매는... 전, 노장군에게는 유사장이 구세주였다... 그러한 도움에 의해 간신히 장마비를 피할수 있었다.

전, 노장군의 나이에 걸맞게 찾아온 지인들은 대부분 무릎관절, 당뇨 등 체질상 일을 못하는 들무새였다(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중국 고사). 나무그늘 밑에서 놀다가 밥만 축내고 간다... 집으로 돌아간 그분들은 또 오고싶다는 전화다... 전장군님, 또 거기 가면 안되느냐 하며... 전, 노장군이 일하는 것을 바라보며 공기좋은 그늘아래 있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이다.

군대시절 축구를 좋아하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전장군의 성향에 맞지 않는듯 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들어선 전, 노장군의 험난한 길이었다. 그 누구도 가세해 주지 않는 마약과의 전쟁을 외롭게 치루는 정신혁명군이었다. 전, 노 두 가짜 장군은 마약중독자를 양산시키는 적군(마약판매를 위한 유혹자)은 물론 사탄과도 다름없는 판매자의 유혹에 의거 중독된 아군의 정신을 잘 아는 1군, 2군 사령관이다.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수 없듯이 마약 전쟁터를 잘 아는 전, 노장군 역시 걸어온 외길을 포기하고 되돌아 갈수는 없었다.

2012년 6월 어느날 공사현장에 진짜 군인들이 나타났다. 안테나가 길게 쫓힌 째차와 함께 나타난 트럭은 일개 중대병력으로 보였다. 전, 노 가짜

장군이 정신혁명 사령부(마약범죄학박물관)를 창설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상황 판단차 인근 군부대에서 출동한것 같았다. 그들은 한참동안 정찰을 하다가 쿠데타를 위한 특수부대 창설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감시병력 2명만 두고 되돌아 갔다.



그러나 전, 노장군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공사는 진행되었다. 노장군은 항상 전장군의 기술을 부러워 했다. 시멘트 미장 “칼”을 든 전장군에게 어느날 노장군이 건의를 했다. 전장군님... 저도 기술자가 되어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ㅋㅋ 노장군이 전장군의 뒤를 이어 후계자를 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비쳤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전장군이 노장군에게 한 말이다. “암...그래야지.” 그러나 제발 백담사에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 노장군은 마약범죄학박물관 공사 현장에서 전장군의 시다바리(조수)다. 노장군은 전장군의 칼솜씨를 무척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약으로부터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아 주기 위해...

동 정

◆전경수(한국 사이버시민마약 감시단장)



전 단장은 지난 20여년간 마약퇴치에 헌신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학, 마약류 투약 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 등 마약퇴치에 관련된 연구

문헌 총 1만여점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150여평 규모의 마약 범죄학 박물관을 개관했다. 전 단장은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관람시켜 날로 확산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의 수요 감소와 접근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경우신문 2013.

-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프로포폴 중독의 덫에 걸렸다 -

(이 글을 쓴 수기자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오.탈자 수정 증감 없이 편집했다.)

제1일차(2012.7.17. 화)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주 사맞고 중독된 뜬부기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다”

2012.07.16 오전 11시 강남경찰서에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마약범죄학 교수님이 오셨다. 내가 마약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을 가족들로 부터 전해 듣고 면회 온 것 같았다.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 교육사님과 상담 끝에 자발적으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로 희망했다. 그리고 구속적부 실질 심사에서 풀려난 후...이튿날 2012 .07.17 전경수 재발방지 교육사님과 약속한대로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실질 심사를 한 판사님이 교도소 강제격리 보다 ... 교육을 통해 마약을 끊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가 교육을 받는 그 자체가 축스럽고 선듯 내키지 않았지만... 프로포폴 중독의 덫에서 벗어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나의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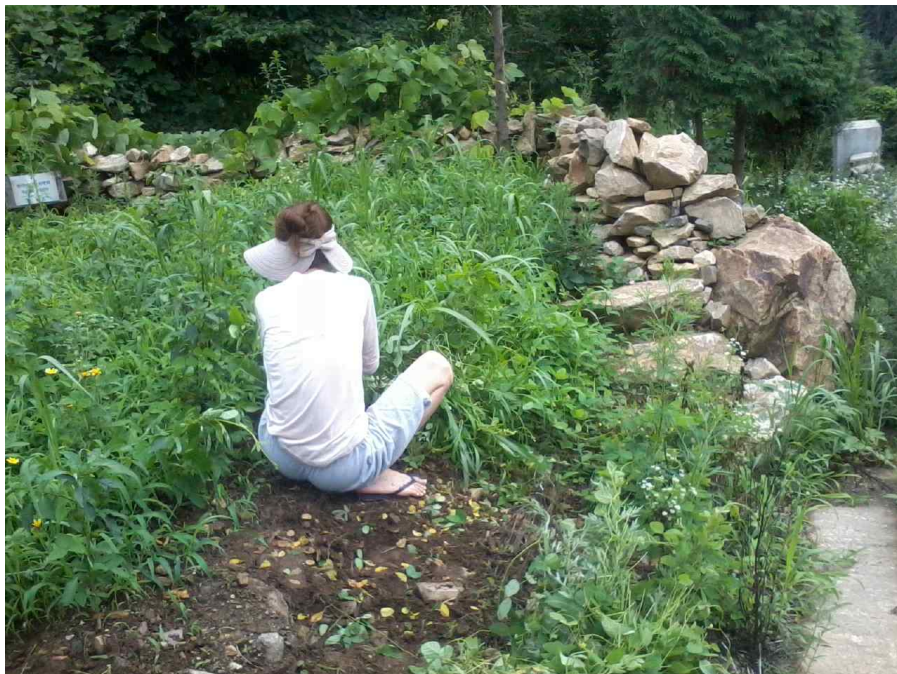


(2010. 7. 14. 개원한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개원... 가운데 전경수 단장, 한창규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 가평교육지원청 리종영 교육장 등)

청평 전철역에 마중 나온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안내로 입교절차를 끝내고, 최종단계 프로포폴 마약중독으로 인해 합병증, 중독증세 등 아픈 곳을 말씀 드린 내용이다. 혼미한 중독 상태에서 쓰러져 앞니 한개가 부스러진적이 있고, 엉덩이 꼬리뼈도 다친적이 있었다.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한다. 어지럼증등(빈혈)로 냉장고 모서리에 박혀 ...충격을 받아 오른쪽 귀 고막 달팽이관이 파열되어 중의에 염증이 있다. 오른 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C형 감염 보균... 피로를 많이 느끼고 기억력도 상실된 상태다.

지난주 (2012. 7. 10.) 첫 비오는날 계단을 올라가다 미끄러져 오른쪽 발바닥과 종아리,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으로 멍이 든 자국이 있다. 월경이 다가오면 맑지 않은 색이다. 그러다가 생리가 끊어진지가 오래 되었다. 머리카락은 상당한 양이 빠지고, 시력저하에 렌즈를 착용하여도 눈을 찡그러야 글씨가 겨우 보인다. 위와 장도 나쁘다. 조금만 신경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하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한다. 아랫배는 항시 더부룩하고 불쾌하다. 그중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다.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아 맹송맹송 잠을 자지 못한다. 잠이 들어도 또 30분 간격으로 깨곤한다. 현재 체중은 42kg 정도...빼만 양상할 정도다. ...라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말씀드렸다.

12시 점심식사는 마약중독에 의한 합병증을 완화시키는데 효험이 있는 가평중앙교육원 식용식물 시음체험 학습관에서 지하암반수에서 나오는 천연 알카리수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마약중독에 의한 뇌기능 회복을 위해 운동복을 입고 영농체험학습교육장인 교육원 채소밭에 있는 풀을 뽑았다. 얼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을 주체할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뜸부기 교육 첫날 나의 중독된 뇌기능 회복을 위한 잡초뽑기, 흙냄새 맡기)

장마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잡초를 뽑으며 밭고랑 사이에 있는 당귀와 천궁이라는 약초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향긋하게 좋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밭 메러 가자고 ...한 이유를 알게되었다. 맑은 공기, 숲에서 나오는 풀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뻥뚫이는 것 같았고 머리도 맑아졌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 " 선농일체정신은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노동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땀을 흘리면서 풀을 뽑을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주신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그 음료수는 마약중독증 회복에 효험이 있다는 ...암, 살균작용과와 진정효과가 있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편백나무잎 차 였다. 저녁식사 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내가 마약에 중독된 이유와 마약과의 첫 만남등... 경찰서에서 체포되었을때의 두려움... 세상 사는 이야기를 격의 없이 나누었다. 이번참에는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오가 섰는데 ...과연 실천 할수 있을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마련해주신 인체독을 제거해주는 카탈라아제,디메놀옥시디아제,사카라제 ,프로테아제 성분이있는 황토수면 공동 체험학습관에서 취침...



(뜸부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주신 측백나무잎차)

“측백나무잎, 편백나무잎(히노끼) 차, 시음, 편백나무 피톤치드 냄새를 흡입한 이유”

편백나무 잎, 측백나무잎 차는 항균 및 방충 효과로 인한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 효과가 있고, 알레르기의 원인인 집진드기, 세균 등을 퇴치하며 사람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알레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준다. 감각계통 안정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각종 스트레스, 두통, 우울증, 불면증 등을 개선시켜...활력 넘치는 생활 유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알파파를 증대시켜 집중력, 정서 안정, 기억력을 높여주어 중독자들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편백나무 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냄새제거 및 탈취효과가 있고 ,숲속에 풍부한 피톤치드는 동물의 사체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모든 냄새의 원인과 결합하여 악취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분해시켜준다는 것을 인터넷을 검색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음이온 "피톤치드의 효과"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탈취 및 정화 작용...

숲속에는 각종 동물들의 사체가 썩고 있으나 악취가 나지 않는다. 피톤치드가 냄새의 원인 요소를 화학적으로 분해,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강력한 향을 발산시켜 코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방향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토피성 피부 질환 개선 ...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집먼지 진드기의 사체나 분을 흡입 할 때 발생하며, 또한 피하 지방생에 기생하는 세균이 강력한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만 실험결과 편백 피톤치드를 기피하여 약99.9%의 세균 진드기가 도망하는 것과 생육을 억제한다.

음이온의 방출과 산소의 공급, 실내 수분량 조절...체내 분비물 촉진 및 신체 리듬 회복에 의한 감각 계통 안정 ,체내의 항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장기 사용 시 환경 오염에 노출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채소밭에서 풀 뽑을때 마신 측백나무잎 차는 1달전에 다려 ... 고장난 냉장고 넣어 두었는데도 부패되지 않았다. 오염되지않은 청정 가평중앙교육원있는 편백나무 잎을 마시고, 풀뽑고 코로 흠 냄새맡으면 도움이 될것이다. 측백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 명상 묵상하기 바란다. - 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였다.

2일차 (2012.7.18. 수)

어제밤 취침에 들어갔다. “역시 평소때와 다름없이 잠이 들지 않았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나와 같은 처지와 다름없는 "토순이,라는 닉네임의 글을 읽고 다시 잠을 청했다.잠을 자는 순간순간 눈을 떴다... 불면증 이제 잊고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8시 잠자리에서 일어나 식용식물체험관에서 천연지하암반수에서 나오는 알카리수를 한대접 쭉욱..마시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오염되지 않은 맑은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 교육원 주변 울창한 숲에서 품어나오는 공기속의 비타민을 실컷 마셨다.



(뜸부기의 선농일체정신에 의한 영농체험학습)

장마비로 인해 통통하게 살이 찐 고추를 따와 누룽지를 끓여 아침식사를 했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떠난 교육생들이 먹고남은 음식물이 담긴 냉장고 청소를 하는 가운데 ...마약이라는 더러운 생각을 잠시 잊을수 있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마약을 하기 위해 나가거나 집에서 드러누워있을 시간인데...

오늘 오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말씀, 가평중앙교육원은 배울것도 없고, 배워줄 것도 없는 곳이다. 교육을 받을 것도 없고, 교육을 해줄것도 없다.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으면 너가 알고있는 모든 지식 (습기=버릇) 을 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을 받는 그 자체가 너는 거짓이고, 나도 거짓이다. 잘못을 알았다면 그 것 역시 너 탓이고 내 탓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싫으면 대문을 열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으면 소문(개문犬門)을 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평소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잡념을 버리고 들어오라는 의미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 내용... 가평중앙교육원은 약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교수도 학생도 없다. 경비원도 없고 사무요원도 없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없다. 내가 약사요, 의사요, 교수요, 경비원이요, 사무요원이고 음식을 하는 취사병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명명백백히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또한 세상모든이는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도 종교도 성도 이념도 어떠한 사회적 경제지위도 우리라는 울타리 경계를 가리지 못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울때가 많다. 때로는 가시밭같은 길을 걸어갈때도 있고, 때로는 망망대에 향해하면서 성난파도를 만난듯이 험난한 파도를 거쳐 나가야 할때가 있다.

기초적인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회, 경제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의, 전쟁이나 기아, 자연재해등으로 부터 생명을 지킬수있는 보호적안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있는 사회적기회 그중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가평중앙교육원은 마약류, 사행성도박, 게임, 알코올 등 중독증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기회를 가지는것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 이라고 하셨다.

세상사람들은 모두 다 높고 낮음이 없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또 강조 하셨다.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교육방향은 자신에 대한 자기통찰과 자기이해의 확대 집단 기능의 촉진 및 저해조건에 대해 이해하는 개인, 집단, 조직행동에 대한 1:1 재발방지교육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토록 지도하는 교육이었다. 특히 마약에서 중독을 벗어났다고 해도 합병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수명이 10년이나 단축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다. 또 다른 의미의 엔카운터 교육은 참만남 집단 이라고 하셨다. 피교육생의 자유로운 행동을 존중하고 비구성적인 특징을 가지며 치료적 동기보다 참가자의 심리적인 성장과 잠재력 발휘를 할수있도록 보조해주는데 있다. 다양한 삶을 체험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대입시켜 ...내가 끊어야 할 마약이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서로가 지시적 용어를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의 일과표에 의해 진행된다고 하셨다.

오늘 오후에도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상추밭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범벅이 되도록 노동을 하면서 꾸욱.. 참았다. 오늘밤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2일째 교육... 나는 교육을 그만두고 떠나고 싶었지만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를 듣고 모든 것을 접었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떠나라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 역시 경찰서에 체포되기 전 비단 내가 찾았던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만클리닉 의사들에게 프로포폴이 수면마취 중독증의 위험성이 있는줄 모르고 주사맞고 중독되어 쓰러졌다. 중독증의 덫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 보았다.



(뜸부기 인터넷게임중독 기러기와 함께 중독증을 제거 극복하기 위해
선농일체정신, 영농학습체험)

정신을 잃고 죽음일보직전에 처한 나는 다행히 경찰서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마약 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약중독증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파멸이다. 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속상하고, 속 터지는 부모, 형제에게 고통은 주지 말아야한다 .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강의를 끝내면서 ..."대관절 이것이 무슨일이냐, 알수도 없고 또 알수도 없는 일이다. 알수없기는 알수없으나 이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강의및 토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나에게 마약 끊지 못하고 재발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과제였다.

제 3 일차 (2012. 7. 18. 목)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 뚝부기입니다. 제가 프로포폴에 이렇게 중독되었습니다.”

오늘은 입교 후 3 일째 되는 날이다. 어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내리신 과제이자 주제... " 대관절 이것이 무슨일이냐 " 알수도 없고 또 알수도 없는 일이다. 알수 없기는 알수 없으나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내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과제를 주신데 대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말씀드린 내용이다. 전경수 교수님 저는 2007년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에서 중독되었습니다. 프로포폴에 처음 중독 된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 병원 의사에 의해서였다. 그 후 이병원, 저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가며 끊어 보려고 무척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서 부처님께 절을 수백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약... 프로포폴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말까... 그래도 저는 중독된 가운데 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는다 끊는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6억원의 돈을 날렸습니다.

2012.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 등 여러군데 병원에 미리 300만원을 예치하고 하루에도 두서너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기분 좋게 프로포폴을 주사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맞겨둔 예치금도 바닥이나고 돈이 떨어졌고 내가 다니던 당골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난 2012년 6월 29일 18시경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결사적으로 프로포폴 3박스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훔친 프로포폴을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손등에...팔목에 신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뚝부기씨
병원 CCTV 에 마약 3 박스
가져간 것이 찍혔으니
빨리 연락주세요.
연락 없으시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

저는 문자를 읽은 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 조금만 일찍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원장님께서 땀부기씨 댁으로 가고 계셨는데..." 내가 많은 양의 투약으로 사망했을 걱정을 하신 것 인지...그렇게 까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중독자라는것을 뻔히 알면서...좌우지간 원장님께선 많이 놀라시고 화도 나셨겠지만 환자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긴 듯 했습니다.

병원 측에선 프로포폴 3 박스를 가져오라고 하였지만...이미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나에겐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이미 혈관에 투약을 하고...엎지러지기도 하고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박스인지..3박스인지.. 그것조차 사실 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내가 프로포폴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에 월요일 4시까지 갖고 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 들어가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갖고 있지 않기에.. 병원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 후, 다른병원에서 또 훔친 마약으로 혈관에 투여 주사바늘을 꽂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주차장 경비 아자씨께서 신고를 하셨는지,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했는지 제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체포되기 이전 2012. 6. 29 ○○성형외과에서 마약 3박스를 훔친데 대해 들통이 났기 때문에 나는 더 불안하고 살고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어버려야 되나...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땀부기 지남력 집중 운동)

전경수 재활방지교육사님께 말씀드려야 할 과제.. 프로포폴을 끊지 못하고 도대체 재활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토의 ...중독된 정신적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렸다. 내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정신적 문제는 이렇다. 처음 프로포폴이 혈관을 통해 내 몸에 투약하게 되면 개운한 기분에 몸이 가벼워지는 그 것 뿐인데... 몇차례 거쳐 투약을 해도 포기가 빨라지고...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몇차례 거쳐 계속 투약을 할 경우 몸안에 프로포폴의 내성이 생겨 뇌와 육체, 정신적 역시 프로포폴이 필요하다., 빨리 프로포폴을 몸안에 투여해달라고 자꾸만 내게 재촉하는 기분이 든다.

병원 문 여는 시간이 되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못할까봐 난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하다. 병원에서 운 좋게 주사를 맞고 몸안에 프로포폴이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걱정, 근심, 외로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함들이 모두 사라지고 안정을 찾게 된다. 프로포폴 마취에 잠이 들어 있다가 깨어나면 또 다시 '현실 이구나' 라는 생각에 불안함과 우울증들로 아무생각없이 프로포폴에 의해 쉽게 잠들고 싶어진다. 잠이 아닌... 수면마취인데

난 내게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이 되기전까지 많은 생각이 남들보다 심한 편이다. 물론 겁도 많고 걱정, 근심이 생기면 누군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기보단 혼자서 끙끙... 앓아간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위, 장 에서 탈이나고 음식을 섭취하면 바로 채해버린다. 하지만 프로포폴에 중독되고 부턴 오로지 프로포폴을 해야 된다 . 중독 ...바로 그것을 알고 부터 다른 걱정들 보다 커져갔다. 그러나 또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그런 걱정들을 잊을 수 있었기에 더 간절했던 것 같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보다... 더 귀중한 듯한 느낌... 이렇게 도 좋은 걸... 프로포폴 한방 맞고 10분간 잠을 자고나면 하루종일 잔 것보다 더 많은 잠을 잔것 같았다. 하지만 약 기운이 떨어져 그 뒤에 따르는 후유증은 살고 싶지 않다는 불쾌감... 등등... 그래서 병원으로 또 달려가야했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현실을 도피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중독이라는 두 단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버린 현실 너무도 싫고 괴롭다.

인간답게 아주 평범하게 죄 한번 짓지않고... 경찰서 한번 안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싶다. 왜 내가 프로포폴을 알게 되어 몸과 마음이 이 지경이 되버렸는지... 마음도 몸도... 너무 아프다. 하얀 까운을 입은 악마와 같은 의사들...너는 나를 중독을 만든 친구였다.



(뜸부기 기러기 선노일체정신 잔디밭 잡초뽑기)

"오후 교육"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보충질문 (1)"

예전에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 4월 이후 최초 투약하게 된 심리적 동기와 이유, 누구의 권유에 의해...병원에 갔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의사가 진료부에 기록하는 것을 보았는지 나에게 물으셨다.

답 : 지난해 프로포폴을 끊고 나서 나의 체중은 16kg 나 늘어나 거울을 볼때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싫어졌었고 음식조절과 운동을 하여 체중은 줄었지만 처진 얼굴 살들과 몸에 살들은 회복되기 어려웠었다. 외모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난 더더욱 신경을 썼어야 했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예전 얼굴 하나도 없어" 라는 말들로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다.

옷들은 맞지도 않고 아무리 화장을 하여도 예뻐지긴 어려웠다.다시 병원을 찾아 나의 문제점으로 돌출된 살들과 처진 얼굴를 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프로포폴 주사로 시술과 수술로 외모에 전념하라고 했다.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부에 어떻게 기록하였는지는 알수가 없다.

그런 나로써는 나의 말을 듣고 계시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선 얼굴이 처졌니... 줄음이 있니..하고 부축이는 유혹한 그 년 들이 병원과 짜고 치는 부로커 들 일 수 도 있다고 하셨다. 매우 분노하시며... 소위 " 인간 바이러스 " 라고 하셨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보충질문 (2)

그 병원 원장 의사선생님의 윤리문제에 대해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답 : 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시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도 치료를 위해선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쓰는 전문가이다. 환자가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프로포폴이 사람을 죽이고 과멸시킨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 프로포폴을 취급하는병원 의사가 잠재우는(마취) 프로포폴을 투약시켜 번돈으로 빌딩을 구입한 일부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만 원망할 일이 아니라...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중독이 뭔지, 프로포폴이 뭔지도 몰랐던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보충질문 (3)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나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돈을 지불하고 프로포폴 주사를 맞을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 물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들켜 병원에도 못가고 프로포폴을 하지 못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교수님 저는 시술이 아닌 잠자는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투약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근심, 걱정 없도록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전경수 재발방지 교육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병원과 짜고 얼굴이 쳐졌니... 살을 빼야 하느니 유혹을 하는 브로커 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탄과도 다름없는 사악한 인간바이러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프로포폴을 투약 시킨 "인간바이러스" 라는 말씀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고 깨닫게 되었다. 이제 알고 보니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 병원 치료가 진심이라 할 지언정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치료다.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가평중앙교육원' 을 찾게 되었는데 ... 그 것은 내가 무모하게 병원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가평중앙교육원 두성관으로 올라가는 석용숙(石龍宿)”



“내려오는 석용전(石龍佃)”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돌을 가지고 만든 작품)

나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에 체포 된점에 난 솔직히 감사하다. 그것이 전하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하늘나라로 떠났을 것이다. 인천에 사는 나의 친구가 그랬듯이...살아있다하더라도...그 무시무시하고 좁고 싸늘한 유치장에서 구속과 출소, 출소와 구속을 반복하는 ... 인생으로 변했을 것이다.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지금 시간 프로포폴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여기 저기 헤매고 있을 것이다. 프로포폴을 하고 약운이 떨어지면 안절부절 불안한 심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리에 처해 괴로워했을 나를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하다. 지금 내 나이 34 세 , 여자로서 34 세 이면 결혼을 하고 언, 한 남자의 아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나이인데... 이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젠 정말 평범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사람답게 가족의 행복을 또 다시 찾아주며 착하고 귀하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법을 지키며, 나 자신을 지키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 지난 주 까지는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죽고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번씩 커져만 갔었지만... 이젠 정말 의미있는 희망을 갖고 목적있는 인생에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

죽지 못해 사는 것 말고, 늘 모든 현실에 마땅히 만족하며, 기쁘고 즐거움에 사는 것...참고 견디는 노력을 하며 ... 나를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것이다.

프로포폴로 인한 내 인생은 이젠 정말 마지막 골목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 의지할 곳은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무례하지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제 영혼에 달라 붙어 있는 중독 "증" 을 물리 쳐 주시도록... 아주 간절한 바램이다. 그래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채소밭으로 가 얼굴, 온몸에 이르기까지 범벅이 되도록 땀을 흘린 이유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의 말씀이다... “이제 너 자신을 안것 같다.” 재방교육사인 나도 20 대에는 미모의 여자들이 줄을 서서 나를 따라다녔다. 나를 사랑하는니 뭐니하면서... 그러나 나는 좀처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다. 한명도 아니고 3명이상 떼를 지어 나를 유혹했다. 잘생긴 나 얼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 사람은 누구나 20 대는 모두가 예쁘다. 그러나 30, 40년이 지나면 얼굴에 나이테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이제 내나이 60 년 이상 되었다. 얼굴보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땀부기의 나이도 30 대 중반에 접어 들어섰다. 얼굴이 처졌다...뭐니 하드라도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 라고 하셨다.

제 4 일차 (2012. 7.19.목)

“입교 후 3일만에 처음 외박나왔다” 빌린돈을 갚기 위해...

오전 교육일과를 끝내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빌린돈을 갚고 신상정리를 위해... 허락을 받고 오후 4시 외박갔다. 입교 후 3일만이라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위해 빌린돈을 갚기위해서 이다. 오늘은 집에 도착,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처럼 다름없이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가족모두가 나를 반기고 집안의 훈훈함과 포근한 이불까지도 너무도 따듯했다.



가평중앙교육원

제5일차 (2012. 7.20.금)

“흔들리는 마음... 또 프로포폴 주사맞으러 나서다”

프로포폴 생각은 멀리한채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깨어나 갇아야 하는 돈을 빌리기 위해 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 쉽지 않았다. 어떤 이는 거의 30분을 넘게 통화한 나머지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해결해" 라는 말과 동시에 나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리곤 나의 스트레스를 또 다시 받게 만들어서인지... 난 또 괴로워 해야만 했다. 안절부절...불안함...두려움...스트레스와 함께 프로포폴을 해야한다. 프로포폴을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다. 집을 나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주사 맞으러 나선 것이다. ..

제 6 일차 (2012. 7.21.토)

외박기간, “나는 또 병원을 또 헤매고 있었다.”

평소 오전에 병원문을 여는 시간이면 당연히 눈이 떠지는 탓에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난 눈이 떠지고... 프로포폴 찾으러 생각이 나지 않은 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난 솔직히 문득문득 생각나듯 오늘도 프로포폴하고 싶은 생각이 우르루 밀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없는 일이고, 갇아야 하는 돈을 마련하기에도 너무 힘든 일이고... 아 정말 이 현실이 너무도 괴롭다. 돈이 없는 원시 인간들이 좋다. 돈이 없으면 프로포폴도 없는 세상이 되겠지...매일 아침 기다렸듯이 하고싶은 프로포폴 이제 어찌지...,영상실질심사 판사님도 계시고,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도 프로포폴에 찌든 내 인생을 아신다. 오늘도 흔들린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등 병원 주변을 또 헤매고 있었다. 내가 미쳤다...

제 7 일차 (2012. 7.22.일)

가족들의 잔소리 “집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다”

오늘은 친할아버지 제사...
엄마와 새언니와 내 여동생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의 손에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게 할 수 없으므로 나와 내동생은 서로 짐을 들겠다고...난리 였다. ㅋㅋㅋ

시장에서는 정말 아무생각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저녁이 되자 아빠가 들어오시고, 오빠가 들어와 나는 또 잔소리를 듣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핑핑 울고... 난 방에서 울고 있을때, 우리 엄마는 제사 지낼때 절 한번 안하셨던 분이신데, 오늘은 절을 하고싶다고 아버지께 O.K 승락을 받고 엄마는 제사상에 절을 하시며 기도와 더불어 내가 프로포폴을 끊을수 있도록 계속 흐느껴 눈물을 흘리셨다고 내동생으로 전해 들었다. 내가 방에서 울고 있을때 엄마도 거실에서 울고 계시고 ㅠㅠ 우리엄마 내가 너무 죄송하고...너무 사랑하지만... 나 아직 정신 못차리고..왜 이럴까... 내가 너무도 싫다.



제 8 일차 (2012. 7.23.월)

외박기간, “귀신이 곡할 노릇... 습관처럼 밀려오는 프로포폴”

다시 한 주가 시작되자 나의 '맹송맹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 습관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것 처럼 강렬했다. 분명 나는 그것을 떠오르지 않으려 하는데... 나의 정신은 프로포폴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않고 '마귀 약' 따윈 알지도 못했더라면 ... 이 세상도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돌아 간다 해도 두려움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프로포폴 중독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이병원 저병원 간판을 쳐다 보면서 입가에 하얀 미소를 띄어보았다. 그 이후 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다 '후회' 기분나쁜 생각들만 밀려왔다.

제 9 일차 (2012. 7.24.화)

외박기간, “나의 거짓... 그것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지 못한 괴변일까”

프로포폴 주사 맞기 위해 빌려쓴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들이 몰려오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어찌하여 이지경이 될때까지 도대체 난 무얼 하였는지... 프로포

폴을 알기 전... 난 돈을 잘 모으고 아끼는 성격에 누구에게 돈 빌려보기는 딱 한번...뿐 내가 번돈 수억원을 병원에 갚다 넣은 결과였다. 또다시 프로포폴을 하기위해 돈을 빌렸다. 그 돈을 일주일안에 갚는다는 약속하에 분명 일주일 안에 빌린 돈을 갚았고, 하지만 내가 빌려준 돈들은 오히려 받지 못할때도 있었다. 그래서 인지 독촉 전화들이 ... 누구나 그렇겠지만...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내가 예민한 것, 신경쓰이는 일이 있으면 해결해야만 편안해지는 것.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불안함하고 잠도 입맛도 없어진다. 정말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찾으러 가고 싶은데... 난 아직 정신 못차렸나보다. 그것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지 못한 괴변일까...

외박기간... 나의 동생 카드를 훔쳐... 강남 A 산부인과를 또 찾았다. 동생 카드를 훔치기 위해 4시간 동안 베투다가 성공했는데 프로포폴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려면 선불로 끊어야 되는데... 한도초과 삼십만원 끊어보세요. 25만원 끊어보세요.. 15만원 끊어보세요... 아무리 낮추어도 한도초과... 간호사가 신경질을 부렸다. 외상을 요구했는데 외상사절... 외상값을 많이 떼었다는 의사의 말이다. 그래도 나는 평소 돈 잘내는 VIP 고객이 아니었던가... 한번쯤은 외상거래도... 그러나 나는 알거지처럼 실패했다. 나의 거짓...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지 못한 괴변...



제 10 일차 (2012. 7. 25.수)

“프로포폴 하러 오라는 기도소리처럼 두 갈래로 들려온다”

이제는 전화기 소리를 무음으로 줄이던지, 배터리 자체를 빼버렸다. 내가 다 저지른 일들이기에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난 지금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다. 너무도 그들에게 미안하다. 반가운 전화는 오고간데 없고, 온통 독촉 전화들 뿐... 그리고 병원에서 **프로포폴 하러 오라는 기도 소리처럼 두 갈래로 들려온다.** 이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이 너무도 싫고 너무도 무섭다. 빨리 가 평중앙교육원에서 모두 잊고 자연속에서 맑게 정신 차리고 싶다. 맞다 ... 2박 3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으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 외박 허락을 받았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빌린돈을 갚지 못해 고통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 프로포폴을

하기위해 또 성형외과 주변을 맴돌다가... 가평중앙교육원 귀교날자 까지 잊고 있었다. 이제 모든걸 포기하고 내일은 어떤일이 있어도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으로 떠나야 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어떻게 뵈어야 될지... 고민

제 11 일차 (2012. 7.26.목)

“외박기간 병원을 찾았던 것...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하나”

나의 개인적인 신상정리 와 더불어 2박 3일 외박을 끝내고 다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계시는 가평중앙교육원으로 향했다. 이제 내가 원하던 곳, “가평중앙교육원”의 생활이 또다시 시작되어 기쁘지만 ...솔직히 자고 싶을때 자고, 눕고 싶을때 눕고, 하고싶은 걸 모두 다 할순 없겠지만그래도 프로포폴중독으로 인해 날마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도집입적으로 외박 기간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싶어 돌아다니다가...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가평중앙교육원을 다시 찾은 것이다. 오늘은 너무도 행복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역시 내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예단하고 계셨다. 만나자 마자 하신 말씀... 이제 외박 할 생각은 하지마라 재판이 끝날때 까지 ...그리고 “너 영혼에 달라붙은 마귀와 같은 중독증을 박살낼때까지...” 속세를 끊으라고 하셨다. 맞다.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도 잘 자겠다. ㅋㅋ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얼굴을 뵈면 면목이 없었으나... 교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외박을 나간 것도 왜 나갔는지...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하며... 너그러운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나의 친아버지같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교수님 아님, 아빠라고 불렀다.

제 12 일차 (2012.7. 27. 금)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제1단계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善行)교육 교재 제1권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을 읽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글도 읽었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라는 자서전을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초 종교적인 견해에서 읽어 보았다. 가정, 평화에 대한 유익한 말씀이었다. 그 평화와 가정을 깨는 많은 것 들 중에서 프로포폴이 평화와 가정을 깬다는 저자의 뜻은 나와 관련 있는 내용이었다. 내가 바로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재범방

지를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 역시 "부모님...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모두가 하루하루... 평안한 시간을 나 때문에 단 1 초 조차 갖지 못함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된 행동, 호통, 따뜻한 정, 실감나는 정이 많은 아이였다. 나에게 삶은 어느 누구와도 의논 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다. 물론 자연스레 알게 된 주위의 많은 이들이 있지만... 사실 적으로 내 속을 알지 못한다. - 그것도 나에게 공감있는 구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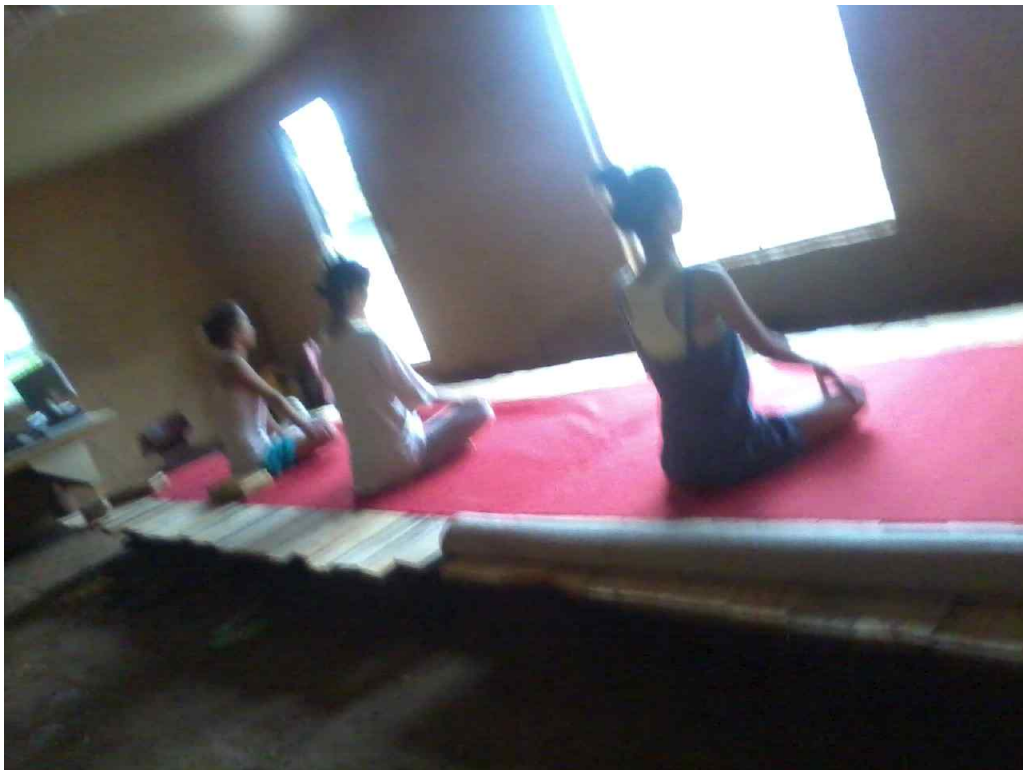


(뜸부기 뇌기능 회복을 위한 선농일체 체험학습 정신)

이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 마음 속 폭풍같은 이야기를 꺼내본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어... 예전의 나는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 당장 실행에 옮기고, 그러지 못하면 아프거나 잠을 쉽게 청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여럿이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다." '전성기'...(저자의 말씀) 깊은마음에서 나는 저자의 글을 읽고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봤다. 내 인생의 분명한 나침반...나는 3 형제중 맏딸,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도 못하시고 글자 받침도 정확하지 못하시지만 어릴적 교회에 잠시 다니셨던지라, 성경의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 등등등 모두 외우실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한 분이시다. 무엇이든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실 정도시다. 하지만 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그러하지 못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ㅠㅠ. 우리엄마는 남에게 절대 받지말고 무조건 배풀며 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실천한 적이 없다.

생일선물 받는 것조차 모두 빛이라고 말씀 하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이... 받는 것을 좋아하였지만..모으고 돈을 저축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했었지만, 프로포폴을 알고부터 번 돈을 전부 병원에 갔다 바쳤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 나로인해 집안 식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전부 가족들이 떠 맡았다. 현재는 집과 아버지의 개인택시 마저 잡혀 갈 지경까지 되버렸다.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난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약범죄학박물관 벽에 걸려있는 (결자해지)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일은 “결자해지” 이다.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겠지? 가능할꺼야.. 가능해. 결국엔 성공 ...이라는 두 글자로 가벼운 발걸음에 한걸음 한걸음..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걸음마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흑이지만, 반드시 광명한 아침이 온다." 나를 보면 늘 안타까워한다 - 한다면 나는 고집쟁이-참이란 "작은 꾀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꾀로 이룬것은 몇년 못가 드러난다." 엄마의 속이 시커멓게 타버리셨을 것이다. 엄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프로포폴 중독된 뜸부기, 필로폰에 중독된 빠꾸기,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기러기 중독증 제거를 위한 명상)

소를 사랑하면 소가 보인다-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는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의 나무와 식물들의 향기와 촉감, 맛이 너무 좋아 정신도 건강도 맑아지는 기운에 기분이 상쾌하다. 늘 몸에 좋은 거라면 가리지 않고 먹으려 하는 식상을 가졌던 나... 요즘 도심속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을 좋아하는 내가.. 왜... "죽음의 마약 ,마귀의

약 " 중독에 더불어 재발이 되었는지... 슬프고 아픈 현실이다. 조그만 모래 한알에도 세상의 이치가 들어있고 공기중에 떠도는 먼지 하나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들어있다 하듯이 .. 감옥, 교도소가 아닌 가평중앙교육원의 생활은 나에게 있어 행복을 선물하였다.

평소에 관심조차 없던 주변의 풀벌레, 참새, 개미조차 내 친구이듯이... 나뭇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 바람이 갈대를 흔드는 소리, " 짹짹" 새들의 짹대는 소리... 아무런 잡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맑아진다. 나는 이번 경험을 평생 간직하며 자연스럽게 살고싶다.

정신을 모으고 집중해보면 다 할수있고, 할수있는데... 그러하지 못함이 너무도 후회되고 무섭지만... 그 하찮은 프로포폴 따위 무시해 버리고 나의 갈 길을 가야한다. 그런데 뻔이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끊을수 없다. 내가 가야하는 길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쉽지도 않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 책 속의 글 중 '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 앉히면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가라앉는 자기가 있습니다-라고하셨다".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 깨 때에는 정신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바로 그때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이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가짜" 이므로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언젠간 토해내고 말아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배움에 참으로 이 책을 읽고 또 나를 생각해봤다. 나에게 가장 필요로한 내용에 감동이고 도움이 될 것으로 감사하다. (어려움+ 위로+ 절망= 나를 일으켜 세우다)



(뜸부기, 뻐꾸기, 기러기 중독증 제거를 위한 음이온 산림 숲 산소 호흡 체험)

나의 어릴적 장래 희망은 고아원 원장이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굳어버리고 지금의 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슬픔을 쌓이게 하는 비인간적인 나쁜사람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답답해진 나는 기도해 몰두해부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프로포폴중독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종교에 매달려 새로운 인생을 갈망도 해보았으나... 또 다른 낭떠러지에 서 있게 되었다.

"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왜... 기도하는 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까...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고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했다. 그러나 또 밀려오는 프로포폴의 물결은 막아내지 못했다. 프로포폴 " 왜 , 이 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나의 인생을 만드는지...나자신을 말수 없게 한다. 세상이 너무도 싫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실패하면 이제 내인생 끝장이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교육의 목표... 문득문득 생각나...맹송맹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 척결을 위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 것 뿐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가 나에게 한 말씀이다.”

뜸부기...뜸부기가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이유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그 약물이 혹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이 아니던가요...문제는 병원에 들어서자 말자 무슨 말을 하면 주사를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나요...그병원이 어딘가요. 주사를 맞고 나면 수면을 취하고 기분을 느끼는 시간,,,그리고 불쾌감등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분...다시찾는이유가 궁금,,, 하다는 말씀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에게 또 질문한 내용이다.”

뜸부기가 피부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만클리닉 등 병원에서 도대체 무슨이유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가. 그약물이 혹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이 아니던가... 문제는 병원에 들어서자 마자 무슨말을 하면 주사를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나요... 그 병원이 어딘가요... 주사를 맞고나면 수면을 취하고 기분을 느끼는 시간... 그리고 불쾌감,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기분...다시 찾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교수님...프로포폴에 중독된 후 부터 프로포폴을 하지 않으면 답답함,,, 자신감은 사라지고, 늘 불안함과 두려움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도 자신있게 할수있었고, 부끄러워 말할수 없는 이야기, 거짓말 투성으로 인맥들을 속이면서 프로포폴을 하기

돈을 빌릴수 있었습니다.다. 하지만 프로포폴에서 깨어나면 ' 후회 ' 투성이뿐... 내가 병원에서 투약해온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 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알고 있는데 나는 프로포폴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난 뭐가될지도 모른 사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숨기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투약했었을 때는... 마취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흔들흔들...어지러움에 사물이 빙글빙글 돌고, 한걸음도 걷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는 빙빙도는 쾌감의 마약보다도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 아무생각 없이 쉽게 잠만 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다졸람이나. 케타민을 들고나온면 환불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가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상담끝에 내가 마약 (프로포폴)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아는 듯 하면서도 원가 5천원짜리를 1회 28만원 ,38만원 병원마다 가격차가 있는 시술 (얼굴 처진 살 올려주는 시프팅)후 잠간잠을 잘수있는 케타민등 수면 마취 제 를 줍니다. 대분 저와같은 수많은 중독자들이 병원을 통해 주사를 맞고 중독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 (프로포폴) 을 투약해주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마약 (프로포폴) 투약없이 처진 살들을 올려주거나 주사들... 이럴땐 1회 오십만원, 백만원을 주고 맞아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을 해야만 한다고 거절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마약 (프로포폴) 은 뒷끝이 안조아 머리가 빙빙돌고 어지러워 힘들것이라고 하며...반대로 동물치료제인 케타민, 미다졸람 투약을 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의 증상은 의사선생님이 권한 케타민,미디졸람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적은 마약 (프로포폴) 의 투약이 목적이였으므로 그냥 병원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린적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시키는 병원은 일부 강남 신사역, 강남역 ,압구정부근에 있는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만클리닉 등 병.의원입니다.

중독자의 마약의 선호도입니다. 의사가 권한 프로포폴보다 ... 투약해본 경험자는 무슨 프로포폴이 기분 변화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중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병원을 찾아 내가 수면마취제 투약없이는 못살정도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시술.. 리프팅은 하지 말고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면 리프팅하지 않으면 프로포폴을 투약 시킬수 없다는 말을 듣고 ... 시과(욕설) 내가 프로포폴을 알게 되어 중독에 이르러 재발까지 된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시켜달라고 하면 의사들은 얼굴을 감싸주는 시술(리프팅) 명분을 내세워 프로포폴을 투약시켜줍니다. (내가 다녔던 24개여 단골병원...리스트입니다.)

제 13 일차 (2012, 7, 28)

“가평중앙교육원 황토수면 공동체협 학습관에서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라는
무서운 글을 보았다.”

이 세상엔 꼭 필요항 것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돈 사랑과 가족 그러나, 이 모든 것 보다 더욱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 자신 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돈도 가족도 나 자신도 삶의 무게에 치여 감당하기조차 힘든 무게로 내 가슴 가득 밀려와 그 소중함을 잃어 버릴때가 때론 있다. 난 몇년째 그래왔다. 아주 처절한 기분이다.

배고픈 것은 그리움이다. 누군가 보고싶은 것도 그리움이다. 물론 마약이 그리운것 또한 말 그대로 그리움이다.

나는 마약의 그리움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그 그리움을 극복 하는것 또한 희생 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분명 그러해야만 한다 !!!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역시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다. 내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만나 단약을 하기위해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한것 처럼... 엄마가 늘 말씀하셨다. "우리 딸은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 한다" 고 하늘이 열을 도우라는데 다섯을 도우면 안된다. 열을 주라고 하면 백을 주는 것이 옳다. 남을 도울때에는 아낌없이 도와야한다. 하지만 나는 또 받기만 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나에게 있어 참으로 복의 씨가 되어 주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신다.

떡 중에 '바람떡' 이라는 이름을 가진 떡이 있다고 한다. 그 떡은 색이며, 모양이 너무도 예쁘고 곱게 생긴 떡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입 베어물면 바람이 폭~ 꺼지며 폭삭 주저 앉는다고 한다. 나를 보고 주위사람들은 "예쁘다, 나이가 보이질 않아 " 라는 말을 자주한다. 하지만 겉보기엔 내가 마약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쁜미모를 가졌다고들 하지만, 프로포폴중독에 이르러 수없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재발까지... 참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가난한 여자이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프로포폴에 중독된 틈부기 지도 담당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권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인간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그 들중 일부는 살해되어, 시궁창에서 발견되고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 책을 잊게 만들고,
미의 여왕으로 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창녀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하고,
성직자들이 설교를 완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차용한 모든 돈을 빼앗고, 그리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태내에서 죽게 하던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강도로 만들어, 훔치고 살인하도록 조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위의 글은 가평중앙교육원, 황토수면체험학습관1 의 벽에 걸린 액자속 '시' 이다.
무서운 친구이다. 얼마전까지 나의 친구였던 프로포폴은 정말 벽에 걸린 액자의 '시' 처럼 날 그렇게 망가트린 것... 분명하다. 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제정신, 정상 이 아녔던 나는 ... 이 곳 '가평중앙교육원' 의 벽에 걸린 액자의 '시' 를 보고 세삼... 느끼고 깨닫게 된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분명 맞는 글이다. ㅠㅠ 나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폴의 텃에서 벗어나야 한다.



(뜸부기 입교 당시 프로포폴 주사 흔적)



(뜸부기 프로포폴 주사자국 염증 제거 황토마사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물으셨다, (질문) 손등에 많은 주사 흔적이 있는데 누가 주사를 쏴왔는지... 그리고 한번 맞을 때 돈은 얼마 인지, 병원마다 약값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병원 의사선생님과 실장, 간호사들이 혈관을 잡아 주사를 쏴 주었고 병원에서 훔쳤던 프로포폴을 내가 직접 바늘로 찔렀던 주사흔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리프팅 (처신 살을 올려주는 치료) 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비용은 모두 가지각색.. 다르다. 보통 30만원에서 비싸면 200만원에 이른다. 나는 지갑에 돈이 없을때는 내가 돈이 있을 때 찾아 갔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에 중독된 정신에 의해 훔칠때를 베풀기도 했다. 돈이 없던 그때가... 솔직히 다행스럽기도 한다. 이제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한발짝도 떠나서는 안된다. 떠나라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 14 일차 (2012. 7.29.일)

“프로포폴 마약 주사 맞고 병원 시트에서 10분간 숙박료 30만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내가 강남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날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그날 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불구속된 후 추가 조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하기위해 또 조사받을 때 었습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를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담당 형사님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나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의 손등, 팔목에 시켜면 주사자국이 난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갓 알에서 깨어난 유충처럼 험악한 ' 나의얼굴, 앙상한 몸매' 를 보시고 실망한 듯 바라 보셨습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손은 따뜻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의 뼈가 아팠습니다.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뼈까지 상처난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 팔꿈치 안쪽 반복주사로 혈관은 터져 피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 발등 반복주사 자국이 굳어 주사바늘이 꽂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 연못에 데려가 황토와 물을 혼합하여 나의 손등과 팔목에 발라주셨습니다. 주사바늘에 의한 염증과 시켜면 주사흔적을 지우기 위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냐고... 나는 시술 (리프팅-얼굴에 처진살을 올려주는 것) 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빙자하여 주사를 맞기 위해서 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 역시 내가 시술이 목적이 아님을 뻔히 아시면서도 형식적인 시술을 동시에 주사를 놓아 주었습니다. 주사 기운에 의해 10분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잠자기 위해 숙박료 (시술이) 와 다름없는 30만원 안, 밖의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1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루종일 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고, 모든것이 다 이뤄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후회스럽고 세상살기가 귀찮아 짐으로 또 다시 병원을 찾게됩니다. 주사 맞고 병원침대에서 잠잡니다.



인체독을 제거해 주는 (카탈라제, 디페놀 옥시디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 성분) 황토수면 체험관

지난 밤 수면상태는, 내가 법을 어기며 저지른 일에 앞으로 다가올 재판에서의 결과들로 많이 두렵고, 불안함에 쉽게 숙면을 취하진 못했으나, 한 시간 후 잠은 청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었는데 정확한 꿈의 기억은 나진 않지만, 프로포폴을 눈앞에 두진 않았지만...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잘때도 프로포폴이 따라 붙어 다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기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운한 기분이 아닌 무언가 찌뿌둥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난 지금 너무도 큰 후회와 갓 태어나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되어 걸음마조차 걷기 힘든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고도 더러운 꿈을 꾸었다는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 꿈 상태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말씀드렸더니 " 당연히 그럴 수 있다 " 라고 말씀을 전달 받은 후 그제서야 전 안심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가평중앙교육원 영농체험 학습시간에 채소밭에 있는 잡초를 깨끗이 뽑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둘러보시더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 어떻게 할것인가..."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과 함께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나의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중독증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상하게도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는 마약생각이 없다... 평소 집에서 있을때는 물결처럼 마약생각이 밀려오는데...

오후 2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기러기와 나를 데리고 청평댐을 구경 시켜 주셨다. 햇살은 무지 뜨거웠지만 사람구경과 함께 강물, 청평댐... 오랜만에 기분전환 했더니... 기분 좋았다.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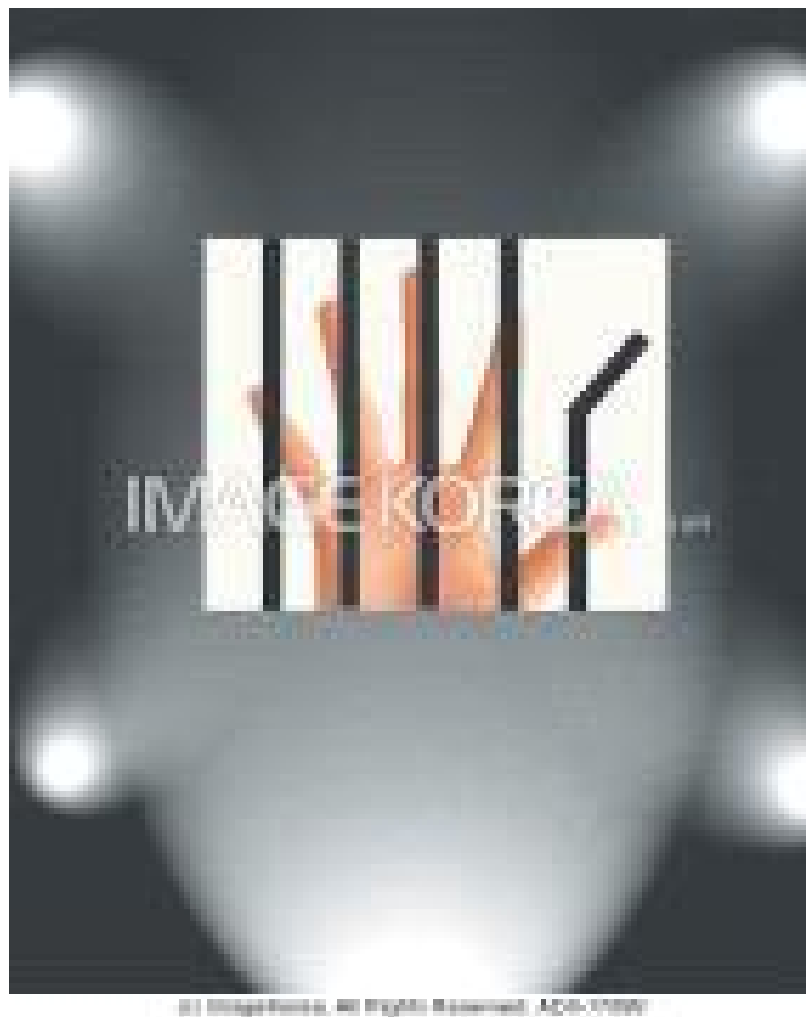
제 15 일차 (2012. 7.30. 월)

“나와 함께 교육받은 기러기 외박 가는 날...”

"배고픔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식량의 절반을 떼어 동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만 먹는다. 그렇게 몇주쯤 훈련을 한 뒤에야 비로소 식량을 다 먹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뭇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배고픔을 견디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하듯이...
(밥 한알이 지구보다 크다)" 라는 용어 개념을 인용한 강의 내용을 정신교육 시간에 들었다.

현재 나의 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인듯 싶다. 모든 생명은 굶주린 체 살아가기란 굉장히 힘들다. 배가고파 굶어 죽은 생명도 있듯이... 난 지금 삶에 만족하며 단약과 강한 의지로 버텨야만 한다. 영장실질심사때 너무나 감사한 판사님의 덕이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아마도 안양의 구치소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다행이도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지옥같이 무섭고, 차갑고, 짝 막힌 구치소가 아닌 자유와 자연과 도심속은 아니지만서도 저 멀리 보이는 산들과 하늘도 바라볼수 있고 물과 흙, 나무가 조화로운 가평중앙교육원에 있음을 너무도 감사해야만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고비를 넘겨야 살길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마구 든다. 나는 살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몰랐을까... 지금 내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긴 마찬가지이다. 오늘도 아주 큰 후회를 한다.

사람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우뚝 서 오르면 과거의 나의 낮은 위치의 시절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이 잊고싶어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물론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와 더이상 빼앗기고 버리고 가시고 할 것도 없이 보잘 것 없는 신세이지만...

내가 갖고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지금에서야 후회를 하게 되었다. '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나의 뚜렷한 주체성이 없었고, 오늘날 절망이 없었더라면 이런결심을 할수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도보고, 아래도, 동서남북 모두를 봐가며 살았어야 했는데 ... 오로지 프로포폴 하나만, 한곳만 바라보고 (프로포폴) 달린것 같다.

한번밖에 없는 내 인생...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는 내눈이 잘 보느냐, 못 보느냐, 무엇이냐 에 달린 것이다. 이제 나약한 나를 버릴 차례이다. 이번 프로포폴로 처음 경험한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여유있는 인간미와 융통성 있는 자주성, 강한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부터의 나는 마음의 부자로 거듭날것이다.



(뜸부기, 인터넷게임중독 기러기와 함께 지남력 테스트)

"사람은 누구나 귀하디귀하다. 그런데 나는, 내 걱정엔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엄마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선하다. ㅠㅠ 악한것은 망하고, 선한것은 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늘의 법이라고 한다. 마음이 약해질때마다 ' 나는 반드시 다시선다. 확실히 다시선다' 하고 이를 악물고 마을을 다져야 한다. 그을린 나뭇가지에도 봄이 되면 새싹은 돋는법이다. 강한 신념을 마음에 품고 뚝뚝하게 걸어가다 보면 세상도 분명히 나를 알아줄것이다."

오후 6시 나와 교육받던 인터넷 게임중독 기러기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며칠간 외박을 가는 나이다. " 일종의 자가 자율학습" 이다. 난 사실 어제부터 혼자 교육을 받고, 난 외박 조차 되지 않고, 여러가지 근심들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러기는 출발하고 1분조차 되지않은제 가평중앙교육원 안으로 다시 들어와 " 나 안갈래 " 라는 말로 가방을 내려놓고 미안해 하는 표정으로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난 다시돌아와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가라며... 기러기를 타일렸지만 기러기 ' 왈 ' 뜰부기와 며칠간 정이들어 나를 두고 갈수없다는 듯... "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해 " 하지만 난, 오늘 기러기를 서울로 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아주 큰 미안함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엔 며칠간의 외박을 다녀오라고 하여... 결국에 기러기는 내말에 순종하여 주어, 우울했던 마음은 썩~ 사라진체... 그래도 나와 함께 교육을 받고있던 기러기가 날 끔찍히 생각해주는 이기에 오히려 단약의 더 큰 자신감이 생겼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청평역으로 기러기를 데려다 주시려 하였지만 ... 기러기는 뜰부기를 두고 못가겠다는 말에 청평 시내로 잠시 일을 보시고 삼겹살과 수박을 손에 쥐고 돌아오셨다. 오늘 기러기가 외박을 간다, 안간다. 몇번이고 반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삼겹살과 수박을 사오셨는지... 어찌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던지... 코가 찡~ 했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은 무료이다. 그 보답은 내가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 16 일차 (2012. 7.31. 화)

ㅋㅋㅋ 참된 인생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이라고 하듯이... 어제 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상담끝에 서울 가고 싶은 욕심을 버려서 인지...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교수님을 따라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 쿨 바람을 쐬고 청평읍내에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처리하고, 가평중앙교육원에 돌아와 ... 마약범죄학박물관내에 창호지를 바르고... 나니, 해가지고 저녁이 금새 왔다.



(프로포폴 중독 뜸부기, 필로폰 중독 빼꾸기, 인터넷게임중독 기러기 고추밭 매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나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가지 동요들을 불렀는데... 나의 닉네임 뜸부기... 이름을 따 " 뜸뽕 뜸뽕 뜸뽕새~~~" 하며 동요를 부르다보니 우리 친 오빠생각에 잠시 코가 찡~했다.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후, 솔직히 하루 이틀이 지나고... 셋째날엔 무척이나 집에 가고 싶은 심정에 속으로 내 처지 타령을 하며 우울했었지만, 어제보단 오늘이 행복해지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행복해지는 것 것 같다. 프로포폴 단약성공을 만생각하며 ... 정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서 일까 ? ㅋㅋㅋ 오늘은 조금 웃었다.

난 오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나의 다짐을 사게되어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게 해주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무척이나 감사하다. 어제,오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나는 "멘소레담" 로션으로 내가 손과 발 마사지를 한 이유가 뭘까...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혈관이 막힌것을 확장시키고, 피가 잘 돌게 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을 회복할꺼라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오늘하루 즐겁게 보내면서 ... 지난밤에 나의 취침상태 " 멍송멍송 잠안와 " 여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싶었던 " 문득문득 생각 "등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을 통해 차츰차츰 양호 ... 하다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중독"증" 이라는 귀신같은 마귀가 언제 또다시 나에게 ...그 것은 나 자신도 믿을수가 없는 일이다.

제 17 일차 (2012. 8. 1. 수)

입교 후 16일만에 주사자국이 사라지다... “멘소레담, 황토 마사지”를 한
덕분인가...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나는 가평중앙교육원 천연지하암반수에서 나오는 알카리수를 마신다. 지난번 수면상태를 점검한다. 수면상태는 차츰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불쾌한 꿈도 없었다. 오늘 오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의 손등에 있는 주사자국에 의한 흔적들을 조사하셨다. 거의 다 없어졌다. 입교 16일만이다. ' 멘소레담 ' 마사지 덕분일까... 황토에 물을 섞은 황토마사지 때문일까...



(뜸부기 억새풀 속에서 버기능 회복 체험...)

뜸북 뜸북 뜸북새 ... 논에서 울고, 기럭 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 '오빠생각' 이라는 동요를 인터넷으로 들었다. 그 동요를 듣고 동심으로 잠시 돌아갔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 우리 교육원 교가로 했으면 좋겠다 " 라고 하셨다. 나 역시 찬성이다. 이 곳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동요이다. 가사가 너무도 와닿는다.

오늘 오전부터 마약범죄학박물관에서 선노일체정신을 위해 이것저것 치우면서 일을 했다. 식사도 전시실에서 ... 밥에 물을 마라 교육원에 심어둔 고추와 곁들여 아침점 점심을 먹고 내 정신과 비슷하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변화에 만족스러워, 땀

흘린 노동 역시 내게 있어선 보람된 노동이었다. 마약범죄학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들을 칼로 내려내며 보게 된 사진속의 주인공 모습이 몹시 충격이었다. 일본사람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체내에 넣고 부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찌나 안타깝던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오후에 서울에 다녀오시며 하신 말씀... 오늘 강남 어느 성형외과에서 마약 (수면마취제...프로포폴) 을 과다투약하여 환자가 숨을 멎었는데 담당의사는 응급처치나 신고는 뒤로한채 한강에 시체를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난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오늘 내게 남일같지 않은 일들이 들려오고 보였는지... 내가 프로포폴 투약 할 당시였더라면 아마도 이런 끔직한 일들이 안타까움은 잠시 뿐이었을것이다.

오늘은 머릿속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마약투약자의 슬픔에 나도 슬퍼진다. 난 내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체포되었던 날... 나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오히려 감사드린다. 신고자가 아니었더라면 난 오늘도 강남의 이곳저곳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만클리닉 등 병원을 헤메고 다녔을 테이니... 말이다. 단약이라는 것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나 자신에겐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서도 지금 나의 정신을 보면 그다지 어렵진 않는 것 같다. 영장실질심사때 판사님께서 내게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셨음으로... 서울 가고싶은 마음을 꼭 참고 견뎌내며, 하루하루 나의 변화에 많은 감사를 느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서울로 외출을 가시면서 과제를 주고 가셨는데...오늘 교육은 책상에 앉아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프로포폴중독증으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것이 아닌, 마치 사무실 책상에 앉아 비서가 되어 업무를 보는 듯...

기분이 아주 묘오~해져 난 잠시 내 현실을 잊고,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무직의 직업을 잠시 꿈꾸며... 나를 만끽하였다.

아~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되어 평범하게 살아보고싶다. 어느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그 행복... 얼마나 남지 않았겠지... 이젠 슬프기 싫다. 건강할 가정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마감한다.

제 18 일차 (2012. 8. 2. 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평중앙교육원 천연지하암반수 한컵 짭쭇 들이키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 산책로로 향하는 길에 마약범죄박물관 바깥쪽 모서리에 벌짚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선 우리도 너희와 가족이니 절대 물지마라 하시며 우린 산책로에 웅성하게 자란 풀들을 뽑았다.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씨에 머리부터 땀이 뚝뚝~ 떨어지는 이 느낌 ... 나쁘지 않고 노동으로 흘린 땀 방울이 내 몸속 불필요한 노폐물과 그동안 많은 양의 마약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되찾아 가는 것 같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땀부기 영농체험 학습장에서 뇌기능 회복 흙냄새 체험...)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부단장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오시는 날이면 아주 호강을 한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때마다 난 진수성찬에 너무도 감사한다. 프로포폴을 하기위해 강남병원 일때를 헤메고 다닐때는 하루에 한끼도 겨우 못먹을만큼 입맛이 없었는데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는 프로포폴 생각과 우울한 고민들은 떨쳐버리고 반성과, 오로지 단약만을 위해 나를 변화시켜서인지 ... 노교수님의 요리에 입맛이 절로 나고 육체도 변화됨을 느낀다. 그동안 내가 처한현실에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현실도피로 프로포폴투약을 하며 모진풍파와 더불어 외길인생길을 아무느낌, 아무감정도 없이 걸어 지내왔었지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쓰신 가문② “나의 삶, 나의 어머니”라는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善行)교육 교재 책자에 있는 구절처럼 나 역시 나의 삶, 나의 인생, 모진풍파를 만나도 이겨내고 살아갈수 있는 신념으로 누가 어떤 무슨말을 해도 오로지 내가 가야하는 정당한 길만...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나는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프로포폴로 인해 나빠진 몸 회복 식용식물 시음체험학습관에서 뜬부기의 식사...)

내가 잘되길 바라는 가족,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친구들... 너무도 많은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사람들의 마음을 그동안 나는 알지도, 알고싶지도 않았었다. 기러기와 며칠전 대화속에 " 땀부기를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 " 라는 말에 난 " 없어 " 라고 대답을 하였었지만,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니 기러기 말처럼 정말 그렇다는 확신이 들자... 나에게 용기가 났다. 엄마께서 늘 우리딸은 충분히 잘할수 있을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했듯이 난 정말 마약류중독성물질에 의해 ' 잃어버린 정신 ' 을 되찾게 해주는 교육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통해 되찾아 가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마약, 프로포폴(수면마취)의 쾌감을 알았다는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지독한 중독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이라고 한다. 가평중앙교육원 제1단계 교육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善行)교육 교재가문② “나의 삶, 나의 어머니” 라는 글을 읽고 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해야 하고, 오늘보다 지금,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변화는 진실과 참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자신 있다. 구치소가 아닌 공기 좋고 맑은 하늘아래서 하늘을 볼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하기에 당연히 난 견뎌낼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고, 중독증에 있어서도 승리할 것이다.



(땀부기 뇌기능 회복 흙냄새 맡기 영농체험학습)

오늘 바깥세상을 잠시 회상해 보았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고 욕심을 버리고, 내 귀하고 소중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켜 갈 것이다.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 마약을 하면서 가장 큰 나의 문제였지만, 이제 깨닫지 못한사람이 아닌 깨달음에 변화된 기적을 세상에 당당히 비칠 것이다. 뜬부기 화이팅...

제 19 일차(2012. 8. 3. 금)

입교 후 19일만에 “프로포폴 시도때도 없이 밀려오던 생각이 멈추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천연지하암바수 한컵으로 하루를 시작한지도 벌써 19일차가 되어간다. 오늘 아침도 진수성찬에 아침식사를 하였다. 물론 음식솜씨가 뛰어난, 노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아침식사를 준비하셨다. 역시 최고의 만찬이었다. 오늘 날씨도 아주 뜨거운 햇볕이 무더운 날씨다. 하지만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햇볕이 너무 뜨거운 시간때에는 받아던 노동이던 피하도록 하신다. 많은 배려에 감사드린다.

잠시후면 외박간 기러기가 돌아온다. 많이 기다려진다. 많이 기다렸다. 기러기가 드디어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하여주었다. 예전같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에 요즘은 아이가 되버린것같다. 무사히 도착해준 기러기에게도 감사하다. 기러기를 기다리면서 ...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을때가 잠시 떠올랐다. 2박3일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있었을때 가족들의 면회가 끈이질 않았다. 아빠, 엄마, 오빠, 새언니, 동생... 우리가족모두 먼길까지, 말도 안되는 무섭고 소름돋는 그곳까지... 그것도 여자인 내가 ㅠ 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다. 그때도 가족들이 그곳까지 오게 했던 것이 너무도 죄송했었지만서도 많이 그립고, 보고싶었던 건 사실이다. 물론 가평중앙교육원은 유치장에 비하면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지만서도 사람이 그리운 것 또한 사실이었는지 인터넷게임중독증에서 벗어나고자 함께 교육받는 기러기의 기다림의 간절함 또한 진실이다.

기러기가 돌아오고 점심을 함께 한 후 해가 지기전 기러기가 외박으로 서울가 있던 동안 나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밭과 마약범죄학박물관의 변화된 모습들을 모두 보여주고 자랑하며 함꼐 뽐냈다. 그러고 보니, 보람이 두배로 이어졌다. ㅋㅋㅋ 정말 프로포폴 투약의 간절함은 입교 후 19일만에 사라지고, 함께 교육받던 기러기가 돌아올수 있도록 기다림의 간절함이 생기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내가 당시 프로포폴으로 거리를 헤메고... 중독성물질로 나빠진 육체적, 정신적 회복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나를 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사실 무의식중에도 마귀가 조종하듯 통제불능...으로 프로포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나는, 열흘, 보름이 지난 지금은 떠오르지 않음에 매우 만족스럽고 나 자신을 칭찬한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의 상황을 극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단약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신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뜸부기 정신환경 개선 가평중앙교육원 연못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듣기)

가평중앙교육원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진다. 바람이 갈대를 흔드는 소리. 연못에서 개구리 우는소리 숲속에서 새들 지저거는 소리같은 자연의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잡생각이 나질 않는다. 자연이 내안에 들어오듯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나를 더 빨리 변화시키고, 나를 어린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같다. 내가 겪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증을 치유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큰 도움이 되고있어.. 내가 지내고 있는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이 이제 익숙하고 너무도 편안해지고 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은 교수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경비원도없다고 말씀 하셨듯이 ' 내 집이다 ' 생각하고 과거는 지나가면 그만이니 중요한것은 지금 !!! 지금부터라도 새 삶을 향해 극복해 나갈것이다.

제 20일차 (2012. 8. 4. 토)

“이제 제대로 된 대소변을 보게 되었다... 수면상태 양호, 우울증 사라지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프로포폴 마약 생각도 사라진다...”

거의 몇개월을 변을 볼때 설사로 매일 고통스러웠었지만 오늘 드디어 제대로 된

변을 보게 되었다. 기러기 말처럼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음에 건강을 되찾는 기운에 아침이 반갑다. 어젯밤 수면상태를 점검하자면 눕자마자 바로 잠을 청했다. 평소 누워도 프로포폴생각에 쉽게 잠도 못 청하고 뒤척거리며 겨우 잠이 들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 문 여는 시간이면 안절부절...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었지만, 이젠 프로포폴생각은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이 든다. 아주 행복하다. 잠을 잘 자는 것에 만족하고 프로포폴투약으로 병원 출입을 할때와는 달리 아침인간이 되어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교육생활에 하루하루가 아주 뜻깊은 나날로 이어진다.

가평중앙교육원... 산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뜨거운 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져 짜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감사드리게 됨이 가평중앙교육원 재발방지 평생교육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판사님과 입교를 허락해주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오늘 또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울함은 점차 사라지고 내가 저지른 범죄들과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가족들, 주위사람들을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도 단약을 꿈꾸며... 강인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약류등 중독성물질 투약에 의한 나빠진 합병증, 변비, 간기능, 효험,
지하 170M 지하암반 알칼리수 시추

점심을 먹고 화장실 청소를 깔끔히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깨끗해진 화장실처럼 개운해지고,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도 몸이 시원한게 기분 최고다... 만약 불법마약 투약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유치장에서의 생활이 없었더라면 여름 날씨에도 무더운줄도 모른체 에어컨바람에 난 지금도 병원침대에 누워 마약투약으로 잠을 자고 있었을 것이다. 여름날씨를 만끽할수 있는 지금도 난 솔직히 감사하게 느껴진다. 예민하고 모든것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마약투약의 시절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 성격 또한, 놀랍다.

해가 질때쯤 마약범죄학박물관에 부직포 작업을 마무리짓고 마약범죄학 연구 관련 자료들을 교수님 지시에 따라 진열하고 보니,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였다. 오늘도 아주 뜻있게 무언가 내 손으로 해냈다는 마음은 뜻깊은 하루로 마감한다. 잠 잘오겠다는 기대감에... 잠을 청해야겠다.

제 21 일차 (2012. 8. 5. 일)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기운이 펄펄... 역류성 위장염도 없어진다”

벌써 한주가 마무리되는 일요일이다. 이젠 프로포폴 투약할 당시와는 달리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고, 아침에 깨어나야할 시간이 될때 쯤이면 화장실 가고싶어 깨지 않는 이상, 한번도 뒤척이며 깨어나질 않고 아주 푸욱~ 잠을 잔다. 오전 일찍 일어나 발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어제 마약범죄학박물관에 진열하다 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아침식사에 들어간다. 처음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고 거의 일주일동안은 손가락 마저도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 빈혈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기도 버거웠었는데 현재 체력은 아주 양호하여 기운이 철철넘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비슷한 기운을 되찾아 가고있다.

주사바늘의 흔적들도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음식섭취도 힘들었을 만큼... 역류성위염였던 나의 위장까지도 잠시 잊었을만큼 정상을 되찾아 설사도 멈춘것같다. 하루

세끼를 잘 챙겨먹고 육체적 노동으로 운동을 해서인가... 나의 건강은 이제 정상인과 별다를거 없을만큼 피로도 쉽게 오질않는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가 뜨거우면 농사짓기에 너무 뜨거워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한다는 엄마의 말씀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오전 일찍 밭의 잡초들을 제거할때도 햇볕이 그리 뜨겁지 않은탓에 수월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무렵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을 또 방문하셨다. 오늘도 빈손이 아닌 아주 큰 아이스박스안에 음식을 가득채워 오셨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노교수님이 오시면 우린 포식한다는 말씀이 정답이다. 사실 난 하루도 빠지지않고 매일 진수성찬으로 임금님 밥상의 아침,점심,저녁식사를 한다. 노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음식을 가득 가져오시면서 내가 먹을 간식 또한 절대 잊지 않으심에 또 감사드린다. 내가 뭐 잘한게 있다고... 늘 생각하고 챙겨주시는지... 고마우면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해가 질무렵 기러기와 나는 처음으로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기한테 다섯방이나 물렸다. 우린 모기한테 물린곳을 긁어대면서도 이야기의 끝은 나질 않았다. 공기 좋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주어 시원한게 꼭 여름휴가 나온 기분에 프로포폴 투약으로 고통받고 문제해결되지않은 걱정, 근심들은 잠시 잊게 되었다.

제 22 일차 (2012. 8. 6. 월)

“기억력도 되살아나다... 달빛없는 별을 바라보면서...”

화장실 가고싶어 깨지 않는 이상, 잠에서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몸이 개운해 완전 상쾌한 아침을 맞이 하였다. 눈을 뜨고 기러기와 함께 빗자루와 대걸레로 바닥청소와, 이불들을 햇볕에 말리는 동시에 내 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게 너무 개운한 기분였다. 땀을 흘리고 바로 씻지 않아도 찝찝하지도 않은 내 몸상태가 프로포폴투약을 할때와는 사뭇달랐다. 이젠 정말 우유 및 프로포폴류 물질들이 내 몸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일까... 만약 육체를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더 늦은 시간을 거쳤을 것인데 ... 그리고 여름이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 이 무더운 날씨 또한 감사하다. 천안에서 온 복받는순복음교회 교인들도 “가상”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을 체험하는 것을 바라볼수 있었다.

오늘 아침식사도 (자연산 식용식물 시음체험)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몸에 좋은 올갱이 국과 감자볶음과 여러가지 반찬들로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식사시간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 많은 사람들이 (“가상”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평생교육체험 4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러 가평중앙교육원을 찾았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봐서인지... 무척반가웠고 맛있는 옥수수도 삶아주셔서 도심의 서울이 아닌 공기좋은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만 나눌수 있는 ' 정 ' 또한 느낄수 있었다. 마약투약할 당시에는 어떤 누구와 대화 나누는 것조차 귀찮아 했던 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



뜸부기(프로포폴 중독)



빼꾸기(필로폰 중독)



기러기(인터넷게임 중독)



토순이(필로폰 중독)

기러기와 나는 “가상”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평생교육을 받으러 오신 목사님께 황토수면공동체험학습관1을 비워주었고, 가평중앙교육원의 시설에 잘 모르면 것들을 알려주면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역할을 대신 한것같아 우리는 서로를 뿌듯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프로포폴을 끊고 맑은공기와 자연을 만끽하면서... 중독되었던 나는 요즘 무의식중에 프로포폴투약을 하기위해 병원을 찾던 때와는 달리, 무의식중에 나를 보면 미소를 짓고있는 내 모습에 내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 같음을 느낀다.

어릴적 살아가면서 집안에 동전 백원하나 가져간 적 없던 내가 어찌하여 마약으로 분리된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아주 당당히 많은 양을 몇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를 했었는지... 참 후회가 막심하다. 엄마의 말씀처럼, 과거는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 갈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도 시간이 지나 내일이면 과거가 되기에 난 지금... 언제나 지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여 행동하고... 언제나 내일을 위해 준비 할 것이다.

... 프로포폴 투약 당시엔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도 저하되어 어떤 일에도 아주 어리석게 행동해 왔었다. 기억력은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았지만 ... 프로포폴 투약의 당시 기억은 떠오르고 싶지도 않고, 떠올려 봤자 불필요한 기억들이기에 오히려 ... 프로포폴 투약의 당시 나질않는 기억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젠 공과사를 구분할수 있는 정신을 회복 시키고 있기에 판단력은 정상으로 돌아온것 같다. 이젠 내게 필요한 좋은 영향력만 흡수하고 보고 느끼고, 배워 갈 것이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와 나는 산책을 하며 하늘을 보니, 달은 보이질 않았지만 별들이 뜬이 없을 정도로 아주 뽁뽁히 하늘에 가득 떠 있었다. 어찌나 예쁘고 반짝반짝 거리던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 아무 근심, 걱정없던 어릴때로 잠시 돌아간 기분였다. 우리들은 밤 11시에 취침에 들어갔고, 기러기와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덕분에 다른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양보하게 되어 서로를 칭찬하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가평중앙교육원의 교육생활에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만약 ... 프로포폴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더라면... 볼거리, 맛있는 음식들, 배울 것, 느낄것, 사람의 ' 정 ' 또한 느끼며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싶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듯이 난 서른이 넘은 지금에서라도 해답을 찾았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젠 더이상 내려갈 길도 없고 엉킬 자리도 없으니, 난 올라갈 길과, 엉켜진 인생만 풀어야 할 차례이다. . 그동안은 오로지 프로포폴만 욕심내며 살았었지만...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 마귀의 약 " 따윈 가까이 하지 않을 것같다. 오늘도 단약을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하다.

제 23 일차 (2012. 8. 7. 화)

황토수면공동체험관 2 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기러기와 나는 여름날씨에도 에어컨과 선풍기도 없이 이불을 덮고 자다니...여기 황토수면공동체험관 2실은 " 완전 시원하다 " ...며 우리는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자마자 현실을 만족하고 했다. 기러기는 늦잠을 잔 내게 천연지하암반수 한대접을 내게 건내주기까지... ... 프로포폴 생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아주 맑은 하늘색 하늘에 솜사탕처럼 예쁘고 통통하게 떠있는 구름처럼 내 아침기분 또한 맑았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뜸부기, 필로폰에 중독된 뱀꾸기,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기러기
가평중앙교육원내 배수시설 “또랑” 치우기)

지난주 오후에는 소나기가 한두차례 내려주더니, 나무와 식물들이 가뭄을 견딜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말씀처럼 오후 4시에는 물을 뿌려 숨을 쉬게 해 줘야 한다. 오늘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일찍 외출을 하셨는데도 기러기와 나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평소때와 다름없이 책상에 앉아 가평중앙교육원의 교재를 펼쳤다. 우리는 착한 학생들이라며 " 하하호호 " 잠시 웃었다. 어제 쓴 수건과 노동으로 흘린땀이 묻은 옷들을 찬물로 빨래를 하고, 해가 쨍쨍하게 떠있어 뽕뽕하게 마를 빨래들을 탁탁 털어 널고나니 온몸에 땀은 뚝뚝 흐르지만 깨끗해진 빨래처럼 내 기분 또한 개운하고 깨끗해졌다.

오히려 샤워를 하는 것 보다 이젠 빨래만 해도 시원하고 여기 가평중앙교육원의 물은 천연지하암반수 이므로 더 더욱 시원한 것 같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예전과는 무척 다르게 귀찮음이 사라지고 "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 노래를 흥얼거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저녁 6시가 되니 뜨겁던 태양의 온도도 낮아지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잡초들을 뽑았더니, 가만히 앉아 바람 쐬는 것 보다 깨끗해진 밭의 풍경처럼 내몸 또한 더 시원해진다.

프로포폴 투약을 멀리하고 단약을 시작한지도 벌써 보름이 넘어간 지금... 프로포폴투약을 할때의 당시에는 오로지 주사맞고 싶은 생각만이 간절했기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 집중 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있는게 프로포폴 투약을 할때의 습관, 쾌락보다도 단약을 하는 지금의 쾌락이 몇배는 더 만족스럽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다.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류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내겐 아주 큰 영향과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은인인듯 싶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은 자식의 효도이기 때문이라 하는데... 난 효도는 커녕 불효로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걱정,아픔...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너무도 가슴에 큰 짐을 안겨드려 마음이 편칠 않고 너무도 죄송스럽다. 그런데도 우리 아빠 내가 프로포폴 단약을 시작한 순간부터 담배를 끊으셨고, 우리엄만 " 자식이 받아야 할 고통 내게 주옵소서 .. " 하시지만 난 왜이리 못났는지... 너무도 죄송스러움에 오늘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칠않다. 아빠, 엄마가 오늘도 너무너무 보고싶다.

제 24 일차 (2012. 8. 8. 수)

나무들은 이슬맞아 시원해지고... 나도 프로포폴 마약중독증에서 벗어난다...

'문득문득 생각나, 땡송땡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 척결' 을 위한 나로부터의 정신 혁명으로 맞이한 아침... 오늘도 햇별은 짹짹, 새들은 짹짹, 나무들은 이슬을 맞아 시원해하고... 아주 신이난 자연들이 살랑살랑 춤을추는 듯한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은 우리들보다 부지런한 자연들이 매일 아침... 우리를 맞이한다. 오전 7시 기상...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날부터 부지런한 자연들처럼 나 역시도 부지런해졌다.

어제밤도 눕자마자 잠이들고 수면상태 또한, 정상였다.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면 서울의 생활과는 다르게 기지개를 활짝펴고, 깔고 덮은 이불과 베게를 일광욕에 진드기 제거를 한다. 내 몸속의 마귀의 프로포폴이 함께 제거되는 느낌이다. 입교 전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습관처럼 해왔었지만, 이제는 매일아침이면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 일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나쁜습관이 아닌, 생활속에서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들 마저도 귀찮지 않고 이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이다.



(뜸부기 장마가 끝난 후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내려다 본 자연환경)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덥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주방장도 없고, 경비원도 없다고 ... 말씀하셨듯이 가스렌지 앞에서서 음식을 할때면 뜨거운 가스불에 엄청덥다. 우리 엄마 내가 프로포폴 주사 맞기 위해 진 빗 때문에 식당으로 출근을 하신다. 오늘

엄마생각이 많이난다. 이 무더운 날씨에 불 밑에서 얼마나 더우실까... 손에 매일 겁테기가 벗겨지시는데 매일 손에 물을 묻혀가며 일하시면 손도 얼마나 아프실까... 허리, 관절도 많이 안조으신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다. 프로포폴 그게 뭐라고, 엄청난 금액을 병원에 매일 쥐가며 무언가에 홀린듯이 정신 못차리고 살았었는지... 정말 후회스럽다. 그 엄청난 돈을 병원이 아닌, 엄마에게 드렸더라면 우리엄마 많이 기뻐하시며, 쓰지도 못하시고 매일매일 저축해오셨을텐데...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제 예순이 넘어가는 연세에 식당에서 설거이를 하신다니... ㅠㅠ 불효 자신이 나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메어지고 우리엄마 불쌍해 미칠 지경이다. 왜 그리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숨이 절로나온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 서울에 외출을 다녀왔다. 그런데 오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장모님의 제사날이라고 하셨다. 난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외박이 불가능하다. 그런관계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서는 집안의 일이 있으셔도 참석을 못하신다. 너무도 죄송스럽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프로포폴투약으로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소중한 여러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다 못해... 중요한 일과 일상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이번기회에 정신 못차리고 프로포폴을 끊지 못하면... 난 정말 인간도 아니다. 정신바짝차려야겠다.

서울을 다녀오는 길에 내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차를 주행하였다. 조금은 답답함이 풀렸지만서도, 마음이 불편한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약을 꿈꾸며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 나는... 절대절대로 더이상의 프로포폴 투약은 하지말아야 한다,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마약투약은 해서는 안된다. 내 잘못된 범죄에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정신으로 단단히 마음먹어야한다. 외박은 불가능하지만 손, 발이 공공 묶여있지도 않고 딱 막힌 답답한 방도 아니고, 마음껏 걷고 뛸수도 있는, 자연의 풍경, 향기도 맡으며, 하늘도 가까이 보이는 가평중앙교육원의 내 현실을 생각하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많은 죄를 지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서 한번 들어가지 않으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늘 나를 아끼고,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단약을 노력할 것이다. 이 좋은 세상을 더이상 무의미로 헛되게 살아가기엔 너무도 아까운 세상이다. 가치있는 삶을 살고싶다.

제 25 일차 (2012. 8. 9. 목)

오늘 오전에는 바람이 선선히 불어주더니,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차례 내려주었다. 나무와 풀들이 숨막힌 무더위를 잘 견뎌주어 하늘에서 물을 뿌려주는듯 했다. 오늘은 천안복받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가상"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평생교육을 받기 위해 3박 4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건강하게 무사히 마치고, 가평중앙교육원의 수료식까지 끝내고 점심식사 후... 그 분들이 가평중앙교육원을 떠나게 된다. 인적이 드문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많은 사람들이 복적거려 허전했던 마음을 잠시나마 채워주었었는데 떠나는 날이 닥쳐오니, 무척이나 아쉽고 서운해진다.

사람이란 동물은 혼자 살아갈순 없는것 같다. 기러기가 며칠동안 서울을 다녀갔을 때에도 허전함을 달래기가 이루 말할수 없었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일을 보시러 서울을 다녀갔을때에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듯이... 그런데 그와 반대로 프로포폴 투약의 당시에는 누군가와 대화 나누기도 귀찮고, 모든 사람과의 접촉하는 것 또한 번거롭고 싫었었는데 대인기피증... 프로포폴을 끊은 후, 내가 변화되긴 변화되고 있나보다.

어제밤에는 인터넷게임 중독 극복을 위해 나와 함께 지내는 기러기가 외박을 떠나 황토수면 공동체험관 2실에서 혼자 취침에 들어갔다. 유일하게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황토수면 공동체험관 2실에서 혼자 잠을 자기가 솔직히 많이 두려웠다. 그런데도 전혀 무섭지 않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들어, 참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였다. 이제는 정말 수면상태와 육체적 건강이 회복된 것 같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뜸부기, 인터넷게임중독 기러기 풀냄새 맡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에는 배울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고 늘 말씀 하시지만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던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서 가져갈 것 같다.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고통받던 이들 외에도 마약 따윈 모르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 또한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먼저 생활습관부터가 변화되고, 맑은 공기와 자연, 가평중앙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자체가 육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기러기가 외박을 마치고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할 무렵,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와 나는 목욕요법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기위해 청평에 있는 사우나에 도착하여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며, 땀을 흘려 노폐물을 빼내고 때까지 밀고나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마약... 프로포폴, 미다졸람등 내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성분은 물론 노폐물까지 모두 빠져나간듯 몸이 개운하고 한결 가벼워졌다. 기분 또한 맑아졌다.

저녁식사에 들어갔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가 스트레스로 인해 프로포폴 생각이 날 경우 막걸리 한컵이나, 맥주 한켤으로 마음을 달래보라고 말씀하시며 막걸리 반잔을 종이컵에 ...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과거 수사관 시절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자 (뚜껑이 열려) 난동을 부릴때 막걸리 한 컵 마시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쫓은 주사흔적도 거의 없어지고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맨발걷기 등 2단계 재발방지 평생교육 2개월째 접어든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내가 프로포폴 주사 맞은 수사기록을 강남경찰에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검찰조사 또한 성실케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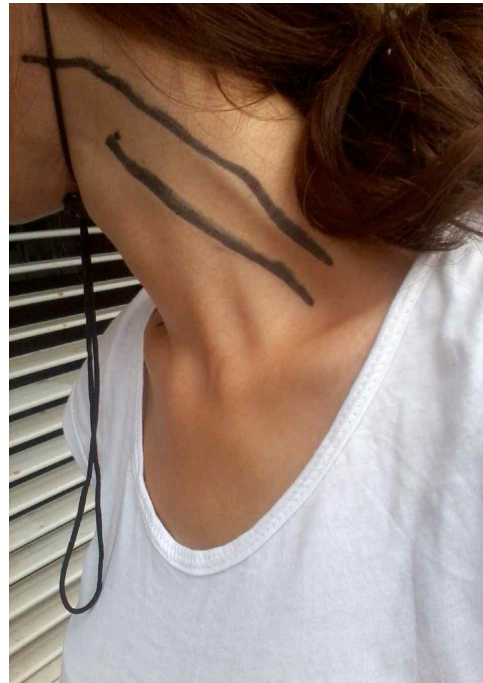
제 26 일차 (2012. 8. 10. 금)

“프로포폴 투약에 나빠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에 좋은 식용식물 시음...”

어느날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주사를 콧고 쓰러진 땀부기...를 뜻한다. 땀부기는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지어주신 닉네임이다. 그리고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또한 나의 가명은 전영순이다. 본명을 사용하면 부모님을 손가락질 할까봐 ...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자신의 성을 딴 전영순이가 되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눈을 밝게하고 동맥경화에 효험이 있는 구기차, 빈혈로 인한 피로 혈액순환, 간에 좋은 칩즙, 머리를 검게 하고 탈모방지에 좋은 하수오,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되고 양과, 당뇨 폐질환에 효험이 있는 뽕잎, 빈혈과 머리를 밝게 해주는 인진쑥 을 차로 다려먹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평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지하암반수, 황토수면에 이어 제 2단계 중독증 제거 자연산 식용식물 시음체험이다.

야간학습은 내 머리카락 윤기와, 머리카락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은콩, 처진 얼굴과 피부관리를 위해 영양크림과 오이팩을 기러기와 함께 서로 상대가 되어 얼굴 마사지를 했다. 그것 역시 프로포폴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수축해진 혈관이 잘 돌게 하는 가평중앙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땀부기 과거 2-3년전 부터 병원에서 맞았던
고속도로 메인라인형 좌우 동맥주사 흔적 재현)

아침식사에 들어가기전 조금은 많은 양의 빨래를 했다. 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샤워를 하는 것보다도 찬물에 손빨래를 하는 것이 이젠 더 시원하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도 없어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제대로 들지도 못했던 나... 팔뚝에 근육도 생긴듯한 내 몸은 근력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육체로 보이는 것 같아 거울에 비친 내 팔이 앙상한 뼈를 가리고 살이 붙어 아주 보기좋아... 기분도 좋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나의 지남력을 테스트하기위해 ... 운동장에 있는 통나무를 걸어서 통과했지만... 연못 위에 있는 통나무는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당시 손등에 있던 주사자국을, 오늘 연못 옆에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검사후, 사진을 찍으셨다. 그리고 천안 복받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가상 마약류등 중독성 재범방지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남기고 간 체험후기를 워드로 직접 옮겼는데... 내용들은 나에게 대단한 감동을 안겨주어 눈물을 쏟게하는 글들도 있었다. 나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가치있는 삶을 누리며 행복했을까...

오늘도 지난 과거에 많은 후회를 한다. 프로포폴투약을 하기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갚지도 못한 상황에 경찰에 검거되어 단약을 목적으로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가려한다.



(뜸부기 과거 2-3년전 부터 병원에서 맞았던
고속도로 메인라인형 양쪽 손등, 팔, 다리 동맥주사 흔적 재현)

중독된 뚝부기 살리기... 제2부 _

뚝북 뚝북 뚝북새
논에서 울고
뚝꼭 뚝꼭 뚝꼭새
숲에서 울 제
우리 오빠 말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 기럭 기럭기
북에서 오고
귀뚫 귀뚫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뚝부기는 3년전 서울가신 오빠를 기다리다 ...어느날 논에서 울다가 ...자신의 예쁜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리프팅이라는 시술과 더불어 잠재우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마약을 투약하고 그만 중독의 늪에 빠졌다.

2012. 7. 13 강남 경찰서에 체포되기 이전까지 무려 6억원 상당을 병원에 쏟아붓고 ...가진 돈이 바닥나자...프로포폴을 훔칠것을 결사 항전 ...드디어 평소 병원 의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오던 강남 A 성형외과를 기습공격 ... 프로포폴을 훔치는데 성공했다. 훔친 프로포폴으로 강남 청담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사기를 꽂고 잠을 자다...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치만 운 좋게도 때 마침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나타나...뚝부기를 손쉽게 강남 경찰서 형사가 잡아갔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 병원 CCTV 에 찍힌 사진을 보고... 평소 단골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러 온 뚝부기의 소행이라고 확인한 A 성형외과 병원장은 ...뚝부기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다.

"뚝부기님" "병원 CCTV에 프로포폴 3 박스 가져간 것이 찍혔으니 빨리 연락주세요." "연락 없으시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

뜸부기가 문자를 읽은 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 조금만 일찍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원장님께서 뜸부기 씨 택으로 가고 계셨는데..." 뜸부기가 많은 양의 투약으로 사망했을 걱정을 하신 것 인지...그렇게 까지 뜸부기에게 호의를 배풀었다 뜸부기가 ...중독자라는것을 뻔히 알면서...좌우지간 원장님께선 많이 놀라시고 화도 나셨겠지만 환자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긴 듯 ...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 할까... 가장 더티한 정치인과 더불어...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의사들의 프로포폴 판매시장이 아닐수 없다...도대체 알수도 없고 알수도 없는 일이다. 알수는 없으나...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의사 "왈" 뜸부기님, 흠쳐간 프로포폴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들어갑니다... 그후 뜸부기는 뜸부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신고하여 강남경찰서에서 긴급 체포 당한후 유치장에 구속되어 한발작국도 날지 못하는 영어의 신세가 되었다. 용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탈락한 뜸부기는... 유충이 금방 알에서 깨어 나듯 ...빠만 양상한 몸매로...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 평소 자유롭게 놀던 논두렁에는 다시 날아 가지못하고 ..

7호선 전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청평역을 향했다. 전경수단장의 안내로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바람,물, 햇볕 조화롭고 맑고 깨끗한 청정하늘 아래 ... 가평에서 오염되지 않은 가평중앙교육원에 솟아나는 천년 알카리 지하 암반수를... 매일 매일 아침... 일어나자 마자 한대접 쪽 마시며... 몸에 밴 마약중독성을 빼면서...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단장, 노철환 부단장의 지극한 보호와 재활교육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 일부 병원 의사가 "쳐" 놓은 프로포폴의 올라미에서 벗어나 ...간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뜸부기의 전설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뜸부기는 2012. 8. 13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 . 강남경찰서에서 뜸부기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인것 같았다... 과연 검찰에서도 뜸부기가 운 좋게 풀려 나올것인지. ...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 뜸부기의 마지막 일생 ...뜸부기가 재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운명인지... 서울간 오빠생각을 하는 동심의 동요가 있는 ...논두렁으로 다시 돌아 갈 것인지...ㅋㅋㅋ ... 병원 의사에게 중독되어 돈을 날리고 ... 몸 까지 허약해져 날지 못하는 "들무새"가 된...(들무새=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새라는 중국고사) 뜸부기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 계된 ... 마약류등 중독성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정신혁명사령부를 창설한 전, 노 가짜 장군(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 노철환 부단장은...)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검사님께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하다...

존경하는 검사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가평중앙교육원 에서... 현재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뜸부기 재발방지교육사 전경수, 노철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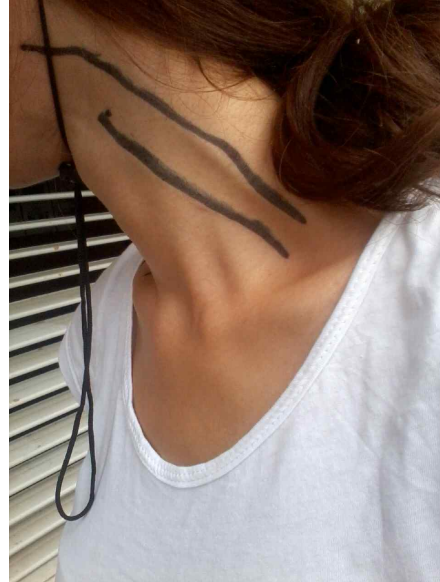
마약범죄학·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탄생시켜, 5 년전부터 라파교정교실을 설립,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가능성을 측정한 바 ...재발.재범 방지 효과를 발견 .. 라파교정 교실을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으로 확대 시켜 마약류 등 중독증에 걸린 분들을 무료로 교육시켜 정상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금반 2012년 7월 17일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중독이 너무 심한 상태 때문에 기각되어 불구속 되자 ... 뜸부기가 우리 교육원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기위해 입교 하여 쇠약한 몸이 호전 되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증을 끊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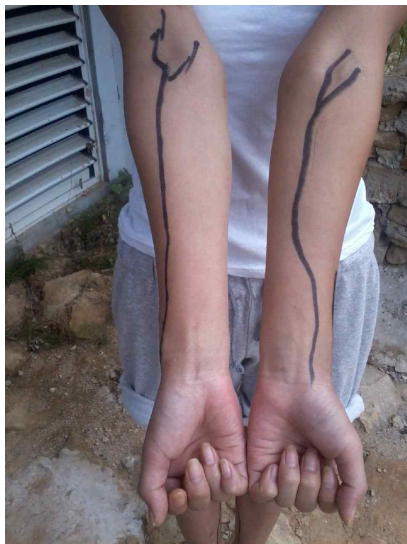
뜸부기는 입교당시 본 교육원 설문에 의한 본인의 답변입니다. 강남일대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만클리닉 등지에서 얼굴시술(리프팅) 을 하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가진 돈을 병원에 쏟아부어 중독된 뜸부기는 돈이 바닥이 나자...그러나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오는 것을 더이상 참지못해 결사항전 프로포폴을 훔쳤다고 합니다. 프로포폴을 해야 하는데 돈이없어 더 이상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돈을 주고 프로포폴을 투약 하던 단골 병원 두서너 군데 찾아가 프로포폴을 훔쳐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 승용차안에서 주사를 쏴고 의식불능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입교 당시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는 우울증에 의한 예측 불허한 자살 심리와 더불어 ... 기억력 상실과 더불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과거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핸드폰을 줍다가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앞뒤 한개가 부러진 흔적, 뒤로 넘어져 엉덩이 꼬리뼈 상처, 오래전부터 월경 끊어짐, 불면증, 어지럼증 (빈혈) 이 심했습니다.., 냉장고 모서리에 오른쪽 머리를 부딪쳐 오른쪽 귀 ...고막 달팽이관 파열로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반 귀먹어리었고, 자살충동증과 더불어 C형감염을 보균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현재 (2012.8.13) 호전되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도하면 재발. 재방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주사흔적이 희미하지만 과거의 투약한 잠재적 주사흔적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뜸부기 과거 2-3년전 부터 병원에서 맞았던
고속도로 메인라인형 좌우 동맥주사 흔적 재현)



(뜸부기 과거 2-3년전 부터 병원에서 맞았던
고속도로 메인라인형 양쪽 손등, 팔, 다리 동맥주사 흔적 재현)

목 양쪽 동맥,정맥 혈관에 고속도로 라인처럼 주사흔적과 더불어 양쪽 팔 혈관,양쪽 발목 혈관에 이르기 까지 주사흔적이 있었습니다. 땀부기를 지도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누가 이곳에 주사를 놓았냐고 질문 하기에 땀부기(피의자)가 병원 의사들이 주사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주사흔적이 굳어 주사바늘 찌를 곳이 없자 귀 밑 동맥에 이르기까지 꽂았다고 합니다. 정맥주사자국으로 인해 혈관 전체가 주사자국으로 신체 양팔목, 팔꿈치 안쪽 혈관이 과열되었고, 손등에 있는 혈관 역시 반복주사로 인해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본 탄원인은 땀부기의 중독 증세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천연지하암반수를 먹이고 황토수면 체험관에서 잠을 재우고 산림수목에서 나오는 음이온 등 자연을 동원한 NK 세포 특수교육 기자재를 동원하여 중독증을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면 되돌아 올수 있는 황금다리... 마약에 중독된 자 역시 ...단약을 했을 경우 ...교정의 최선의 목적 재범방지라는 중독증 제거 의미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탄원서에 갈음 합니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저소득층 중독의 덫에 걸려 고통받는 분들의 재활을 위해 교육비를 받지 않는 자선사업입니다.

붙임 ;

1. 땀부기의 마약류 등 프로포폴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교육일지(극복수기 ,반성문)
2.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 1 부
3.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등록증 사본 1부
4. 수강신청서 1부
5. 검사님께 드리는 땀부기의 반성문

2012. 8. 13

탄원인 : 전경수 , 노철환

제 28일차 (2012. 8. 12 일)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받아야 한다... 전부 다 말할 것이다...”

내일 오전 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난 해서는 안될 마약투약과 행동으로 큰 죄를 짓게 되었다. 지금 내 마음과 심정은 어떻게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무섭고 불안하니 심장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선을 베 풀고 살아도 모자를 이 인생을 어찌하여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그건 중독이다...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것은 심한 정신병적 범죄다.

오늘 한번더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 처음 프로포폴을 알게된 그때...만해도 난 몸속의 나쁜약물이라곤 전혀 생각 못했던 바보...였다.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매일 생각만 했던 바보...였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바라고했다. 실천에 옮겨야만 했던 나는...오늘날까지 바보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것이다... 달라져야만 한다. 나는 소중하다...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매일매일 생각하고...소중하게 나를 아낄것이다. 가평중앙교육원의 재활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가평중앙교육원 입교 후 지금까지 약이 밀려오지 않고있다. "기적이다." 이젠 정말 하얀 까운을 입은 의사들을 쳐다보기도 싫다.

제 29일차 (2012. 8. 13 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간다. 과연 내가 다시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허겁지겁 식사까지... 오전 10:00 까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어젯밤 잠을 청하려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잠도 오지않고,아침이 많이 두려웠다. 하지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와 나는 무사히 잠에서 깨어 아침맞이할 틈도 없이 서울로 올라가 한국마약범죄학회 고문 엄변호사님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 하였다.

나는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검찰청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 검사실로 들어가려다... 뒤돌아 기러기의 얼굴을 바라보니 초조하고 불안한 몸짓과 눈물로 찬 눈빛으로 내게 잘 다녀오라고 손짓을 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엄호성 한국마약범죄학회 자원봉사 무료 고문변호사님께서는 나와 함께 마약수사 검사실로 함께 입장하여 검사님께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강남경찰서에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고 있을때 우리아버지와 너무도 같은 모습이어서 난 너무도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내 죄로 인해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 마저도 두손을 모으고 죄를 지은 것처럼...ㅠㅠ 나로인해 그에대한 보상은 나는 정말 이대로 쭈~~욱 단약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무도 친절하신 검사님과 수사관님 덕분에 ...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와 다시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제 30일차 (2012. 8. 14 화)

7시면 아침기상을 해야하는데 어제 많은 긴장을 해서인지 오늘은 조금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뜬 오늘이 너무도 감사하다... 어제 기러기의 말처럼...가평중앙교육원에 돌아오지 못할까봐 많은 걱정이 앞섰었다. 눈을 떠보니 가평중앙교육원 황토수면공동체험실...오곳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다려주신 마약류등 중독성물질 음용으로 인해 나빠진 몸을 회복하는데 효험이 있는 오가피 등 혼합한 식용식물 차)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일찍부터 일어나셨는데도 늦잠자는 우리를 깨우지 않으시고... 마약범죄학 박물관에 진열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셨다. 기러기와 나는 오늘도 함께 할수있어 기뻐하며 아침공기를 맡아가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일을 도우기 시작하였다.

나는 가평중앙교육원 입교 당시 전혀 몸을 가눌수가 없어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했다. 어지럼증 빈혈로 인해 가평중앙 교육원의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한참을 서있어야만 하던 내가 어찌나 한심하고...입교를 허락해주신 전경수 지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도 어찌나 죄송했던지... 하지만 벌써 20일이 훌쩍 넘어 30일차 극복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나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프로포폴 투약을 못하면 불안함과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사라지고...가평중앙교육원의 이곳저곳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있다.

물론 나의 육체가 변화되어 이곳 가평중앙교육원 역시 변화시킬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아침이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의 내부를 말끔히 쓸고 닦고 마무리를 짓고...박물관으로 향해 밤 11시 48분까지 일을 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마약범죄학박물관(마약류, 도박, 게임, 알코올, 성중독 예방 홍보 전시실)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하셨다. 그말씀을 전해 들을때 기러기와 나는 가슴이 쩍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박물관에 정성을 다하자며 결심하여서인지... 자정이 되어가는 시간에도 우린 깜짝놀라며...

만약 집에서 생활을 했더라면 단약을 하려해도 매일같이 마음만 먹고 실패하며,강남일대의 병원들을 여기저기 헤메고 다녔을텐데 지금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는 프로포폴이란 전혀 떠오르지도 밀려오는 생각이 나질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난 너무도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것 같음에... 구속영장 적부 실질심사 때 석방시켜주신 판사님의 뜻을 헛되지 않게 난 매일매일 마약투약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는데

이젠 지난날의 후회와 반성...미안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된다.

이처럼 나의 변화에 오늘도 맹송맹송 잠안와가 아닌 완전 취침을 만끽할것 같은 예감에... 황토수면공동체험관의 내 침상이 너무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다... 이

젠 정말 가평중앙교육원이 내집처럼 느껴진다. 오늘 하루도 단약을 성공하여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길... 하루를 마친다.

제 31일차 (2012. 8. 15 수)

천연지하 암반수 한컵으로 (프로포폴성분, 몸에 벤 노폐물제거 알카리 음용 체험학습)아침을 시작하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거러기와 나는 마약범죄학박물관로 향하여 전시할 모든 자료들을 교수님이 하시는 조수자격으로 이곳저곳에 진열하고, 붙이고, 망치질도 해보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다.

며칠동안의 고된 노동이 마무리를 하고 나서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우리들은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오랜만에 청평역 근처에 있는 병천순대국밥집을 찾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거러기와 나에게 많은 수고를 했다고 저녁식사를 사주시고 우리들은 가평중앙교육원에 돌아왔다.

저녁시간이 되서야 오랜만에 잠깐의 쉬는시간이 돌아왔다.우리들은 어련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너무들 고생하였다는 말과 더불어 흠이면 흠으로 쓰이고, 돌이면 돌대로 쓰이고, 바위면 바위대로 쓰인다며 모두다 귀중한 사람들이고 인재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받아적게 되었다.

변화는 진실과 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중독증 극복을 위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태양이 작렬하는 끝없는 사막가운데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보리는 한바가지 물을 붓는것과 같다.

프로포폴 투약할 당시에만해도 난 이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될 인간이란 생각에 자살까지도 몇차례 시도해보았었지만... 이젠 생활이 변화되고, 육체로 회복되고 정신 역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오늘날...교수님의 말씀처럼 나 역시도 귀한존재라는 말씀에 너무도 감사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마약류등 프로포폴 중독성물질 음용으로 인해 나빠진 몸을 회복하는데 효험이 있는 솔잎차를 끓여주셨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지않고 단편소설이 아닌 나의적성에 맞는 생활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버리것이 없으시듯...내인생도 1분1초가 아깝지 않을만큼 내가 하고싶은 일이 정당하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한 정신력으로 몰입할 것이다.

형벌과 법령으로 사람을 다스릴수 있으나 양심은 다스릴수 없다고 한다. 난 단약을 목표로 가평중앙교육원에 무사히 입교하게 된것에 너무도 감사한다. 이제 내가 해야 할일은 양심적으로 지독했던 프로포폴을 끊고 단약을위한 나로보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고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한다. 물론 혼란스러울때가 많을 것이고,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때도 있을것이고,때로는 성난 파도를 만나는듯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할때도 있을 것이다.

어느 마약류나 프로포폴 중독 역시 단약을 하기란 솔직히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의 의지대로 안되는 것이 중독이다. 양심적 교정에도 꼭 승리할 좋은 예감이 든다. 그러므로 마약중독증 극복으로, 단약에 승리하고 나면,이세상을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바른길로 나아갈 것이다.

제 32일차 (2012. 8. 16 목)

입교 후 32일만에 “나의 수면 상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틀동안의 많은 양의 비가 가평중앙교육원의 외부와 나무, 돌...항아리까지도 쌓였던 먼지들을 모두 씻겨주어 온통 깨끗해진 세상처럼...아침 또한 내마음마저도 깨끗해진 기분으로 아주 상쾌하다. 지난날 영장실질검사때 나의 큰죄에도 불구하고 고마우신 판사님께서 석방시켜주셔서 가평중앙교육원의 입교의 기회를 주신것에 가장큰 감사함을 느낀다. '투사' 정신으로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하지 말아야될 행동을 멈추게 하듯이 난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가 놀랍다.취침에 들어 갈때면 눕자마자 잠이들고 아침시간이 되기 전까진 전혀 깨어나지 않는 나의 수면상태...정말 최고이다. 사실 사회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든 쉽게 잠이 들긴 불가능했던 나인데... 나에겐 굉장한 도움을 주는것 같다.



(죽음의 백색가루 필로폰 “딱 한번도 안된다”)

"하얀악마"라는 죽음의 백색가루 필로폰 “딱 한번도 안된다” 시청각 교육을 받았다. 영란이의 생활 또한 나와 별 다를것 없이... 마약으로 육체, 정신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프로포폴의 뒹에 걸리면 못빠져나오듯...나역시도 영란이 처럼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못할 시에는 안절부절 못하던 불안함에 몹시 두려워했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듯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의 소망...단약으로 마음을 돌려 지금보다더 많은 변화로 나를 완성시킬 것이다. 나는 확실하게 단약에 성공한다. 그것이 가평중앙교육원 교육목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 하는 것이다.병원따윈...나에게 악마의 소굴이다. 악마이다. 하얀백색 우유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너희들이나 투약해라... “프로포폴 오·남용 등 마약은 인류의 공적”

제 33일차 (2012. 8. 17 금)

“필로폰에 중독된 빠꾸기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약에 성공해야 될텐데...”

오전 일찍부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서울로 외출을 하셔서 필로폰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친구와 노철한 교수님과 함께 가평중앙교육원에 귀교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노교수님은 여전히 빈손이 아닌 스테이크와 돈까스로 우리의 점심을 챙겨 주셨고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너무도 맛있고 따뜻한 노교수님의 마음에 또 한번 감동을 받았다.

마약중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더 따뜻한 손길로 배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이 부끄럽지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낀다. 프로포폴중독으로 자살에 이르려 할때에는 "난 이제 혼자구나"하는 생각들이 매일같이 내 마음과 머릿속을 고통으로 외롭게 나를 괴롭혔었지만...현재의 생활들은 너무도 행복한 감사함이다.

프로포폴중독증으로 가평중앙교육원을 방문한 빠꾸기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에... 이해와 많은 배려를 해주고 싶어진다.해가 지기전 가평중앙교육원을 방문한 빠꾸기가 서울로 돌아가려한다. 난 왜이리 불안한지...그 친구를 보내고 싶지 않아진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단약을 목표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한지...아쉬운 마음을 넘어서서 보내지 않고 붙잡고 싶어진다.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다. 빠꾸기는 나처럼 정말...단약을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나는 보아서이다. 필로폰 중독자들은 대부분 친구가 없다. 중독이 되면서 평범하지 못한 생활들로 누구로부터 소외당할까봐 쉽게 사람들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진다.

난아직 검찰조사와 재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꾸기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단약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다. 기러기는 우리와 다르게 마약중독자가 아닌데도...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이 많은 회복이 되었고 프로포폴 투약하고 싶은 생각 또한 기적처럼 떠오르지 않으므로... 그 친구와의 가평중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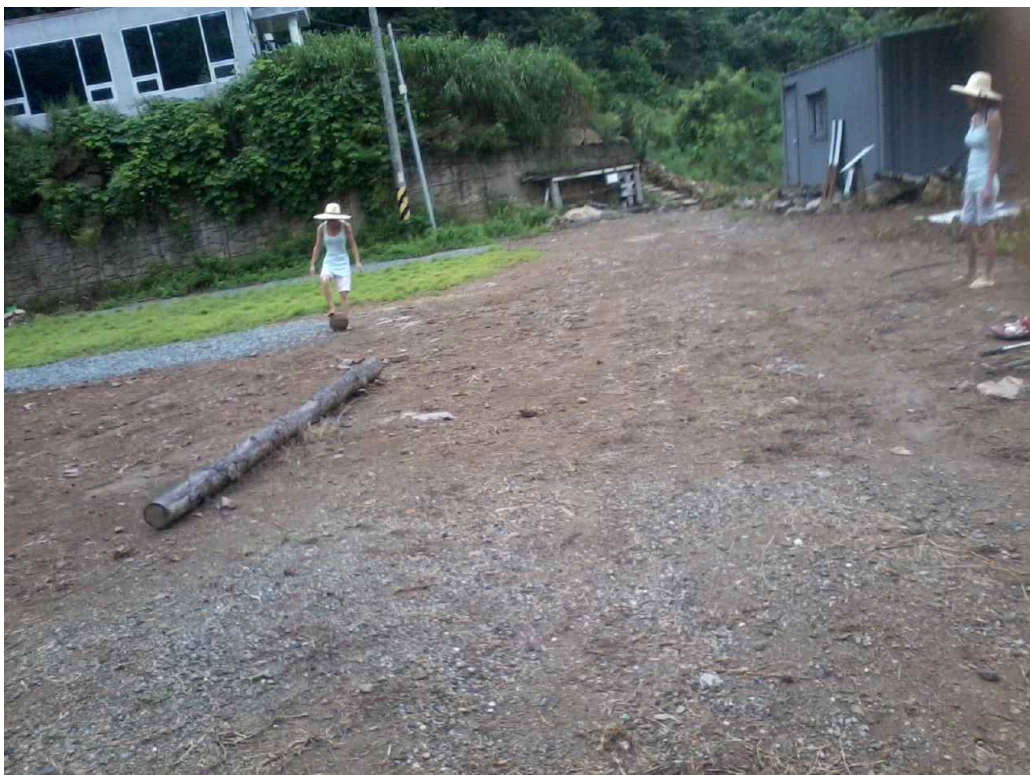
원의 생활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다.

매일매일 밀려오는 필로폰 중독증 생각 때문에 빼꾸기가 그랬듯...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프로포폴을 하고 싶은 생각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가평중앙교육원 선행(善行)교육 교재 가문①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 가문② 나의 삶, 나의 어머니 가문③ 나의 프로포폴 중독 극복수기를 읽어보고 중독 원인 규명 등 제1단계 교육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제2단계 중독증 제거와 더불어 인간바이러스 척결 역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해야 할 마지막관문이다.

제 34일차 (2012. 8. 18 토)

“빼꾸기를 만나고... 그리고 축구도”

아침에 잠에서 깨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와 나(뜸부기)는 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잔디밭으로 나가 외통나무를 건너고, 아주 안정된 자세로 축구를 하였다. 비를 맞으며 축구를 하니 마치 축구선수가 된 우리는 헛발로 공을 차는 사람은 푸샵 5회의 벌칙을 받기로 하였고... 나는 공이 날라오는 것에 집중을 하여 공을 받아 찼다.연못의 외통나무까지 건너고 아침체조를 마무리 하였다.



(빼꾸기, 기러기 중독증 제거을 위한 외나무 타기와 더불어 축구차기)

하루하루 변화되는 나의 육체와 정신이 매우 만족스러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되는 표정을 기러기가 볼때면 "왜 자꾸 웃어"하고 나를 놀려댄다. ㅋㅋㅋ 며칠동안의 많은 양의 비로인해 고추밭의 고추들이 모두 기울어져(기울어진 고추들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지...)우리는 읊을 모아 반듯하게 세워주었고, 다 자란 고추는 떼어주기까지 하였다. 뿌리까지 보이며 기울어진 고추는 만약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더라면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영혼마저 잃어버리려 했던 나처럼 아마 식물의 역할을 감담치 못했을 것이다.

내손으로 내가 직접 고추를 살려주자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교육원 내부로 들어가는 길에 뒤를 돌아 고추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바라보니...고추들은 빗방울이 송송 몇혀 아주 싱싱하게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듯 웃어 주었다.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의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나로부터의 정신혁명... 단약에 성공하면 나를 신고했던 신고자, 나를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경찰분들, 구속영장실질심사때 석방시켜주신 판사님, 단약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도해주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기러기, 필로폰에 중독되어 오늘 새로 입교한 빼꾸기...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진심으로 기뻐하실 기대감에 더 강한 의지가 생겨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전화벨소리가 "따르릉, 따르릉"울린다. 기러기와 나는 "씻'하는 동시에 들려오는 교수님의 밝은 목소리...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빼꾸기였다.기러기와 나는 기쁜마음으로 청평역으로 빼꾸기를 마중나갔고...그런데 많이 쏟아져내리는 비때문에 혹시라도 빼꾸기가 비를 맞을까...주행의 속도는 가평에서의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

빼꾸기는 우리의 차를 한번에 알아보고 비가오는 와중에도 빠른걸음으로 걸어 와드디어 차를 탔다. 우리는 너무 반가워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며..."완전 기다렸어...혹시 안올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구." "정말요" 저는 어제 아빠, 엄마한테 언니들 이야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야기...횡설수설~웃으면서 얼마나 떠들었다구요." 빼꾸기는 정말 단약의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었다.



가평중앙교육원 연못은 나를 동심으로... 뻘꾸기, 땀부기, 기러기와 함께

나도 부끄럽게 프로포폴 중독자의 입장이지만, 필로폰을 끊으려는 목표로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해준 예쁜 뻘꾸기가 어찌나 대견스럽던지...너무도 감사했다.가평중앙교육원 내부, 외부는 "땀북땀북 땀북새 논에서 울고~" 교가가 울려 퍼지고...나에게 들려오는 우리 가평중앙교육원 교가는 여전히 슬프게 들려온다. 기러기한테 물었다. "교가가 슬프게 들려" "아니." 하고 대답했다."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조사와 법원 재판이 아직 남아서인지 나의 마음은 아직 슬퍼 오는것 같다. 내 지난날의 저지른죄와 프로포폴 투약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숨이 절로 나오고... 불안한 심정또한 여전하다. 지금시간 토요일 오후 6시 28분...난 오늘 프로포폴 투약 생각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병원문이 닫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 주사맞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건 기적 같은 일이다.정말 놀라운 현상이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정신과 육체가 회복될수 있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중독증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뜨면 밀린빨래와 날씨, 고추밭의 고추, 상추밭의 상추, 아침식사는 무엇으로 준비를 할까... 오늘도 외통나무를 안정된 자세로 건널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현재 내게 필요없는 잡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프로포폴 중독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 이기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뻘꾸기와 나는 단약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필로폰에 중독된 뻘꾸기와 함께 단약을 목표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멍송멍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 인간바이러스...확실하게 척결할 것이다. 멸공! 삼척!

“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멀하고 문득문득 생각나, 멍송멍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를 척결하는 구호를 외쳤다.

제 35일차 (2012. 8. 19 일)

입교후 35일만에 들리지 않았던 한쪽 귀가 약간 들린다
“필로폰에 중독된 빠꾸기도... 잔디밭에서 풀을 뽑다”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의 닉네임 "뜸부기"하시며 깨우시는 것이다. 비몽사몽..."네."그런데 함께 잠자던 빠꾸기가 보이지 않았는데 "빠꾸기가 잔디밭에 풀을 뽑고 있었다." 어제 필로폰 중독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 '빠꾸기'이다. 빠꾸기는 필로폰중독증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필로폰에 중독된 빠꾸기도 나처럼 잔디밭에 풀을 뽑다...)

어제밤 취침에 들기전에도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해 한참을 뒤척거리더니... 잠을 못이뤄 아침일찍부터 잔디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던 것이었다. 예전의 나를 보는듯해 어찌나 가엽고 안쓰럽던지... 정신과 육체적으로 나는 많은 회복으로 빠꾸기가 잠을 못 청할때에도 한번도 깨지 않았다. 나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빠꾸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나처럼 가평중앙교육원의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금씩 적응해가면 빠꾸기 역시 많은 화복으로...잠을 자고 일어나면 기지개를 쭉~펴고 "잘 잤다."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는 빠꾸기를 도우려 함께 잔디밭의 풀을 뽑았고 아침식사를 마친후 육체에 피로를 느끼면 빠꾸기가 어제보다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땀부기인 나를 비롯하여 기러기 빠꾸기와 합동으로 또 잡초를 뽑았다.머리에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고...기러기와 빠꾸기, 땀부기 우리는 풀향기를 잔뜩 맡으며 개운한 하루를 보냈다.

며칠동안 비가 계속 내려 날씨가 불순해서인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쳐 오른쪽 귀 고막 달팽이관이 파열돼 들리지 않았는데 반대편 귀를 손으로 막아보니 약간씩 들리는듯 했다.

우리는 청평에 있는 사우나에서 가평중앙교육원의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부인 목욕요법교육을 통해 내몸에 쌓여있던 필로폰, 프로포폴 물질과 노폐물을 빼내고 피로를 풀었다.

필로폰 중독에 빠진 빠꾸기와 나...인터넷게임 중독 기러기...우리들 때문에 여러모로 수고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시며, 챙겨주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오늘따라ㅠㅠ더...가슴이 찡~해온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한다.절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된다.

어제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약속한다.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나로부터의 변화를 약속한다. 가난했던 내 자신을 이제 부자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영혼을 사로잡는 프로포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다 헛수고다. 나는 기필코 맹송맹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 인간바이러스를 척결하고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해야한다.

제 36일차 (2012. 8. 20 월)

“빠꾸기의 수면상태가 어찌나 반갑던지...”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보니, 빠꾸기는 아침일찍 일어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교육원 내부를 쓸고 닦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빠꾸기의 수면상태 점검을 한 결과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번도 깨지않고 숙면을 취했다는 소감을 듣고 아침식사시간에 우리들은(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기러기,나(뜸부기) 박수를 쳐주었다.

빠꾸기의 수면상태가 어찌나 반갑던지...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잘 해주어 마치 내 일처럼 너무도 고맙다. 지난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비가 내린다. 며칠전 널어두었던 빨래도 마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꾸기와 나는 육체의 회복을 위해 손빨래로 미웠던 빨래들을 하면서 흐르는 땀방울을 무척 반가워하며 필로폰, 프로포폴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기분에 오늘 하루도 개운한 건강을 맞이한다.

어제의 나의 수면상태도 다른날과 다름없이 아주 안정된 수면을 취했고... 빠꾸기는 내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으로 잠을 청했던 지라 혹시라도 잠을 자지못할까 걱정해..."뜸부기 언니는 밤에 잠자기가 힘들겠어요."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 난 이제 병원에서 돈 안들이고 공짜로 잘잘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다구."라는 말을 건네고... 다시 한번 나의 정신과 육체의 변화에 놀라울 따름이다.

난 이곳 가평중앙교육원 교육생들중 가장 큰 맏언니다. 나이도 가장 많고, 가장 일찍 입교하였기에 부끄럽지만 선배이기도 하다. 세상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점으로 힘들어지면 내가 처한 상황이 누구보다 가장 힘들다고 받아들이게 되는것 같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어제는 빠꾸기의 눈물을 보았고, 오늘은 기러기의 눈물을 보았다.

난 가장 큰언니이고, 가장먼저 입교한 교육생중 선배이기도 한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한마디라도 해주어 도움을 주고 싶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이기에... 경험했던 이야기 외에는 어떤말도 제대로 건내주지 못하는 내 지난날들의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진다.그러므로 고단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지라도 난 가장 반듯하고 모범적인 선배, 언니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요 며칠 조금은 노력해 보았다.그러면서 난 두가지를 배운다. 신입생 뼈꾸기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나 또한 복습을 하게 되고... 언니와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모습이 원래의 내 모습처럼 변화될수 있을것 같아...난 오히려 내 처지에 감사하게 되었다.

지독한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하다 쓰러졌는데... 어느 주민의 신고자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간 구속되어 있다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하게 된 것이다. 그 신고자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은인이다.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가장 감사한 분이시다. 감사한 신고자가 없었더라면 난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 검거되기 얼마전,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길...거의 20~30분 되는 거리를 2시간에 걸쳐 집에 도착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빈혈로 인해 앞이 노랗고 깜깜해지더니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쓰러졌던 경험이 있다.경찰에 검거되기 얼마전 역시...

운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앞이 노랗게 보이더니, 깜깜해지려는 것이다. 난 어린시절 심한 빈혈을 경험해 보았기에... 운전은 불가능했다. 갓길에 비상감박이를 켜고 차를 세우고 한참을 눈감고 누워있다 조금 괜찮아졌을 생각에 또 다시 주행을 하다, 멈추고, 또 주행을 하다 멈추고 그렇게 2시간에 걸쳐 20~30분 거리를 2시간 넘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내게 있어 너무도 감사하신 신고자분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 신고자분은 내가 차안에서 주사기를 손에 쥐고 혼미한 상태에 쓰러져 있었을때 내가 죽은줄 알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놀라게 해드린 점...너무 죄송스럽다.

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부터 미안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다. 어제 인터넷 예배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중 하나는 인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순수하고 착한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며, 이용하지도 말아야 한다.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되는데...

가평중앙교육원의 생활이 한달이 넘어간다.이젠 육체와 정신이 많은 회복이 되어가서 인지, 한사람 한사람을 떠올리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남의 것도 내것처럼...남의 상처도 내 상처처럼 받아들이고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상처받고 있다고 하는...나의 짧은 생각은 이젠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약의 목표로 신뢰와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를 가질것이다.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 아닌 +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의 길로만 걸어가고 싶다.

제 37일차 (2012. 8. 21 화)

“강으로 고기잡으로 가다... 향어를 잡다”

매일매일 값비싼 수면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나는 역시 하루의 출발 또한 가벼워진다. 눈을뜨고...아직 그치지 않은 작은 빗방울을 맞으며 우리들은 밖으로 나아가 빗물이 잘 흐를수 있도록 삽으로 흙과 풀, 돌을 치우니...땀이 흘렀다.사회에서의 생활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만 흘렸던 나의 육체가 식은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몸에 쌓였던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과 노폐물이 육체의 운동으로 인해 빠져나감에 아주 개운한 기분이다.



(뜸부기, 빠꾸기 중독증 제거 정신교육 프로그램 “물고기 잡기”

아침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낚시도구들을 챙겨 계곡으로 향했다.우리가 찾은 청평, 가평 근처에 있는 몇군데의 계곡들은 물살이 너무 강해서 물고기 잡기에 시작도 못해보았지만 가평중앙교육원 동네에 자리잡고 있는 향어때들이 있는 양어장에서 낚시잡이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떡밥이 없는 관계로 낚시줄에 사료를 꽂아 낚시줄을 던져...기러기가 1등으로 2마리를 잡았고, 기러기는 정말 환한 미소로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기분최고라면서...가평중앙교육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 낚시에 취미를 가져보자며...내게 낚시를 해보라며 낚시대를 건네주었다.

나도 최고의 기분을 느껴보고싶어...낚시대에 사료를 꽂아 낚시줄을 던지는 순간 새끼 향어가 낚시줄에 바로 잡히는 것이었다. 너무 얼떨결에 향어를 잡아 무슨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기러기, 빼꾸기, 향어 집 주인 아저씨...모두들 기뻐하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았다.

우리들은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을 하여 새끼 두마리는 가평중앙교육원 연못에 살려 주었다. 연못에 풀들도 많고 고여있는 물이라 환경에 적응을 못할까봐 우리들은 (기러기, 빼꾸기, 나(뜸부기) 걱정이 먼저 앞섰고, 노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밭에 가서 파 3뿌리를 뽑아오라는 말씀에 빼꾸기가 파 3뿌리를 뽑아오면서 우리가평중앙교육원 연못으로 오늘 이사온 향어 두마리를 확인한 결과, 향어 두마리는 동시에 폴짝!!! 점프를 하며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연못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소중하다.나의 지난 과거... 내 자신 내 생명을 너무도 함부로 생각하며 지독하게도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해왔었지만 다른 생명도 소중하게 느끼는 내 정신적 변화였다.

제 38일차 (2012. 8. 22 수)

“프로포폴, 필로폰 중독에 나빠진 합병증 검진차... 서울에 있는
성북중앙병원으로 가다”

오전 10시...나 (뜸부기)와 빠꾸기는 프로포폴, 필로폰 중독증으로 인해 나빠진 합병증 유무 확인차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성북중앙병원을 찾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우리 (나 뜸부기,빠꾸기)는 김광천원장님을 찾아뵙고, 합병증에 의한 불편한 부위를 말씀드리고 후 종합검진을 받고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하였다. 이 곳 가평중앙교육원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망가진 육체,정신을 회복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합병증 치료까지... 정말 이 감사함을...이루어 말할수가 없다.

콘테이너 박스 열쇠의 분실... 몇일동안 여러번의 시도끝에 드디어 오늘에서야 열쇠발견... 우리들, 기러기,빠꾸기,나(뜸부기) 장관으로 깔려진 바닥을 쓸고 닦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인생이 담겨진 책들을 담고 나르고 ... 오늘또한 쌓였던 필로폰, 프로포폴 등 중독성 물질과 노폐물들을 땀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던차, 외부인의 출입으로 마약범죄학 박물관 지붕밑에 있는 말벌들이... 가평중앙교육원 공군



말벌들이 지은 집... 가평중앙교육 공군기지

예민해진 탓에 벌집 밑을 지나가던 나의 귀,머리를 세방이나 쏘는 바람에 나는 비명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붓기와 통증은 가라앉을 기세가 보이지않았다. 지독한 프로포폴투약으로 인해 잃어버린 내 소중한 지난시절과, 망가진 내 정신과 육체를 생각한다면 ... 그까짓, 벌에 쏘이는것쯤이야...하며... 놀라고, 아픈 고통은 견뎌내야만 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정신 혁명이라고 볼수 있다. 사실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혈관에 주사바늘을 찌르는 순간 간호사의 말은 "따끔합니다." 하였지만...나는 따끔한게 아닌 소름이 돋으며 뼈까지 아파왔다. 피를 뽑고 검사실을 나와 생각해보니,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이 병원,저 병원을 다니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주사기를 혈관에 찌르고 , 또 찌르고 하였었지만 주사기에 찌르는 고통은 한번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프로포폴 투약에만 집착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같은 것이 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겨 치료하는 목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것인데 그 주사바늘이 소름까지 돋으며 뼈까지 아파오다니... 찌릿찌릿... 기가 막힌 노릇이다. 뼈가 아픈 것은 병원 의사들이 프로포폴 주사기를 너무 많이 찌렀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투자라면 어떤 고통도 참아야만하고...나를 죽이는 고통이라면 멈춰야 했었는데... 난 살인자처럼 나를 죽이려했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나의 목적은 단약으로 인한 나의 정신혁명을 완수시키는것이기에 지독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내가 나를 살인하지만 앓는다면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것을... 오늘 내가 말벌에게 공격받은것은 낯선 사람이 (손님) 나타났기 때문에 벌들이 낯선 손님을 공격하다 실수로 나까지 폭격당한 것으로 생각되니... 극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극복해야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내가 벌들에게 물린 상처난 곳을 짚어보시며 참을 수 있는 인내심....그것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있는 강인한 정신력이라고 하셨다.



(가평중앙교육원 공군기지에서 출동한 땀부기 머리에 세 방 쏜... 벌)

제 39일차 (2012. 8. 22 목)

입교 후 39일만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다

“프로포폴 중독으로 나빠진 간 등 육체적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돌미나리 등 자연산 식용식물 시음 프로그램...”

사람 몸의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체온 조절을 하거나 혈액의 성분이 되어 효소나 영양소를 몸 이곳저곳으로 운반하는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가평중앙교육원 산 중턱에 있는 지하 천연암반 알칼리수 한컵을 꼭~들이키고, 하루에 1.2L는 꼭 섭취한다.

마찬가지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기러기, 빠꾸기, 나는(뜸부기)는 신체의 리듬을 찾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둘러서서 수면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고 ...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우리들에게 받을 씻겨주심으로 혈액순환을 통해 건강의 근원을 되찾는다. “혈관을 통해 혈액이 잘돌아야 중독“증”을 극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맹송맹송 잠못자던 불면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도때도 없이 밀려오던 '문득문득 생각나'는 프로포폴을 잊혀져 가는 중이다. 장마철이 끝나고 잔디의 풀들을 뽑는데 마치 가을이 왔다는듯 선선히 불어주는 바람이 내뺨을 스치는게 지난 무더위를 날려보내 주었다.

다음주 부터는 가평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중...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나빠진 간 등 육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연산 식용식물 시음 체험학습을 한다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돌미나리"...해독작용, 간장질환, 변비, 혈압, 뇌졸중 예방

"구기차"...눈을 밝게, 동맥경화 방지

"산마뽀리"...보신제, 피로회복

"취즙"...혈액순환, 피로회복

"하수오"...머리검게, 탈모방지

"양파"...불면증해소

"뽕잎"...당뇨, 폐질환

"솔잎"...빈혈, 머리맑게

"인진쑈"...간기능회복

“편백나뭇잎”, “측백나뭇잎” 향암예방 등 독소, 노폐물제거에 효험이 있는 자연산 식용식물들이 가평중앙교육원에 흐드러지게 있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한다. 뜨거운 여름도 만끽하고 시원하게 내려주던 장마비... 그리고 이젠 단풍잎이 물들어 수줍게 웃어주는 듯 나뭇잎까지 보게 되는 가을이...다가온다. 단약을 하고 난 나는,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가평중앙교육원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프로포폴에 찌든 나의 육체와 정신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

제 40일차 (2012. 8. 24 금)

“아침청소를 통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7개월간 끊어진 뼈꾸기 생리가 다시...”

어제밤 취침시간...가장먼저 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가장 늦게 잠에서 깨어 아침 준비운동.. 베드민턴도 못치고 기상을 하였다. 우리 "가평중앙교육원"은 기상시간과 더불어 교육원 외부,내부의 청소를 시작한다. 아침 청소를 통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이루기 위해...

황토수면공동체험관 2실에 있는 가마솥 불을 피워 돼지기름 덩어리로 닦아 내고 황토 흙으로 둘러쌓여 있는 바닥에 물을 뿌려 시멘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되도록 전교수교수님, 기러기, 뼈꾸기 나(뜸부기)는 줄을 맞추어 한줄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뒤를 쫓아 밟아 나갔다. 우리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루를 시작한다.

오후 4시경...우리들, 기러기 뼈꾸기, 나(뜸부기)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서울시 중구 중립동에 있는 알콜 단중독 센터..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영명 축일 및 출판기념 축하 행사에 초대받아 떠났다.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프로그램과 "해가 붉은 얼굴로 인사하네" 의 출판기념 박사학위 취득 기념 미사에 참석하였다..

허근 (바르톨로메오)신부님은 지난시절 소주 9병,맥주 24병을 한자리에서 마실정

도의 알코올 중독에 이르렀었던 분이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증에서 벗어나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콜라로 잔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새 삶을 살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정신과 육체가 회복되는 가능성에 더 깊은 희망을 느낀다.

나 역시도 발전해 가는 나의 정신혁명에 기뻐 이루어 말할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필로폰에 중독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빠꾸기 역시도 더 빠른 회복에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한다.

가평교육원에 입교 하기전...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마냥 슬펐던 나는...심한 우울증과 현실을 부정하고 몇번의 자살시도까지 해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물,햇빛,조화로운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젠 더이상 나에게 이 귀중한 순간,시간들은 마귀의 약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어 위태로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나를 "사랑해" 할 것이다.

나로 인해 마약류 프로포폴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교훈이 되어 중독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평중앙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생명을 지킬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탄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오늘 아침 나는 여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한후 7일만에 빠꾸기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큰소리로 외쳤다... 교수님... 저 생리가 나왔어요... 연거푸 3번이나 말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하셨다.

다름아닌 빠꾸기가 필로폰에 중독된 후 7개월째 월경이 끊어져 여자로서 중요성을 잃고 고민 했고, 결혼까지 하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하면 살았었다는데... 기적이 아닐수 없다. 필로폰에 중독된 후유증 때문에 그렇게 아프던 두통도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강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돌아온 후 두통도 살아 졌다고 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빠꾸기를 친딸 못지 않게 극진히 칭찬해주셨다. 빠꾸기의 망가진 육체와 정신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보기도문 회복이라고 하셨다...

제 41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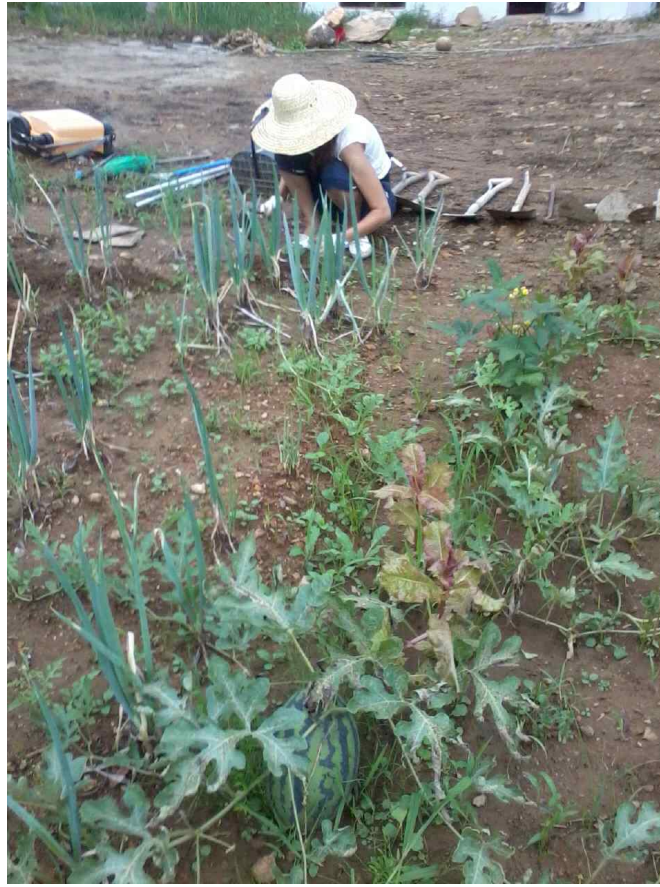
“간기능 회복을... 나는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병원 의사들에 의해 프로포폴을 너무 과하게 투약한 중증환자다...”

나는 거의 매일을 늦잠을 잔다. 오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 죄송합니다. 오늘도 늦잠을 잤습니다. "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6억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니 어찌 간이 정상일수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 간이 많이 피로하여 회복되는 시간은 아직 더 걸릴것이다 " 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시 자상하시고 따뜻한 말씀으로 나를 안심시켜주셨다.

그렇다. 나는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금액으로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살인하고 있었다. 지난날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한시간에 한번씩 잠에서 깨어 병원문 여는 시간만 기다려가며 시계바늘만 쳐다보고 피곤한 건 전혀 느끼지도 못한채 어리석게도 프로포폴 투약에만 의지하여 잠을 청했었지만 이제는 프로포폴 투약 생각은 사라지고 아주 양호한 지금... 나의 수면상태에 매우 만족스럽다.

사실 하루의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많은 피로를 느끼고 피로도 빨리 몰려온다. 오늘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솔잎을 따다 차로 끓여 따뜻하게 마셨다. 솔잎의 효능은 머리를 맑게하고, 콜레스테롤 제거, 고혈압, 빈혈에 효능을 지니고 있어 프로포폴 등 마약의 중독에 이른 중독자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었다. 지독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한 빈혈로 나는 매일 어지럼증에 고통받은적이 있었다. 이젠 아니다.

가평중앙교육원의 모든 자연산 식용식물들이 나의 몸과 정신에 박힌 프로포폴 물질, 노폐물 제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허약한 체질에 영양이 되어준다. 매일 같이 변을 볼때면 설사로 고통받았던 것 또한, 이제는 사라지고 건강한 위.장을 회복켰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맹송맹송 잠 못자던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너무도 감사함을 느껴... 이 감사함을 전하기위해 오늘도 가평중앙교육원의 교육원 내부,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정성을 다한다. 밭에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부르셔서 나가보았더니, 상추밭과 파밭사이에 손바닥보다 더 큰 수박이 널려 있었다. 신기해서 손으로 톡톡 쳐보는 순간 호박잎 사이에 수박 한통이 또 발견되었다. 도심 속 서울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수박잎까지 확인하게 되다니...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은 정말 최고의 조화로운 자연환경이다.



(뜸부기가 가꾼 수박...)

잡초를 다 뽑고 .. 저녁시간이 다가오자 식탁위에 올릴 고추가 모자라 아주 자연스럽게 고추를 따, 식용식물 공동체험 시음학습관으로 가져와 식탁위에 올리는 나의 모습에 사실 깜짝 놀랐다. 잠자리도 내 침대처럼 아주 포근하고... 가평중앙교육원의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일상생활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정말 이대로의 육체와 정신이라면 더이상 바랄것도 없다. 정상인의 인간으로 성장되어가는 나의 변화된 모습에 오늘은 눈물이 난다. 이 모든 나의 변화에는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기러기, 뽕꾸기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최순애 작사... '오빠생각' 동요에 나오는 " 뽕꾸기" 가 바로 나 자신이다. 전경수,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쓰신 '뜸부기 살리기' 글을 읽어 보았다. 뽕꾸기가 논에서 놀다가 예쁜얼굴을 관리하기위해 농부(병원 의사)가 쳐 놓은 농약에 의해 내가 논두렁에 쓰러진 사건이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 이곳 가평중앙교육원 ' 에서 빠르게 회복할수 있었다.

다름아닌, 내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맞고 피 묻은 주사기를 손에 쥐고 7월초 여름 ... 의식을 잃고 쓰러진데 대해 내 자아와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제 42일차 (2012.8.26 일)

“나의 인간 바이러스... 적적요요, 부대반응, 36개 원칙을 적용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어제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는 카탈라제, 디페놀 옥시디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 성분이 있는 황토수면 공동체험관에 ' 맹송맹송 잠안와(수면장애), 문득문득 생각나(의존증), 인간바이러스(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 마약투약관련자) ', 척결과 ...금전거래등 강의들 들었다.

40일이 넘은 나의 가평중앙교육원 생활은 이제 완전히 적응된 듯하다. 황토수면 공동체험관에서의 수면상태 또한, 해가 떠있는 아침시간 외에는 아무런 수면장애가 나타나지도 않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악몽(꿈의 환각)도 꾸지 않는다. 문득문득 생각나던 프로포폴 투약 생각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주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끔 시간을 볼때면 ... 꼭 병원문이 닫는 시간에 시계를 보게된다. 아주 희한하게도... 그럴때면 ' 오늘도 100만원 벌었다 ' 나 너무 이쁘다.. 하고 나 스스로를 칭찬한다. 정말 지금 나의 정신과 육체를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프로포폴 따위가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냈다니... 너무도 나약했던 나였다. ㅠㅠ

이젠 변화되고 있다.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회복시키는 과정 중이다. 어떤 누군가의 인간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할 지라도... 난 강하게 뿌리칠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가장 자신이 있을때에 가장 당하기 쉽다고 한다...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늘 침착하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으로 나의 행동을 지각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맹송맹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은 ...내 스스로 척결했지만 인간바이러스들과, 인간바이러스와 알게되어 쏘아부은 금전 채권, 채무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간바이러스 리스트 (병원거래) 와 금전 부제상황까지 별도로 밝히게 된 것이다. 병원에 쏘아부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고스란히 가족들이 떠맡게 되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에 의해 또 혼란한 정신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환경적 요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지막으로 교육단계이다.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확실하게 완수할수 있도록 결의한다.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기억상실 또는 심신상실로 인해 당분간 변제능력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을수도 없고, 언젠가는 해결 해야될 문제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은 헛고생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나 로부터의 정신혁명... 인간바이러스 와 다름없는 병원에 가지 않기위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가르치신 "적적요요""부대반응"36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평중앙교육원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 ‘마약범죄학’을 배우다... "

제 43일차 (2012. 8. 27. 월)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입교 후, 오늘까지는 문득문득 생각나, 멍송멍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 척결을 위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기위해 "선노일체 정신"을 위한 노동학습과 더불어 중독의 원인 규명을 선행(善行)교육 교재 1권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 제2권 「나의 프로포폴 극복수기」, 제3권 「나의 삶 나의 어머니」를 읽었다. 이 책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삶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교재였다.



“아토피 피부 질환에 효험이 있는 천연황토연못에서 나의 주사자국을 지우고... 제3단계 교육 중독으로부터 자기방어 교재 마약범죄학 제1권(마약범죄론), 제2권(향정범죄론), 제3권(환각성물질 범죄론), 제4권(마약류투약범죄 정책론), 제5권(마약류투약범죄 교정론)을 배우다...”

마약류등 중독성 물질 투약으로 인해 나빠진 간 기능, 두통 등 합병증 회복을 위해 가평중앙교육원 천연지하 암반수에서 나오는 알카리수 시음, 멍송멍송 잠안와 뇌기능 회복, 불면증 효험 산림수목 에서 내뿜는 음이온 피톤치드등 보이지 않는 공기속의 비타민 섭취와 더불어... 병원에서 중독된 나의 정신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마약범죄학」을 배우는 단계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내가 매일 매일 수기를 작성하는 것은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상실한 기억력을 회복하는 문자교육이라고 하셨다. 마약범죄학은 중독으로부터 방어를 할수 있다. 가평중앙교육원 교재였다.

가평중앙교육원 연병장 (운동장) 중앙에 있는 아토피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는 천년 황토 연못에서 황토에 물을 섞어 병원에서 맞는 프로포폴 주사흔적을 조기에 제거할수 있었던 것은 재발방지 평생교육의 일부분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기초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나의 정신과 육체를 회복할수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가평중앙교육원 프로그램에 정규 교과목과 교육일과표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범죄학 교육을 받는다.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을 다른사람에게도 지도할수있는 마약범죄학,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등 교과목이었다.

나는 마약범죄학을 읽고 이해할수 있었는데... 기러기는 도통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며... 잠이 온다고 했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기러기와 프로포폴에 중독된 나와는 수준은 물론 과목 그 자체가 달라보였기 때문이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의사, 약사, 사무요원, 요리사, 학생, 교수도 없다. 너도 교수요, 나도 교수다. 모두다 의사, 약사, 경비원, 사무요원, 요리사, 학생이다. 치료가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단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보완해주어... 자아발견과 자기성찰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 가평중앙교육원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핸드폰, 사진기 등으로 시설내부를 촬영할수없다. 출입시 핸드폰, 라이터, 담배, 주류 반입을 절대 금지하게 되어있다.

가평중앙교육원이 지향하는 것은 마약류 등 중독성 물질 "중독증" 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교육적 이념과 목표를 두었다.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재범방지 평생 교육사가 되는 것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탄생시킨 " 마약범죄학" "마약류투약 범죄 대체의료 교정주의 교정이론"을 배워야한다.

가평중앙교육원의 교육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정신이 회복되어 이제 환자(프로포폴 중독자)가 아닌, 마약범죄학을 익히고 연구하는 학생이 되었다.

내가 프로포폴중독에서 벗어난 나는 가평중앙교육프로그램을 체험... 내가 단약에 성공한 사례에 의해 내가 아닌...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용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렵더라도 "마약범죄학" 총5권을 완독할 것이다.

제 44일차 (2012. 8. 28 화)

“뜸부기” 맹송맹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났던 프로포폴 중독을 극복하다”

오늘은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후 마약투약에 의해 나빠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교육일과표에 의해 정식으로 기상했다. (기러기의 알람시계에 의해 잠에서 깨어남) 입교후 지금이나 과거나 아침 점호시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인사 "잘 잤나..."우리는 "떨공"(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떨하는것) "삼척"(맹송맹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 인간 바이러스 척결)이라는 구호로 인사와 더불어 "편히 주무셨습니까."...로 하루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밤 '맹송맹송잠안와' 극복 수면상태 발표와 더불어 '문득문득 생각나' 정신건강 점검..."기러기, 빠꾸기, 뜸부기(나)모두 양호 ㅋㅋㅋ"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던 지독한 프로포폴 생각...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기 위해 맴돌았던 나 자신...ㅠ ㅠ 그 모든 추한모습은 2012. 8. 28 아침 남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에 날려버렸다. 지독한 프로포폴 투약 생각은 우리 가평중앙교육원 교가 "오빠생각"으로 바뀌어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이런걸 보고 '일체유심조'라 했나...(일체유심조: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 (슬프고 짜증나는 일도 생각을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비오는날 빗방울에 젖지 않는 연못이 핀 향기로운 연꽃... 나의 과거...이제 나도 연꽃처럼 다시 핀다.... 그것을 두고 중국 송나라 성리학의 창시자 무극옹 주돈이의 애련설이라 했나...

"마약 범죄학 제 2권(향정범죄론) 읽다."

마약범죄학 제 2권 제 1편 나오는 “송이”라는 소녀가 처음 필로폰 투약한 경험담을 읽어 보았다.

송이는 평소 병원에서 맞는 주사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갈 정도로 무서워했었는데... 그 주사를...그것도 히로뽕이 든 주사기를 혈관에 넣자마자 뽕간것,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오빠 인간 바이러스에게 유혹당하여 술이라고 표현하며 "한잔한잔"거리며 많은 은어로 마약 이야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순간... 송이의 머리는 폭발한 것처럼 아니 힘이 솟고, 머리털리 빠죽빠죽 솟아 오르는듯 눈이 다시 뜨였고, 보이는 모든 식물의 색깔농도는 깊어져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거울을 본 송이의 모습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몇달을 굶은 사람처럼 혀를 내밀어 보니 흰백태가 끼있었다. 눈은 검은자가 열려있었고 손은 지렁이가 꿈틀대는 것처럼 찌글찌글... 아저씨라고 부르던 인간바이러스에게는 오빠라고 존칭을 바꾸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주사 때문이었다.

송이에게 히로뽕을 투약시킨 인간바이러스는 송이에게 "좋은 사람 만날줄 알아라. 어떤사람은 히로뽕 주니까 절까지 하더라. 아무한테나 막 주는 그런 약 아니다."라고 하며 독극물이든 히로뽕주사기를 아주 귀한 만병통치약처럼 살도 빠지고 예뻐진다는 말로 송이를 히로뽕 중독에 빠트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처럼 중독자가 심각한 밀매자... 인간 바이러스 고리를 단절 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한게 내가 읽어본 소감이었다.

제 1장 제 1, 2 절...

(필로폰 범죄와 정신장애라는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범죄자들이 있다. 즉 마약류 투약을 하다 수용된 자를 교정하는데 즉, 지각장애, 실인증, 착각, 환각, 환청, 환시, 환미, 환후 도파민 등 용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외부사물이나 자극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마치 그 사물이나 자극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 아파트가 흔들린다."

뛰어내리고 싶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등 이러한 행동은 히로뽕 중독자들의 말이다. 소위 히로뽕이라는 물질은 독극물이었다. 히로뽕(매스암페타스)이라는 독극물을 비롯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중추신경계에 의하여 말초신경을 작용시킨다. 정말 무섭고 딱한번으로 인간을 파멸시킨 다는 것을 알았다.

“검진결과를 통보 받았다”

저번주 수요일 22일째 서울중암동 성북중앙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 한결과를 알아보기위해 ...2012.8.29 병원에서 김광천 원장님으로 부터 검진결과를 들었다. 자연치유에 의해 내가 지니고 있던 합병증은 물론 정신건강 상태 회복... 김광천 병원 원장님의 당부 담배흡연 절대금지

제45일차(2012. 8. 29. 수)

“마약범죄학”을 배우다

그리고 마약류투약범지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에 이르기까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지난 8월 22일 종합검진을 받았던 서울에 위치한 성북중앙병원에 검사결과 확인을 하고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돌아와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1편 제1장 읽어본 내용...

범죄대상 마약류에는 마약류와 비마약으로 나뉘어진다. 마약에는 향정, 마, 대마-THC 로 나뉘는데 향정에는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팝 등이 있다. 각성제에는 메스암페타민, MDMA , 지페프롤, 야바 등이 있고, 환각제에는 L. S. D, 페이요테, 사일로사이빈, 메스카린등 억제제는 펜플루라민, GHB , 누바인, 로히프놀, 벤조디아제, 팜 할시온, 달마돔, 스틸녹스, 이모반, 루나팜 등이 있다.

천역마약 - 양귀비 (앵숙, 아편알카로이드) →생아편 →몰핀, 코테인, 헤로인, 데바인 등. 코카나뭇잎 (코카알카로이드) →코카인 (Cocaine), 크랙 (Crack) 합성마약 - 페디딘계 , 메사로계, 프로폭시펜 등, 메데리틴 등, 반합성마약 -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등, 대마 - THC - 대마초 - 타이스틱 - 마리화나 - 대마수치-해쉬쉬 - 하쉬쉬 -대마수지 - 해쉬쉬 미네랄 오일 등이 있다.

비마약에는 환각성 화학물질에 접착제 (본드) - 벤젠등 부탄가스, 환각성 약물 - 텍스트로메르로판, 카리스프로돌 등, 환외마약 - 유코데, 후리코 , 코데나에스 등, 마취성 물질 - 클로로프로름, 에테르, 할로테인 등이 있다.

어제 우리 가평중앙교육원은 15호 불라벤 태풍이 몰아쳐도 아무 이상없이 무사했다. 오늘은 아주 맑은 하늘이 우리 가평중앙교육원을 비추어 ... 기러기와 나는 이 불을 햇볕에 말리고 오랫동안 빨래도 하고, 개운한 하루를 보냈다.

제46일차(2012. 8. 30. 목)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각성제 등”을 읽고

새벽부터 14호 덴빈이 지난 28일 15호 태풍 블라벤보다 더 강해진다는 기상정보의 예상으로 고추밭의 고추를 따다보니, 이미 고추밭의 고추들은 강한 태풍으로 인해 모두 쓰러져 있었다. 아직도 지나가지 않은 태풍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도 또 쓰러질 것 같아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야만 고추들을 살릴수 있을 것 같아 정성으로 또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고추들의 너무 가여웠다. 강한 비바람에 버티지 못해 쓰러진 고추들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사람의 손길로 죽고 사는 식물, 동물 .. $\pi\pi$ 난 행복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내 스스로 나를 일으킬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귀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프로포폴 마귀의 조종으로 쓰여졌던 나 ... 지금에서라도 행복함을 깨닫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성형외과, 비만클리 등에서 거래되는 마귀의 조종따윈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성제는 암페타민, 텍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펜메트라진, MDMA, 지페프로 등이 있다. 각성제의 약리작용은 강력한 중추신경계의 흥분제이다. 각성제의 특수효과는 맑은 정신유지, 자신감, 즐거움, 만족감, 피로감소, 신경집중우울증 해소는 물론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특효가 있다. 인체의 휴식이 필요함을 알리는 신호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 정신을 향해서 작용한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한다. 사용자들은 확신감이 증진되는 것을 경험한다.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겉보기에는 강력하며 우월감에 빠진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지며 불안 및 과민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똑같은 효과를 얻기위해 약 용량이 증가하거나 동일한 용량으로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한다.

내성 : 동일한 효과를 얻기위해서 약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약물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물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각성제 30 mg으로도 심한 독성작용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미 내성이 형성된 사람의 경우에는 2,000mg 에서 행복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성작용으로 간질, 혼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각성제를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킬 경우 금단증상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피로, 우울한 기분, 수면장애, 수면 중 꿈 활동의 증가등이 속한다. 만약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극대화 현상인 안절부절 증 및 자살 상념에 빠지게 된다.

금단현상 : 약물의 투여가 중지되든가 줄어들게 될때 생기는 신체증상으로 몹시 안절부절 해지는 극심한 불안증상이 주 증상이며, 기타 약물의 약리작용에 따라 구토, 설사, 복통, 식은 땀, 우울, 떨림증, 간질, 헛소리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움을 의미한다.

각성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나 " 목 2 조 3 항 관련에 각성제로 지페프롤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이 있고, 대부분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들이다. 필로폰이라고도 하는 메스암페타민이 대표적인 향정범죄이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 마약범죄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마약의 접근성을 차단할수 있는 교과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47일차(2012. 8. 31. 금)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MDMA, 엑스터시 등에 대해 공부하다”

MDMA, 아이, 야우도우환= MDMA (엑스터시), Trailmix

MDMA는 화학명이 3,4-Methylen Dioxy MethAmphetamine 의 약칭으로 통상 엑스터시로 불리며, 그 밖에도 ADAM, XTC, Essence, E, X, clarith 등 별칭으로 밀거래되고있다. MDMA의 주 제조지는 Nehterland이다. 주로 유럽인들에 의해 홍콩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하 생략...

성분은 암페타민계 유기화합물질로 제조된 백색분말로 옅은 붉은색, 분홍색, 갈색등을 다양한 색상을 띤다. 주로 캡슐이나 정제형태로 제조되어 밀거래되며, 표면에 다양한 글자 및 문양의 로고가 새겨져있다. 복용시 환각 및 흥분작용을 일으키며 식욕상실, 정신착란, 혼수, 자제력 상실등의 부작용이 있고, 필로폰보다 2~4배 강한 환각 효과로 계속 남용시 식욕상실을 겪다 사망한다.

야바, 야마

야바,야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3 항에 관련에 해당하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향정이다. 그리고 혼합제인 헤로인을 동법 제 2 조 2 호 제 1 항에 관련된 마약이다.

YABA의 주성분은 Ephedrine, Methamphetamine 및 Methamphetamine HCl 등이 있다. YABA는 crazy pill, house medicine 등으로 알려진 태국산 메스암페타민과 헤로인이 혼합한 것이다.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남용되고 잇는 알약형태의 YABA가 동남아인 불법 채류자들에 의해 국제우편소포 등으로 밀반입되어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남용되었다.

리탈린 = 메틸페니데이트

리탈린은 암페타민계 중추신경 흥분제로 주의 산만 및 수면 발작 치료제로 사용된다. 순한 각성제, 항우울제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지나친 흥분을 일으키지 않고 약효가 사라진 후에도 우울증을 남기지 않으며 기분과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의존증이나 금단현상은 암페타민류와 유사하나 발생빈도는 현저히 낮다.

마알, 멘드락스 (메타카론)

마알은 동남아에서 제조되는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의 일종으로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이다. 야바와 유사하난 야바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성분비가 20 ~ 30 % 인데 비해 마알은 14%에 불과하다. 부작용으로 정신착란, 환각, 호흡장애, 판단력저하, 신경손상등을 초래한다.

1960년대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다른 약물과 혼합될때 생명의 위협을 줄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져 1984년 판매가 금지되었다.

지페프롤 = 안티프롤

지페프롤은 각성제에 포함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통상 진해거담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과다.장기간 복용시 환각작용 등 부작용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었으며 남용. 장시간 사용하면 중독되며 약효는 투약 후 2~3시간 후 나타나 6~12시간 지속되며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시, 환청, 환촉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이를 복용하고 인체에 해곡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 과거에는 일반 약물이었던 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편입된 것이고, 품명은 지페프롤이다. 일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종류는 안티프롤 이라고 하고, 다양한 상품명에 있다. 그리고 불법유통에 대한 추적수사가 가능한 약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나 "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이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독극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딱... 한방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고 단약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되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강의...

메스암페타민은 암페타민 유사 화학물질로서 중추신경계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물이나 알콜에 쉽게 녹는 흰색의 냄새가 없고 쓴맛의 결정체형 가루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코카인과 함께 대표적인 중추신경 흥분제이지만 천연마약으로 몸에서 거의 완전하게 대사되는 코카인과는 반대로 메스암페타민은 몸에서 많은 양이 오랜기간 활동하며 이 약물의 상당비율이 변화하지 않고 잔류한다.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 히로뽕, 뽕 등으로... 일본에서는 각성제라고 불린다. ' 히로뽕 ' 이라는 말은 ' philpon ' 의 일본식 발음인데, 이는 일본의 대일본 제약주식회사가 만든 각성제의 상품명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비행청소년단에게 투약시킨 인간폭탄 “가미가제”에 쓰여졌다니...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을 최초로 제조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중 거의가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범죄이다. 환각, 환청, 환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으로 증상이 일어난다. 한번 중독되면 치료되지 않는 정신병자가 된다.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인 필로폰 중독자는 필로폰 투약 환각으로 인해 가족들이 바퀴벌레로 보여지자 집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살해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를 통해 들은바가 있다. 필로폰 중독... 환각, 환청 정신으로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이러한 일들은 백색악마에 의한 제2의 범죄의 실체인 듯 싶다.

필로폰, 히로뽕은 뇌의 중추기능을 망가트리고 뇌출혈과 중풍으로 이어진다. 어떠한 물질이 들었는지도 모른채 마약투약자들은 독극물의 히로뽕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듯 사용하고 있다. 아주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 마약은 어서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마약범죄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필로폰이 독극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48일차(2012. 9. 1. 토)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LSD, DMT 등을 읽다”

주요 범죄대상 환각제는 L.S.D,페이요테펙투스, 사일로사이빈, 벨리도나, 디케칠트립타민에 관한 (DMT), 디에칠트립타민 (DET), 케타민, 펜사이클리틴 (PCP), 메스카린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가 " 목 제 2 조 3 항 관련에 해당되는 환각제로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들이다.

환각제는 감각사고 자아인식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약물을 지칭한다. 실제로 자극이나 대상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하는 양 감각의 변화, 착각, 환각망상 등의 현상들이나 과거에 대한 꿈결같은 회상 또는 어린시절의 재생 등 착란상태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환상제 (Psychedelics)혹은 환각제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약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천연적 (Naturals)인 식물성 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 (synthetics)된 것이 있다.

식물성 향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들로는 피이요테펙투스 (페이요테 선인장) 에서 추출한 사이로사이빈 및 합성약물인 리제르그산 디에틸아미드 (Lysergic Acid Diethylamide : L . S . D)가 있다. L.S.D는 나팔꽃 씨앗 및 곡물의 곰팡이 맥각에서 발견되는 정신활성 알칼로이드인 리제르그산 아미드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밀조되는 환각제제는 전혀없고 , 주로 오산 마균기지 또는 공항만 루트를 통하여 밀반입 되고 있다.

약물반응은 사용자의 인격, 기대 및 사용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L.S.D는 거의 예외없이 지각, 기분 및 생각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다. 기분 나쁜 환각적 체험은 약물의 직접적인 효과가 차차 사라지게 되면 끝나게 되는 데 , L.S.D의 경우에는 8~ 12 시간 가량 지속이 된다.

환각제로는 L.S.D가 가장 강한 환각제이며 L.S.D.. 1 혼스 (약 28g)의 양이면 30만 회의 복용분을 만들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 몇 파운드 (1 파운드 약 454g)만 있으면 백만명을 정신없게 만들 수 있다. 즉 L.S.D는 가장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로서 메스칼린보다는 4,000배, 사일로사이빈 250 배 , 코카인 보다는 100 배나 강하다. L.S.D 의 1회 복용량은 평균 100~ 250 마이크로그램 (ug)이며, 정제, 캡슐, 액체형태로 될수 있다.

환각제는 약리학적으로 중추신경계에 대한 흥분제로 분류되며, 의학적 사용은 L.S.D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치료효과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에게 쓰는 약이 아니다. 다만 의학적 연구 목적으로만 또는 동물치료제에 가능하다. 환각제로 분류되는 물질들 전부 다 의료용이 아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투약하다가 중독되어 사망한다.

미국지역과 멕시코에서 자라는 작은 선인장의 어린 잎을 건조한 것으로 씹으면 환각작용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추출한 메스칼린 (Mescaline)을 합성화해서 만든것이 페이요테이다. 형태는 분말과 액상이다. 메스칼린은 페이요트 선인장속에 함유되어 있는 환각작용을 하는 물질로 페이요트와 같다. 과량 사용시 환각작용 혼수상태를 가져온다.

메스칼린은 암페타민 변형체에 속하는 환각제로 분류되며 신체적 의존성이 없고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 메스칼린은 페이요트의 활성성분만을 분리한 것으로 천연 산은 짙은 갈색분말, 합성은 회색분말이며 효과는 페이요트와 같으나 구토등의 불쾌감이 없고, 효과는 오심, 발한이 있다가 2~3 시간이 지나면 환각작용이 나타나 4~12 시간 정도 지속된다. 페이요트가 남용되지 않는 이유는 환각성분이 메스칼린의 복용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메스칼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가 " 목 제 2 조 제 3 항 관련 향정이다.

phencyclidine계 유도체인 케타민은 물에 잘 녹으며 1 %, 5%, 10% 용액의 다양한 농도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시에 통증이 없으며 조직의 자극도 없다. 케타민은 흰색 결정형 분말로 액상이나 캡슐형태도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용 마취제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 정맥 마취 주사제와 달리 중추신경계의 특정부위에 작용하여 탁월한 진동작용을 나타내나 약기운이 사라지면서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는 눈을 뜬 채로 잇기도 하여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이나 의식이 전혀없는 강경상태 즉, 해리성 마취 상태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환각과 관계가 있어서 각성 후에도 지속되는 단점이 있다. 환각제인 L.S.D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나타내며 약 1 시간 정도 지속된다.

케타민을 남용하면 방향감각 및 판단력 상실등을 유발하며, 행복감이 30분~2시간 동안 지속되고, 감각상실 등의 효력이 18!24시간 지속된다고 하며, PCP 투여의 효과와 같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케타민 역시 인간에게 쓰는 동물치료용이다. 그런데 어느 가수가 애인의 권유로 우리나라에서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PCP는 ' 천사의 가루 ' 라고 불리며 1950 년대 말 외다 수술용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이다. 섬망증, 의식장애, 환각, 우울증과 같은 부작용때문에 동물용 마취제로만 사용되고 있다. PCP의 효과는 뇌의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간에서의 분해가 매우 느리다. 따라서 한번 사용해본 사람이다 하더라도 재연현장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PCP 남용자의 공통된 징후는 피부가 붉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며 고통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복사, 설사, 구토 등을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 " 나 " 목 제 2 조 3 항 관련에 의한 향정이다. 품명은 펜사이클리틴 유도체이

다. TCP,PHP,PCPT,PCE동족체들이다. 이것을 대마초, 박하잎 등에 혼합 사용되기도 한다.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 이런 약물들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나 역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난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9일차(2012. 9. 2. 일)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벤조디아제핀 계열 등...”

억제제로는 바르비탈염제 (Barbitarates), 벤조디아제핀염제 (Benzodiazepines)등이 있는데 이들은 인체의 중추신경계 특정부위를 억제작용을 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나게 하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안정제이다. 바르비탈염제는 소량을 사용할때는 진정작용이 있으나, 차츰 증가할때는 수면효과가 있고 더 증량할 경우 억제작용을 가져온다. 각종 바르비탈염제의 작용은 비슷하나 중추신경계 억제기능의 강도가 다를 뿐이다. 중독상태에서의 증상들로서는 전반적으로 동작이 느리고 둔해지며,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고 기억력의 장애가 온다. 또한 말과 이해력이 느려지고 판단력의 결함이 오고, 주의력의 범위가 좁아지고 감정의 변덕이 심해진다.

그의 빈번한 복수증상으로는 호전적 태도 및 침울, 편집성 사고 및 자살 경향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금단증후군은 불안, 쇠약함, 심한 발한 및 불면증과 같은 다소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경련대발작, 섬망 및 심장혈관성 허혈과 같은 심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르비탈류 중 12종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억제제 품명과 염 또는 이성체의 염 제 4 호 " 다 " 목에 관한 주요 바르비탈염제계열, 억제제는 아모바르비탈, 알로바르비탈, 아프로바르비탈, 브랄라바르비탈, 부토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세코바르비탈, 펜타바르비탈, 펜타조신바르비탈, 프로폭시펠바르비탈, 카마제팜바르비탈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5~6종에 불과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4호 다목 제 2 조 3 항 관련 해당되는 향정이다. 대부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제품 허가가 없어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불법으로 오.남용 한것도 있다.

바르비탈염제는 신경활동, 골격근, 평활근 및 심장근육 등에 상당한 억제효과를 미치고, 넓은 범위의 생물학적 기능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반적 억제제이다. 바르비탈염제제는 심리적 의존은 물론 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향 뿐 아니라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 약물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신체적 의존도 생기게 된다.

또 한가지 양상은 삽화적 (Episodic) 중독형이다. 대체로 10대 또는 젊은 성인들로서 술을 마시는 이유와 동일한 , 즉 들뜬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나 평안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르비탈염제를 복용한다. 약물에 의해 얻게 되는 삽화적 평안감에 습관이 들어 버림으로써 바르비탈염제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바르비탈염제를 정맥주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약물은 주사하는 이유는 급속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다른 약물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바르비탈염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환각제 경험 말기에 경험하게 되는 편집증이나 운동성, 초조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정제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점진적으로 용량을 자꾸만 높여 나가기 때문에 탐닉자에게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 내성으로 인해 약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이 약의 강한 억제효과로 인한 심장혈관무전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프로포폴 마약”

억제제중 2011년 1 월 마약으로 편입된 프로포폴은 벤조디아제핀계 계열의 평온제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1955년 Sternbach 가 최초로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chlordazepoxide) 를 합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불안 및 각종 정신 신체장애

에 수반되는 감정장애에 효과가 있으며 항경련 작용과 근육이완 작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약은 심리적 억제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서 오는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으로 인해 증오적, 공격적 행동이 유발 될 수도 있다.

치료용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정신적 의존은 물론 신체적 의존마저 생길 수 있다. 금단 증후군으로는 불안, 불면, 좌불안, 진전, 오심, 발한, 식욕부진, 소화기계의 통증, 우울, 불쾌, 근육연축, 건반사, 항진, 섬망 등이 나타나며 정신병이 생겼다는 보고도 있다.

독물이나 약물의 중독에 의하여 일어나는 정신병으로 급성과 만성증상으로 나누어진다. 급성은 단 1 회 섭취로도 급격하게 정신증세가 나타나는 반면, 만성은 장기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사이에 증세가 나타난다.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에는 알코올, 마약, 수면제, 일산화탄소 등이 있으며 공업용품인 납. 수은. 망간. 벤진. 이산화탄소 등도 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다.

벤조디아제핀계열 중 로라제팜 (아티반)은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남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벤조디아제핀제보다 규제가 덜 심해 약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약리작용도 강력해 내성에 빠지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 범죄에 이용된 주된 향정들이다. 그러나 로라제팜은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임의로 조제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판중인 미다졸람, 플루트라제팜, 졸피덴, 펜티트라징, 염산날푸핀 등은 유통질서 문란 또는 의사, 약사들의 취급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대상 약물이다. (미다졸람은 투약 하고 중독중에 걸려 죽은 의사도 있다.) 그 가운데 나 역시 이러한 약물들을 투약하고 병원에서 수면마취에 걸려 잠을 잤다니... 10분 20분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자는 숙박료를 40~50만원을 지불했다니... 나 자신이 밉다.

장마와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하늘은 진짜 가을하늘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오랜만에 밭에 나가 쓰러진 고추와 상추, 파... 이름모를 식물들을 제대로 세워주며 풀 향기를 맡으니 그 동안의 교육원 내부에서의 답답한 마음을 한순간에 날아가버리게 해주었다.

매일같이 날씨가 좋았을때... 풀향기를 매일 맡을때는 사실...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느꼈었지만 오랜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느끼지 못했던 교육원 외부의 자연들이 오늘은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다. 있을때 , 가졌을때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 갖지 못할때... 그리울때야말로 그 귀하고 귀한 소중함을 알게된다. 나는 지금 내게 무척이나 소중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지독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망가진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키기위해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연이기에... 단약을 시작하고 부터는 내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제50일차(2012. 9. 3. 월)

“가평중앙교육원 창문에 이름모를 새가 주둥이로 콕콕 출근도장을 찍는다...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



주둥이를 콕콕... 출근하는 이름모를 새

"가평중앙교육원 창문에 이름 모를 새가 주둥이로 콕콕..."이라는 글을 가평중앙교육원 선행(善行)교재 가문 ② 에서 발췌했다...

2012. 4. 3 아침 계절답지 않게 흰눈이 빗물과 섞여 오전 내내 내렸다. 나는 늦은 잠을 잤다. 그런데 유리 창문에 콕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 보았는데 가평중앙교육원 현관에 사람이 나타났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께

손님이 왔다고 "콕콕"주둥이로 창문을 두들긴 것이다. 그 새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와 인연이 있다. 교육원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1주일간 갇혀 있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가 우연히 문을 열자 어디론가 날아간 새이다. 그 새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가 문을 여는 사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다름없다. 그 후 가평중앙교육원에 낚신 사람이 주변을 맴돌면 훨훨날아와 주둥이로 창문을 콕콕 두드리려 알려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인듯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악으로 갚고...짐승을 구해주면 은혜를 갚는다는 옛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결초보은: 結草報恩)

2012. 5. 5 어린이날 오후 2시 가평중앙교육원 현관에 변신체가 있었다. 오전 내내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는 모래와 흙을 퍼다 나르는 노동을 한 후 발견한 것이다. 전경수 단장 과거 수사관시절 변사체 검사등 수사 경험을 되살려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에 입회한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 두 눈을 개미가 파 먹고 개미때들이 많이 모인것으로 볼때 죽은지 2~3일 전인것 같다"고 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는 타살인지 변사인지 그것부터 조사하자고 했다.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 왈 "타살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과수'에 의뢰 감정해야겠다."고 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는 교육원 대형 차문을 바깥에서 보면 맞은편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비행 실수로 추락사 라는 단어를 붙였다.

가평지방경찰청 청평지청 검사에게 변사체 처리 지시를 받았다. "타살 혐의 없으면 변사체 유족에게 넘기고 매장하라"는 지휘였다. 변사체를 현관 첫번째 계단 소나무 아래 땅을 파고 묻었다. 그리고 막걸리 한잔을 무덤에 뿌렸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춘천발 상천역 오후 4시20분에 도착하는 전철을 타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가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 승용차안에서 꺼내어 상봉역 전철 승차대기 홈에 도착한 순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의 장남, 차남이 5,6학년 당시의 나이와 비슷한 두 형제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가 승용차에 내리며 양복바지를 빠뜨린 것을 주워 "아저씨"하면서 달려와 건네주었다.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착하다"하면서 즉석에서 포상금 각 천원씩 주었다.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이다. "전경수 단장이 사인을 규명하여 정성스레 장례를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새"님이 베푸신 덕인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전경수 단장 역시 그새의 인적사항을 안다. 매일매일 아침 현관에 날아와 주둥이로 콧코를 찌고 낫선사람이 나타날때도 콧코 창문을 두드리 주었던 새다.

비행하다 ...어쩌다 추락사 했는지 인간에게 은혜를 갚은 "새"인것 같았다. 다름아닌 그 새는 컨테이너 박스 속에 1주일간 갇혀있는 것을 전경수 단장이 발견하여 살려보냈던 "새"이다.^^ 라는 인간과 동물간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였다. 나도 그이야기에 매우 공감했다.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 혼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않고 꼭 갚는다.

가문 ② "나의 삶 나의 어머니"아버지 극복수기 167, 168 페이지에 기록된 글의 주인공 "이름 모를 새"의 무덤을 나는 어젯밤에 기러기와 함께 벌초를 해 주었다. 작고 잡초 풀들에 덮여 새의 무덤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무덤에 흙을 보충하고 정성스레 주변을 정리했다. 몇일동안 비로 인해 풀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서 이다. 사실 나는 풀을 뽑아 주면서...'이것 또한 새의 무덤을 벌초해주는 것과 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풀을 뽑았다.

오늘 아침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께서 "새무덤에 벌초 누가 했나"하시고 "새가 참 좋아하겠다." 하셨다.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더 귀중한 분들이시기에 나처럼 비인간적으로 살아온 마약중독자 까지도 살려주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신다. 그런데 죽은 생명의 새 마저도 귀히 여기시니 내가 어쩌... 존경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본받을 점이 너무도 많은 분들이시기에 절대 나약함으로 단약에 실패해서는 아니된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모든 사물, 자연들 전경수,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 그 모든 가르침에 감사를 드린다. *마약범죄학(마약범죄론)제 2권 향범죄론 제 2편 제 3장 내용에 관한 공동지도 학습이다. 평온제(tranquilizer)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 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을 말하는데, 대평온제와 소평온제로 나누는데 불법 유출 또는 거래시 범죄에 이용된다.

대평온제=콤파진, 페논다이하진, 프로크로페라진(토라진 Thorazine),타락탄, 프로트라진,포수클로랄(chloral Hydrate)=클로 달하이드레이트 대평온제는 화학적으로 페노다이하진(Phenothiazine)이다. 콤파진은 페노다이하진 유도체인 프로크로페라진을 주성분으로 제제한 오심(惡心,가슴속 불쾌하면서 토할듯한 기분이 생기는 현상),구토 중단 치료제이나 매우 위험한 약물이다.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의 진전(震顫,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병적으로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근육운동)과 섬망(蟬妄,외부세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망상이나 착각이 일어나는 증세)을 치료하고 불안감, 혼란, 흥분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고 아무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콤파진을 비롯하여 프로마진, 프로메타진, 스테라진, 메라립등 페노트라진 유도체는 중추신경억제제의 작용을 증강시켜 긴장완화제에서 구토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나 알코올, 마약, 바르비탈류 마취제, 항(抗)히스타민제와 같은 중추신경억제제와 병용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클로프로마진(chlorpromazine)은 최초의 향정신병약물로 향정신병 효과 및 진정작용이 탁월하여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윤리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량 사용시 향정신병 효과를 나타내고 망상과 환각상태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LSD로 유발된 공포감을 치료하는데 사용... 등 클로르프로마진의 대표적 상품명은 토라진(Thorazine)이다. 정신병원에서 다루기 힘든 환자들을 진정시키는데 사용된다고... 하나 무서운 약물들이다.

제51일차(2012. 9. 4. 화)

“제2차 자가 전지훈련... 1주일간 출퇴근 출석수업 받다”

오늘 하루는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중심 중 50일간의 교육을 통해 전지훈련을 갖게 되어 서울 본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외박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어서였었는지... 사실 집에서 잠을 청하고 깨어 일어나 보아도 집에 있는 내가 실감이 나질 않았다.

한달을 넘게 프로포폴증을 제거하고 이젠 그 지독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싶은 생각을 참고 견디는게 아닌 이 현실에 적응을 하게 된 나는 마음이 너무도 행복해져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서울에 있는 지금도 병원생각은 커녕 그렇게도 하고 싶던 목욕요법도 포기한채 가족들과 강아지들과 하루를 무사히 화목하게 보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우리딸 자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천사 같다고..." 그렇다 이젠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면 마취시키는...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처럼 편안히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 잠을 자게 되다보니... 마음또한 편안해져 잠자는 모습가지도 엄마의 눈에 천사처럼...행복해 보였을 것이다. 기대치 못한 외박과 50일간의 놀라운 나의 모든 변화들...지금 나는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마약중독증을 극복시키는 '평생교육'...가평중앙교육원을 통해 평생 마음의 부자가 되고싶다.

제52일차(2012. 9. 5. 수)

"제 2차 전지훈련 외박후... 다시 찾은 가평중앙교육원"

나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가평중앙교육원 기상시간 보다는 늦게 일어나 기상을 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행 전철을 타고 마석,대성리를 지나 상천역에서 내려 가평중앙교육원 소문을 열고 드디어 엄마품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가평중앙교육원에 귀교하였다.

3박4일간의 제 1차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전지훈련과는 달리...나는 한점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없이... 프로포폴 투약할 당시의 정신과 육체였다면 거짓말과 동시에 여러가지 핑계와 귀찮음증으로 이 짧은 외박기간과 입교날짜에 부정적인 생각과 반응으로 또 다시 병원을 찾고 귀교를 거부하게 되었을텐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약속시간보다 4분더 일찍 도착하여 입교날짜와 시간약속을 정확히 지키게 되었다. 기쁘다.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진다.

전지훈련 첫 외박을 성공하였다.너무 행복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상봉역에서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지난 나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게되었다. 정말, 마약을 투약했던 그 지난날들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과거는 지나간다. 다시 돌아갈수 없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

난 이제 단약을 성공으로 미래의 희망...빛을 조금씩 보게된다. 34살의 여자나이... 절대 젊은 어린나이가 아니다. 평범한 환경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미 한 가정의 아내, 부모가 되어있을 나이인데 난 아직 걸음마를 시작해 가려는 갓난아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젠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내게로 어울리는 단어가 되었다.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오늘도 입가에 미소가 나를 계속 붙어다니기 시작했다. 시작은 반이라고 했다.이미 나는 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절대 이행복의 시작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내게 주어진 숙제들을 꼭 정답으로 끝낼 것이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스리나 등 신경안정제...”

소평온제=메프로마메이트,벤조다이아제핀계,메프로마메이트(스리나), 크로르다비아제폭사이드(리브리움),다이아제팜(바지움),크도르프로마진(세파민), (세락스),옥사제팜,프레루딘 신경안정제로 비교적 완화된 불안함과 긴장감 치료제인 항불안약이다. 화학적으로 메프로마메이트와 벤조다이아제핀계이다. 메프로마메이트(스리나),크로르다비아제폭사이드(리브리움) 다이아제팜(비리움),크리로프로마진(세파민)(세락스),옥사제팜등은 긴장성두통, 완화된 불안감을 나타내는 알콜증상의 치료 및 긴장감에 따른 치료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유출되어 범죄에 어울리는 향정들이고,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달마인, 할시온, 레스토린, 모가론이 있는데 수면용으로 쓰인다. 프레루딘은

암페타민류와 유사한 중추신경계 각성제로 행복감및 최음효과를 유발하며 체중감량제로도 사용한다. 약리학적으로는 카페인보다 강하고 암페타민보다는 약한 정도의 순한 각성제이다. 이 모든 것이 오.남용되거나 범죄로 이용되는데 쓰이지 말아야 한다.

제53일차(2012. 9. 6. 목)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소감... 깨달음...”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소감... 깨달음은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이었다. 교육 프로그램 과정... 가평중앙교육원서 아침, 저녁으로 7일간에 걸쳐 가족이 있는 집에서 현지전지훈련과 더불어 출.퇴근 수업을 시작하였다.

처음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할 당시에는 이곳 위치가 먼 거리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출,퇴근 출석 시간... 출석하러 가는 길이 그리 먼 거리가 아니게 느껴진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 몇년만인지... 새롭다. 이젠 프로포폴 중독자가 아닌, 정말 평범한 여성이 되는 것 같다.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난 출근길에 나서고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난 퇴근을 하는 직장 여성이었는데...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아침인간이 된것이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ㅋㅋㅋ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깨어남이 아닌, 출근하기 위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주 놀랍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내용..."

펜플루라민 (Fenfuramine), 화학명은 (N-ethyl-methyl-3 (trifluoromethyl) benzeneethanamine)이다. 상대로 살빼는 약으로 팔렸다. 이를 복용한 30대 가정주부가 외동아들을 살해했다. 중국제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일본인 남녀들이 급성 간부전등의 증상을 일으켜 1명이 사망했다.

-감비필타 별명: 패씨감비편이란 신종 살빼는 약이 10정 1판으로 2판 (20정)을

한갑으로 포장되어 중국에서 밀반입 유통된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이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 펜플루라민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약품은 안비납동편, 분기납명편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명칭만을 감비필타로 변경 유통되고 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경찰청 형사국 마약수사관으로 재임시 중국에서 들어온 펜푸로라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을 근절시킨 기록도 있었다.

중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감비필타" 등 명칭 및 형태로 별명한 살빠는 약이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는 명칭만 다를 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펜플루라민 성분으로 인체에 해로운 마약류이다. “마약범죄학” 공부를 통해 이 귀중한 지식을 나만 알게된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다.

제54일차(2012. 9. 7. 금)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내용에 대해..."

수면마취제(프로포폴)를 내가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에서 처음 알게 되어 느꼈던... 첫 느낌은 기억하지만, 그 느낌을 떠올리거나 떠오른일이... 더이상 나와는 먼 느낌이 되어가고있다. 가평중앙교육원으로 출.퇴근 수업을 한지 오늘 3일째 되는 날...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교육원을 도착하면 난 창문을 열고... 아니, 그 전에 소문 (개문)을 내가 열쇠로 직접열고 현관 문 까지도 내가 열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인지... 이젠 정말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이 더 내집처럼 느껴온다. 이젠 완전한 적응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처럼 잘 알고 있다. ㅋㅋㅋ 그래서 더욱 내집처럼 느껴진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내용...”

'염산날부핀, Nalbuphine HCL'

품명은 염산날부핀이다. 화학명은 (5-0-Fluorphenyl-1-2-3-dihydro-1-methyl-, 7-intro-IH-1,4-benzodiazepin-20one)이다. Nalbuphine HCL주사제인 누바인이라는 염산날부핀은 진해거담제로 과량복용시 안명홍조,신동,피부건조,구갈, 구취,위

장기능감소,빈맥,고혈압,발열 등의 신체증상을 나타내며 환측,환시,환각,망상의 의식 변화 및 섬망까지 전신증상으르 나타낸다.

상표명은 누바인이라고 하며 학생, 청소년층에서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 약은 몰핀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허용되어 있는 약물이다. 이 약은 내성이 쉽게 생겨 한번에 여러개를 복용해야 한다. 이 약물 역시 15년 전 서울역 부근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불법판매될 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용산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재임당시 KBS 방영하는 기자와 함께 사회적 이슈를 제기 향정으로 편입된 것도 적혀져 있었다.

날부핀은 연용으로 사용시 의존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게 되면 우울증, 불안감, 회열감, 환각, 환측, 환시, 두통, 오환, 흥분, 고혈압, 정맥 저혈압, 비현실감, 피부의 가려움과 작열감, 호흡억제,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된다. 염산날부핀을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날부핀이 향정의약품으로 추가지정되었다. 따라서 '염산날부핀' 함유제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일부 청소년 .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염산날부핀' 을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 며 " 이에따라 불법사용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지정했다 " 고 밝혔다. 염산날부핀을 오른쪽 팔 혈관에 투약한 상태에서 인천에서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주안동 노상을 편도 3차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운전을 하다 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임모씨 34세 등 3명을 치어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례도 적혀져 있었다.

이들은 약국에서 누바인을 구입 평소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 한것이다. 아울러 이를 판매한 밀매자는 대원 (주) 제품 염산날부핀 1 앰플당 40,000원씩 받고 판매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악용해 물의를 빚어온 루핑등 24개 종목의 날부핀 계열 진통주사제가 약국에서 전면 판매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지가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는 이들 진통 주사제는 병.의원 의사의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도록 하였다. 약국에서는 일절 판매 금지된 약물명은 루핑, 근화염산날부핀, 제일누바인,유토인,안티포,부나킨,나노펜주 등 염산날부핀 성분을 가진 상표명을 가진 24개종의 관련 약물이었다.

주로 날부핀이라는 상품명이다. 따라서 '염산날부핀' 판매. 수수시 이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현재 시중에 유통품에 대해서는 적색으로 '향정신성' 이라는 문자를 용기.포장.청구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불법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포폴 등 마약 수면제도 병.의원에서 내시경 등 아주 제한된 2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나처럼 병원에서 마취상태에서 잠자기 위해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약범죄학 2 권 (향정범죄론)을 통해서...

제55일차(2012. 9. 8. 토)

“가평중앙교육원... 주 5일 근무처럼... 5일간의 출퇴근 출석수업으로 단축되다...”

토, 일요일은 집에서 쉬는 주말이 된다. 문득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 '이 행복, 이 자유... '불안하다.' 50일을 집에 한번 다녀가지도 못하던 내 현실에서 이젠 주말을 집에서 편히 보내게 되는 나... 두렵다. 그래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나를 집에서 나 자신과의 싸우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앞으로 어떤 슬픔이 닥쳐오려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 불안하다. 나와 함께 인터넷게임중독증을 극복한 기러기에게 나의 두렵고,불안한 마음을 이야기 하였다. "그동안 50일을 집에 한번 못가고, 보고싶던 가족, 강아지들도 못보고도 잘 견뎌기에, 지금 그 행복을 주신데 대해... 그건 나 자신이 나약한 면을 보여준 것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절대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지지 말라" 는 위로에 나, 아~ 그렇지... 내 죄값은 많이 무겁지만 나... 이쁘고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지^^ 나를 위안하며 ... 다시 마음은 평안해졌다. 좋다... 지금 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출.퇴근 ... 5일근무네 주말을 집에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나에게 베푼 교육적 철학에 감사하며, 나 더 단단한 나로 완성시킬 것이다. 날개만 있다면 날수도 있을만큼 편안하고 행복하다. 지금... 바로 이런거다. 이럴때 나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가평중앙교육원을 다시 찾아... 아니 7일간의 전지훈련을 끝내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나의 영혼에 달라 붙어 있는 프로포폴 중독증을 확실히 끊었다. 그것이 가평중앙교육원 교육목표이자 교육의 정체성...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이다.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위해... 뜬부기는 병원이 있는 강남으로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제56일차 (2012. 9. 9. 일)

“가평중앙교육원... 자가교육 병행... 집에서도 문득문득 생각나는지 점점”

처음 집에서 외박을 하고 출,퇴근도 며칠동안 이어지고, 주말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고... 이제서야 집에 있다는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저녁이 지나면 한주가 시작되는 아침이 밝아온다. 프로포폴 투약의 시절... 월요일 아침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도 습관처럼 이어졌던 병원 드나들던 시절을 되돌아 본다. 중독증... 주말에 교회에서 기도도 드렸었지만 예배시간 그 순간뿐이었다. 내일은 쉬어야지.. 참아봐야지.. 작심 3일도 아닌,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월요일 아침이면 난 안절부절... 정상인이 아니었다. 정신병자가 분명했다.

밤이 되자 문득 ... 지난 나의 모습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필름처럼... 아니, 사진을 보고있는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처럼~" 지난 시절 ..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에 빠져 병원을 헤매고 다니던 그 아이... 너무도 가엽고 불쌍하다.^^^ 그러나 이젠 병원에 드나들던 과거의 내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 무슨 이유로... 그리고 무서운 중독의 습관이 되고, 간절해졌었는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신없이 병원까지 도착하던 그때의 내가 잠시 떠올라 그 시절을 잠시 회상해 보았다.

난 이제 바보가 아니다. 환자도 아니다. 더 이상의 재발은 없다. 절대 없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건 미친짓이다. 마귀들은 물러갈 지어다. 마귀들은 물러갈 지어다. 또다시 아파오기 싫다. 이젠... 완전한 나로 다시 태어난다. 단단한 나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난다. 제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픔, 무서움... 나 이제 이런 건 그만 하고 싶다. 지금 내가 난 너무 좋다. 평생 지금처럼 행복한 부자 마음으로 살고싶다. 그러나 말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 물, 햇볕.. 조화로운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자연환경에 의한 흙냄새, 풀냄새가 나의 친구였고,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나의 중독증을 제거시킨 교육 기자재였다.

제57일차 (2012. 9.10. 월)

나 (뜸부기)는 기러기를 만나 정확히 일주일만에 가평중앙교육원에 다시 오게 되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다른환경에 햇갈리기 보다는 뒤척이지 않고 잠에서 벌떡 이러나 정확한 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해 세수부터 하게된다. 기분 좋은 출근길... 출석수업... 나는 지금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을 공부한 내용... ”

'카트' (Khat), 케친(Cathine)... 카트의 품명은 케친이다. 케친의 화학명은 (dthreo-2-amino-1-hydroxy-1-phenylpropane)이다. 학명이 Catha Edulis 이며, 동부아프리카와 남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상록 관목으로 크기는 10~20 피트(약 3~6) 정도이다. 카트는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자생하는 관목의 일종으로 잎사귀 부분이 흥분제 또는 기력회복제로 오.남용 되었다.

카트 나무의 크기는 1.5~4 m 이고 해발 780m의 고도에서 서식한다. 카트나뭇잎에는 향정신성, 환각효과를 주는 성분인 cathinone과 cothine이 있으며 그 효과가 람페타민과 같이 강하다. 또한 나뭇잎에는 당분, 타닌, 휘발성 기름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술한 정도의 중추신경 각성제인 암페타민류 (Mider Amphetamines)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 식욕부진, 위염, 변비, 정신적인 흥분상태를 야기한다. 남용시

체력소진, 폭력성, 자살충동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카트는 수분증발을 막기위해 비닐봉지, 바나나 나뭇잎 등으로 싸서 화물에 은닉 반입되거나 채소류로 위장되어 반입한다. 바나나잎에 싼카트는 이보다 더 오래 약효가 지속된다. 카트는 잎이 말라감에 따라 알카로이드 성분이 변질됨으로써 상하기 쉬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보통 채취후 2~3일이내), 신선한 카트를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 마른 카트나 분말을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카트는 케친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제 2 조 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이다. 나쁜 마약성 물질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마약 범죄학을 통해 압 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통이 확인된 태국산 혼합마약" 야바 (YABA)" 에 이어 환각성이 강한 태국산 " 카트 " 와 중국산 " 프로폭시펜 " 등 신종마약이 국내에 속속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 카트 " 는 태국 예멘 등지에서 경작되는 " 씹는 마약 "(카트 사용법은 신선한 잎을 씹어서 삼킨다) 으로 필로폰과 같은 극도의 환각증세와 편집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에 포함된 신종 마약이다.

케친은 중추신경 계통을 자극 시키는 성분이다. 과도하게 사용했을때에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알콜에 취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잎을 자르면 엽맥으로부터 케시논이 흘러나오는데 마약 테스트 키트로 시험했을때 암페타민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고 기록되어 있었다.

제58일차 (2012. 9.11.화)

나의 상표 “뜸부기표” 된장찌개를 끓이다.

출근 수업시간을 정확히 맞추고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을 하여 이젠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뜸부기표 된장찌개' 를 끓여 기러기와 점심식사를 하였다. 기러기는 일주일간 서울에 있는동안 ' 뜸부기표 된장찌개 ' 가 몹시 먹고싶어... 경춘선을 타고 가평중앙교육원을 오는 내내 된장찌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ㅋㅋㅋ 놀랍게도 내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기러기... 근데 서울에서 까지도 생각나고 먹고 싶

어했다니... 기분 완전 좋았다.

오늘은 더 정성스레 ' 뜸부기표 된장찌개 ' 를 끓였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러기와 함께 마약범죄학박물관 뒷편 산책로에 잡초들을 뽑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땀을 흘리고 풀냄새도 맡고 풀들을 뽑다보니, 잡초에 가려진 잔디 하나, 둘... 햇별을 보게하고, 기분도 개운해지고... 잔디 역시 나처럼 햇별을 보게된다. 지난 과거의 나 또한 프로포폴이라는 잡초들에 가려졌던 잔디였던것 같다. 하지만 이젠 잡초들을 제거해 햇별을 보게 된 잔디처럼... 나에게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나를 원하고 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GHB (Gama Hydroxybutyrate, 감바 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제 2조 3항 관련 향정이다. GHB 품명은 GHB(Gama Hydroxybutyrate)이다.

화학명은 1-hydroxybutyric acid이다. 형태는 캡슐이나 분말형의 백색이나 모래색 까을 띠나, 무색 무취로 약간 짠맛이 나는 액체이며 다른 용매에 잘 녹고, 푸른색을 띠는 액체 형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뽕이라는 은어로 오.남용 되고 있다.

Date Rape Drugs 이라고 불리는 GHB는 여성 상대 범죄에 이용되는 마취성 물질이다. 성폭력은 GHB에 의해 대부분 낮에 일어난다는 것이라 하여 대낮 강간용 마약이라한다. 이들 약물은 한모금만 마셔도 편안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어 자신에게 성폭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date rape drugs 이라고 불린다. 약의 화학 반응과 진정 작용의 정도에 따라 희생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며 심하면 바로 사망하기도 한다.

약에서 깨어난 희생자는 대부분, 약에 취해 있을때 자신에게 어떤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대낮 성폭행용 마약의 국제간 거래는 주로 우편물에 의해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멕시코나 콜롬비아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대낮 성폭행 마약인 GHB가 코카인이나 헤로인처럼 미국의 모든 주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미시건, 플로리다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Rohypnol,GHB 등은 대낮 성폭행 마약에 대해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성폭행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약물의 사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flunitrazepam 을 포함하여 모든 규제 약물을 사용하면 최고 20년 형에 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 Rohypnol 은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GHB와 Ketamine 은 주마다 다르게 규제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1997년 11월 1 일자로 발효 되었으며 (DEA, 1999), 주로 Rohypnol, GHB, Ketamine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3 가지 약물 외에 엑스터시 (Ecstasy)와 Clandestine도 성폭행자들이 이용되는 향정이다. 이 약물이 미국으로 밀수입되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접근 될수 없도록 사회적 방위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제59일차 (2012. 9. 12.수)

“프로포폴에 망가진 나의 기력을 회복시킨, 가평중앙교육원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오랜만에 기러기와 함께 황토수면공동체험학습관1실에서 취침을 하고 잠에서 깨어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한컵을 들이켜 마시고 아침을 맞이 하였다. 사실 집에서는 집안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평중앙교육원에 있으면 쓸고, 닦고, 설거지는 기본... 희한하게도 전혀 귀찮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게된다. 오늘은 오랜만에 밀린 빨래를 기러기와 함께 빨고 널었다. 햇볕은 전혀 없었지만 손빨래 할때에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는 걸 느낌으로 상쾌한 기분을 만끽했다. 역시 나는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잡생각을 잊게 된다. 바로 이런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마약범죄학 제2권 (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에 내용...”

디아제팜(요요) (Diazepam)

FQuil, Valrelease, valium 등으로 불리는 Diazepam 은 benzodiazepine 계 물질로 품명은 디아제팜이다. 화학명은

"7-chloro-1,3-dihydro-1-methyl-5-phenyl-2h-1,4-benzodiazepin- 2-one" 이며 단기적인 정신신경안정제나 금주에 따른 금단현상, 간질 또는 근육경련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한다. Diazepam의 사용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졸음, 피로, 운동실

조 등이며, 때로는 근육경련, 수면부족, 감정격화, 정신착단, 언어장애, 시각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할수도 있고, 특히 장기간 과다 투여시 중독성이 있는데, 단지 2주간의 투여로도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요요" 라는 품명의 " 살빼는 약 " ... 이 약을 복용하다 중단 할 경우 살이 배로 찌는 점을 악용, 디아제팜 등 향정 성분이 함유된 "요요" 라는 신종약품까지 개발해 불법으로 판매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이 함유된 "살빼는 약" 이라는 유해성은 환각, 초조감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다량 복용할 경우 금단증상과 함께 사망이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요요"는 펜플루라민 성분인 "분기납명편, 압페프라몬 성분인 안비납동편"으로 인한 후유증 방지제라는 명목으로 불법거래 되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호 " 라 " 목 제 2 조 제 3 항에 관련되는 향정으로 엄단되어야 한다.

제60일차(2012. 9. 13. 목)

6시30분 기상으로 상봉역에서 우연히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만나 경춘선을 타고 가평중앙교육원에 함께 출근 (출석수업) 하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2박3일간의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전국 순회 캠페인으로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우리는 아주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무척이나 반가워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 아빠 " 라고 인사를 건네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전영순이 많이 건강해졌나" 하곤 나를 반겨주셨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을 날씨이지만 나의 마음은 아주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영순이라고 불러준 것은 교수님의 성을 딴 뜬부기에 이어 또 하나의 닉네임이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내용...”

암페프라몬 (Amfepramone) 품명은 암페프라몬 Amfepramone 이다.

화학명은 (2-diethylamino)-1-propanone 이다.

암페프라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라" 목 제 2 조 3 항 관련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일종으로 최근 중국 등지로 부터 소규모 행상, 여행객을 통

해 국내로 밀반입되어 비만치료제 의약품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오.남용 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암페프라몬의 주요 약리작용은 중추신경계를 각성, 흥분감을 주며 장기간. 다량복용시 식욕을 감퇴시켜 체중을 감량시키며 환각.우울증.정신분열증을 유발한다. 암페프라몬(안비납동편)등의 명칭을 가진 소위" 살빼는 약 "으로 위장되어 펜플루라민 (분기납명편) 과 같이 수입판매점, 한약판매점, 화장품대리점, 노점상 행사등에서 불법유통 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살빼는 약은 없다. 식욕을 억제시키는 정신약물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택림

암페프라몬과 펜플루라민이 혼합된 마약 "택림"이다. 암페프라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라 " 목 제 2 조 3 항 관련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일종이고, 펜플루라민 화학명은 (N-ethyl-a-methyl-3-(trifluoromethyl)benzeneethanamine)이다.

프로필헤세드린 (Propylhexedrine)

화학명은 (N,a-dimethylcyclohexaneethamine)이다. 프로필헤세드린은 코막힘 방지에 쓰이는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라"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으로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 등 범죄에 이용된다.

Clandestine=Flunitrazepam

Clandestine는 유럽등지에서 주로 미국으로 밀수입되고 있는 국제적 불법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Clandestine 는 여성상대 성폭행 범죄자들이 소지 또는 사용한다. 이것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기 때문이다.

Flunitrazepam화학명은

5-(0-fluorophenyl)-1,3-dihydro-1-methyl-7-intro-2H-1,4-benzodiazepine-2-one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라"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이다.

Flunitrazepam(플루니트라제팜)

플루니트라제팜, Flunitrazepam 은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이는 로히프놀, Rohypnol 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미국의 연방국가는 이 향정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최고 20년의 형에 처하고 있다.

품명은 Flunitrazepam, 화학명은 5-(0-Fluorophenyl)-1,3-dihydro-1-methyl-7-intro-2H-1,4-benzodiazepine-2-one이다. 벤조디아제팜 유도제인 로히프놀은 GHB등과 더불어 대낮 강간용 마약이라고 불리운다. 남용계층은 젊은층으로 유럽 또는 미국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식당, 술집, 대학가, 멕시코 등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외국에서 입국한 여성 유학생들에게 표적이 되고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라 "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이다. 결론적으로 " 약은 독이다."

제61일차 (2012. 9.14.금)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61일만에 나의 정신건강 상태를 말씀드리다"

내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하기 전 프로포폴 중독증에 의해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었다. 프로포폴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내과, ○○비만클리닉 등 24개 병원을 돌아가며 의사들에게 주사를 맞고 나면 수면마취에 빠진다. 수면마취에서 깨어나면 내가 왜? 잠에서 깨어났는지... 또다시 수면마취에 간절했다.

다시 또 프로포폴을 맞고싶어 제 정신이 아닌, 정신병자처럼 이병원,저병원을 헤메고 다니게 된다. 그러나 또 다시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 그냥 그대로 계속 잠들고 싶었다.

나 왜... 깨어 난거야... 계속 자고싶다. 차라리 깨어나지 말지... 안깨어날순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죽고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프로포폴을 계속 할수 있는 날이면, 잠에서 깨어나서 배가 고파진다. 하지만 오래 먹을수 있는 식사가 아닌, 짧은 시간에 간단히 배만 채울수있는 과자나, 빵... 등을 먹게 되고 프로포폴으로 다 주사맞고 나면 또 허무함과 다음 날, 또 병원가서 프로포폴 맞아야 하는 마음 뿐이다.

당연히 입맛은 없어지고 계속 잠을 자게 되니... 살은 빠질수 밖에 없다. 병원에서 시술과 동시에 프로포폴을 투약 할수있는 병원비라도 생기거나 병원예약을 했을 경우...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져 맛있는 식사를 하게된다. 물론 입맛은 짧아져 많은 양의 음식섭취는 불가능하다.

평소 잘 먹던 매운음식은 너무 자극이 되어 섭취를 못하게 되고, 위.장 모두 망가진 상태여서 변을 볼때면 너무도 고통스럽고 설사가 아니면 변을 볼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매운 음식이 혀에 닿으면 평소때와 다르게 몇배는 더 매운맛을 느끼게 된다. 프로포폴이 내 혈관에 들어가면 나는 입버릇처럼 사람들을 대할때 거짓말들을 하게된다.

그리고 모든 대화속의 나는 자신감 충만하여 뭐든 다 할수있는 용기가 생긴다. 하지만 꼬였던 혀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외롭지만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만약 만난다 하여도 잠은 안오지만, 자고 싶어지고 대화하기가 귀찮고 말을 건네오면 대답도 하기 싫을 만큼, 짜증과 예민한 성격으로 좋은관계는 어렵다.지독한 " 대인 기피증 "

직장에는 출근을 하지않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따위의 주사를 맞고... 내일은 꼭 출근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내일 또 내일 하며 미루게 된다. 무기력함으로 다른 생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내 머릿속은 프로포폴 생각 뿐이었고... 마음, 생각, 행동... 모두가 작아진 어린아이가 되었던다. 책임감은 당연히 사라지고 그러다 모든 현실과 상황,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자... 나쁜생각까지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죽지못해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했던.. 시간들.. 그래서 더 더욱 프로포폴에만 의존했다는 내 과거들... 즐거움이란 프로포폴이 눈 앞에 보여졌던 그 순간 하나뿐이었는데 이 모든 마귀의 조종같은 것들이 오늘(2012년 9월 14일 금요일을 기해...) 61일만에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사라진 것이다.

가평중앙교육원 교육의 목적 ' 문득문득 생각나, 맹송맹송 잠안와 ' 는 것을 척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중독증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누군가 유혹하고 스트레

스.. 주사주는 병원... 즉 인간바이러스까지 완전하게 척결하지 못하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은 또 실패할 수 있다.

지난날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아닌 가엽고, 안타까운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이젠 그 마귀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나와는 먼 거리의 사이가 되었고, 함께 지낼 일, 또 병원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으로 큰 다행이다.

“어젯밤(2012. 9. 13. 목) 나의 수면상태...”

무척 양호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한 편안한 자세로 눕게되면 그때부터 수면에 들어 가게 된다. 이젠 정말 과거의 불면증 (맹송맹송 잠안와)은 사라지고 건강한 수면 상태다.

어제밤 가평중앙교육원 황토수면공동체험관1실에서 아주 따뜻하게 숙면을 취했다. 황토는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는 카타라아제 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잠자는 황토방은 치료, 재활의 교육 장소이다. 이것 또한 가평중앙교육원 뇌깨우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뇌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동안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주사맞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나의 체내에 투여되었기 때문에 뇌기능 등... 정신건강 ㅋㅋㅋ 그건 프로포폴을 끊었었다고 해도 단약 후, 찾아오는 우울증 등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밤 황토수면공동체험관 1 실에서 나의 수면상태를 점검한 (불침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도 내가 말씀 드린대로 수면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말씀하셨다.

일주일 전... 집에 도착... 아직도 집중력이 부족했는지 차문을 열면서 실수로 차문에 바쳐 나의 젖가슴부위 충격으로 파스를 붙여놓은 상태다. 그리고 있어야 될 생리가 아직 없다. 필로폰에 중독된 빠꾸기처럼 생리가 있을때를 기다려진다.

" 7일간의 출.퇴근 출석수업... 가족들이 나를 지켜 본 시각 "

나는 45일간의 합숙교육에 이어 7일간의 출.퇴근 (출석수업) 61일간의 교육을 통해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집에 귀가하게 된다. 당연히 가족들은 내가 또 병원으로 달려 갈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병원에 가보고 싶은 마음

이 없었다.

내가 잠이들면 나의 엄마" 예쁘다" 고 하며 천사같이 잔다고 하셨다. 나의 동생도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밤새 잠을 자고 이튿날 가평중앙교육원에 떠나는 것을 보고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7일간의 가평중앙교육원과 집에서 잠을 자고 자가교육까지 성공한 결과였다. 그러나 나는 교육유무를 떠나 나 스스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나의 정신혁명을 확실하게 완수 할때까지... 아니,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평생교육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Phendimetrazine (팬디트라진)

팬디트라진은 (Phendimetrazine)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다 "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이다. 품명은 팬디트라진이고, 화학명은 (+)-3,4-dimethyl-2-phenylmorphine)이다.

제62일차 (2012. 9. 15. 토)

“나는 빠른 회복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주, 차 문을 열다 쇠골뼈 및 부분을 실수로 근육의 충격을 받아 부종과 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외퇴진료를 받아 X-ray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마약중독등으로 보통사람보다는 타박상 회복의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이다. 프로포폴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날 (2012. 7. 12. 목) 어느 신고자 (나의 생명의 은인)로 인해 귀한 나의 생명을...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신 판사님의 배려... 가평중앙교육원을 찾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통해 아주 빠른 회복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젠 더이상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는 겪고 싶지 않다. 지금 나의 근육 타박상의 증상은 심호흡을 통해 큰 웃음, 큰 숨... 여러가지 등등등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많이 아파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환경을 접할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 만으로도 난 너무도 감사하다. 아니, 내게 있어서는 아주 큰 세상, 환경이다. 하지만 다른 것 모두 참고 견딜수 있지만 가장 참기 힘든것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대화속에서 크게 웃으면 근육에 통증이 크기때문에 웃지 못한다는 점... 그 것이 참 아쉬울 뿐이다. ㅋㅋㅋ 그래도 뼈에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다. 난 복받은 귀한 인간이다.

제63일차 (2012. 9. 16. 일)

뜸부기 “프로포폴 중독증 제거에 성공한 사람으로 가고 있다”

정말 몇개월만에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일이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제는 나의 많은 변화로 인해 사람들을 접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다. 프로포폴 중독증에 시달렸을 때와는 달리, 아주 우렁찬 음성으로 찬송가를 부르게 되어 나의 표정과 목소리가 무척 밝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고, 이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마귀의 약 따위를 이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나 많이 변했다.' 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 나 " 단약의 성공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자신감이 더 커졌다. ㅋㅋㅋ 너무 좋다. 하지만 절대 교만하지는 않아야 한다.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지금 정신상태,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잘 살아 볼 것이다. 이젠 정말 희망의 미래가 소망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64일차(2012. 9. 17. 월)

오늘은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에 오셨다. 지난주 금요일 (2012, 9,14,금)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대추나무 주위 불필요한 나무와 잡초들을 제거하다 늙은호박을 무려 6개 정도를 발견하여 오늘 저녁식사는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직접 참쌀과 늙은호박을 곁들여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표 호박죽'을 해주셨다. 너무도 맛있는 호박죽...최고였다...



뜸부기 “잡초 제거 대추나무 살리기” 호박 6개 발견

아~ 정말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의 자연속에는 없는것도 없고,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 또한 못하시는 음식도 없으시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노철환 밥 평생교육사님... 밥교수는 마약류 중독에 의해 나빠진 가평중앙교육원 식용식물 시음 지도교수를 뜻한다.



가평중앙교육원 영농학습 체험을 위해 심은 호박을 따오셨다.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호박죽을 끓이셨다... 호박을 삶아먹으면 마약중독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졸피뎀 (Zolpidem)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제인 비 benzodiazepine 계열 수면제로서, benzodiazepine 가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 중 3가지 모두의 w-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에 비하여 zolpidem 은 w1-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특이성으로부터 항불안효과, 항경련효과, 근이완효과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며 품명은 zolpidem 이다.

화학명은 (Methy-4-phenyl)-12N,N,6-trimethylimidazo(1,2-a) pyridine-3-acetamide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4 호 " 라 " 목 제 2 조 3 항 관련 향정이다. 아 ㅋㅋㅋ 이런것도 잘쓰면 약 ... 잘못쓰면 독약이다...

제65일차 (2012. 9. 18. 화)

“나는 가평중앙교육원에 새로운 텃밭을 만들었다... 너무 예쁜 농장”



뜸부기가 만든 예쁜 배추밭...

어제밤 취침시간을 맞추어 황토수면공동체험관 1 실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니 나의 몸은 역시 아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산바 태풍도 이미 지나갔는지 새들도 "찍찍찍" 노래하는 가평중앙교육원의 아침은 맑은 가을하늘을 뒤흔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마약범죄학박물관 앞쪽에 있는 밭을 일구고 테두리에는 밭을 일구다 발견한 돌들로 마무리를 지으니, 마치 만화속에 나오는 밭처럼 너무 이뻐다. ㅋㅋㅋ 그 밭에는 어떤 식물을 내 손으로 직접 키우게 될지 기대가 된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루테치마이드 (Glutethimide)= 도리덴 (Doriden)

품명은 Lorazepam이고, 화학명은 (7-chloro-5-(o-chlorophenyl)-1,3-

dihtdro-3-hydroxy-2h-1,4-benzodiazepin-2-one)이다. 로라제팜은 아티반이라는 상품명 이외에 10여가지 상표명이 있다. 아티반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 " 다 " 목 제 2 조 3 항에 관련 향정약물이다.

디아제팜 (Diazepam)이라는 향정은 억제제이다. 이 향정의 약효는 신경안정제로 불안, 초조, 우울증, 불면증, 경련, 수면유도에 사용되는데, 적정용량 초과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투약하면 쉽게 의식을 잃는다.

글루테치마이드는 진정제인 바르비탈류와 유사한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는 최면약이다. 약은 약사에게 필요한 만큼... 진료는 의사가... 단기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남용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알코올과 병용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지나친 진정작용, 시각장애, 동공확대, 메스꺼움, 구토, 혼란, 발진, 호흡억제, 운동실조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도 각 근육간의 조화장애로 인해 일정한 운동을 할수 없는 증상) 등이 있다. 과용시에는 호흡기 및 심장혈관 작용을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쇼크, 혼수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장기 부용할 경우 중독성을 일으키는 금단증상은 바르비탈류와 유사한 불안, 심한 쇠락감, 불면증, 간질발작, 섬망 (외부세계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망상이나 착각이 일어나는 증세), 쇼크 등이 있으며 이 역시 치명적일 수 있다.

도리텐은 진정제인 바르비탈류와 유사한 의료용 약물로 심리적 불안, 긴장해소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처방약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 및 육체적 의존성이 생기고 바르비탈류와 유사한 금단증상도 나타내어 중독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66일차 (2012. 9. 19. 수)

입교 후 66일만에 끊어진 생리가 조금 보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어제 일궈낸 밭에 가을배추를 심었다.”

배추 새싹들이 어찌나 이쁘던지... 아기처럼 배추 색도 깨끗한 연두빛을 지녔고, 함부로 만지면 다칠 것 같아 아주 조심조심히... 다루어 나처럼 '평생' 가평중앙교육원에서 건강히 살수있도록 정성껏 심어주었다.ㅋㅋㅋ 오늘 내가 한 일 중 하나... 여러 식물들의 생명을 평생동안 무럭무럭 자랄수 있게 보금자리에 심어준 것... 마치 엄마가 되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한 듯 아주 뿌듯했다.

그런 후, 마약범죄학박물관, 동영상실 유리를 깨끗히 닦고, 창문나무틀에 나무색 페인트를 발라 마약범죄학박물관 외부를 이쁘게 마무리 지었다. 오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나, 가평중앙교육원이 더 멋지게 변화되어 기분이 아주 개운했다.



(가평중앙교육원 농장에 있는 식용식물 천궁등 냄새는 뇌를 맑게 해주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카마제팜 (camazeoam), 플루라제팜 (Furazepam)= 일종의 달마돔이다. 품명은 camazeoam 이다. 화학명은 (7 - chloro - 1, 1 dihydro - 1 - methyl - 5 - phenyl - 3 H - 1 , 4 - benzodiazepin - 2 - one) 이다.

카마제팜은 상표명은 제약회사에 따라 여러가지 상표명이 있다.

이와 유사한 플루라제팜 (Furazepam) 이라는 품명이 있다. 화학명은 (7 - chloro - 1 - 2 - (diethy lamino) ethyl - 5 - (0 - fluorophenyl) - 1, 3 - (dihydro - 2 H - 1, 4 - benzodiazepin - 2 - one) 이라 한다.

이는 경동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달마돔이라는 상표명을 가진 향정이다. 카마제팜은 신경안정제 또는 신경쇠약자들의 수면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 투여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제67일차(2012. 9. 20. 목)

“눈감고도 외다리타기 성공... 진짜 프로포폴 중독증에서 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도 깊은 숙면에 가벼운 몸으로 가평중앙교육원 연병장에 나아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축구도 하고 마약범죄학박물관 내부도 한바퀴... 두바퀴 돌고, 외통나무 눈감고 건너기... 를 시도해 보았다. ㅋㅋㅋ 난 3차례에 걸쳐 중간에 눈 한번 뜨고 통과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나보다 집중력이 뛰어나서 몇차례를 거쳐 눈감고 외통나무 건너기에 성공했다. 마치 심청이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어선지 오늘 눈감고 외통나무를 건너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 너무 멋지셨어요 " ㅋㅋㅋ

오늘 가평중앙교육원 외부가 아주 편안해보였다. 맑은 가을하늘에 따스한 햇볕, 선선히 불어주는 바람, 예쁘게 잘 자라주는 고추, 파, 배추 등등등 하얀 나비 하나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트리아졸람 (할시온정, 트리담정, 졸민정, 트리졸정, 나리온정)

품명은 Triazolam 이다. 화학명은 (8 - chloro 6 - (0 - chlorophenyl) - 1 - methyl 4 - H - s - triazole (4, 3 - a) (1, 4) benzodiazepine) 이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 " 라 " 목 제 2 조 제 3 항 관련 향정이다.

현재 이 수면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한국업존 (할시온정), 환인제약 (트리람정), 명인제약 (졸민정), 백준제약 (트리졸정), 대광제약 (나리온정) 등 5 개 업체이다. 트리아졸람은 고령자나 간질환자의 불면증 단기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유도제이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관련 두통, 운동불능증, 우울증에 비롯하여 정신 착란,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우 제한된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 오남용은 금지된 약물이었다.

제68일차(2012. 9. 21. 금)

“어제밤 취침시간을 맞추어 바로 눕자마자 깊은잠에 빠져 기상시간보다 늦잠을 잤지만서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약속시간 (출석수업)은 정확히 지켰다. 출.퇴근 (출석수업) 을 할때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약속시간 (출석수업) 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나의 하루의 최우선적으로 시작한다.

" 오늘 출석수업 68일만의 나의 건강상태 점검 " 내용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심사숙고하게 체크하셨다... 불합격시 나는 수료하지 못한다.

1. 멍송멍송 잠안와에 대해...

잠자기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면 바로 잠이들었다 ' 멍송멍송 잠안와' 는 두 달이 넘게 경험하지 못했다. 그건 옛날이야기였다.

2. 문득문득 생각나에 대해...

지난 프로포폴 투약 시절을 떠올리게 되면 그때의 마약중독자가 너무 가여운 생각으로 멈춘다. 이제 프로포폴 하고싶은 생각은 밀려오지 않는다.

3. 인간 바이러스 척결에 대해...

지난 인간 바이러스들과의 연락, 관계를 끊은 상태이다.
두번 다시 연락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4. 잘먹고, 잘자고, 잘 싸는 거(대소변 캐변) 에 대해 ...

보통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먹고, 잘싸고, 잠 잘잘것이다. ㅋㅋㅋ. 의사들이 처 놓은 프로포폴의 덩에 걸려 몸부림 쳤던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완전히 멀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잠도 너무 잘자고, 프로포폴에 치가 떨릴만큼 정이 떨어져 '문득문득 생각 나'는 프로포폴에 대한 미련은 내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5. 오른쪽 귀 다친데 대해... 달팽이관이 재생되어 반대편 귀를 막아도 들린다. 반 귀먹어리었던 내가ㅋㅋㅋ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생활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듯하다.

6. 우울증, 자살충동증, 조종등, 잡생각에 대해...

지금 나는 마약중독증 환자가 아닌, 이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아직 중환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금 가평중앙교육원에서의 교육이 내게는 너무도 잘 맞는 교육방식과 환경이 갖추어져 더이상 바랄것도 없을 만큼 너무도 편안하고 행복하다.

현재 나에게는 지난과거와는 다르게 마귀의 조종도 나의 정신에서 떠났다. 가평중앙교육원 지도교수님이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많은 배려와 지도, 교육방침들 그리고, 나와 아주 적합한 환경으로 잡생각까지 떨쳐버리게 되었다. 생리(월경)가 끊어진지가 1년이 지났는데... 생리가 조금 보였다. 그것 역시 환경에 의한 자연치료였다. 내 병은 나만이 안다. 나의 육체적 정신상태 점검결과에 대해 전경수, 노철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말씀드린 내용이였다. 그것은 기적도 아니다. 치료도 아니다. 라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말씀하셨다.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 교육목적 ' 맹송맹 송 잠안와, 문득문득 생각나, 인간바이러스 척결을 위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 돌, 흙, 바람 등 자연환경도 중요했지만 뜬부기 자신의 노력한 결과라고 칭찬하셨다.

밤이면 황토수면공동체험관에서 뇌기능 회복, 식용식물시음등,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시음 등 그 중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소위 바위가 오줌을 싼다는 "석하강 응 몽유수" 가평중앙교육원 지하암반수에서 솟아난 알칼리수였다. 논두렁에서 진짜 뜬부기가 맑은 물을 좋아했듯이... 가짜 뜬부기인 나 역시 지하암반 알칼리수를 먹고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망가진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중독증 제거에 성공 할 수 있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마약류 식별과 예비감정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양한 성분들의 물질들에 대해서는 감정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향정약물 중 일부 성분들에 대해서는 아큐사인 등 몇가지의 예비검사시약이 있다.

이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각제, 엘에스디(L.S.D)는 갈색추자병 관차단 용기에 채취하며 , 생체시료인 "뇨"는 72시간, 메스칼린은 흡입 후 24시간 이내에 채취한다.

아울러 수면제, 신경안정제, 전자와 유사한 채취방법으로 의뢰한다. 간이시약검사는 마약사범 수사에서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실시하는 검사에서 검사결과는 재판에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효율적인 마약사범 수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학수사 방법이다. 그러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일 때에만 증거로 채택된다.

현재 사용되는 소변검사 키트는 미국에서 제조된 아큐사인 (Accusign)이다.

감정절차 : 압수 마약류 , 모발 : 시료채취-감정의뢰- 정밀감정- 감정결과통보

소변 : 시료채취-아큐사인검사 - 감정의뢰 - 예비감정- 정밀검사- 감정결과통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탄생시킨 마약범죄학 총
5권

소변감정은 예비감정과 정밀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예비감정결과는 2 시간 이내 확인 가능하거나 다른 유사약물에 의한 의양성 (疑 陽 性) 가능성으로 예비감정에서 양정으로 판정된 소변은 정밀감정을 실시한다.

의양성이란 예비감정결과는 양성이고, 정밀감정 결과는 음성인 경우를 말한다.

투약자 감별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아큐사인에 대해서이다. 증거확보 방법인데 투약자 소변 예비 실험 방법이다. MET (필로폰투약자), THC (대마흡연자), OPI (마약투약), COC (코카인 투약), AMP (암페타민), Ecstasy (MDMA), 아큐사인 시약을 활용... 사용방법은 플라스틱 피펫으로 3~4 방울의 소변을 샘플 윈도우 (S) 에 가한다. 주요 마약류의 약물 대사시간이다.

필로폰, 초심자 2~3일이내, 중독자 5~7일이내, 대마 초심자 7~10일이내, 중독자 5~7일이내이다.

* 초심자는 통상 1~3회 투약 한 경우

* 개인의 약물대사 능력에 따라 개인차 있음.

마약은 체내에 들어가면 고유한 약효를 나타낸다. 체내에 유입된 마약성분은 대사 작용을 거쳐 마약 성분의 고유한 대사체가 생성된다. 생성된 대사체는 소변, 모발, 땀, 침, 손톱, 발톱 등의 경로를 통하여 배설되고, 그 중 소변으로 전체 약 70% 이상이 배설된다.

소변감정은 피의자의 소변중에 함유되어 있는 마약 성분 대사체의 종류와 양을 감정하여 마약류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마약 성분의 이내에 소변을 채취해야 한다. 소변감정으로는 복용한 사실은 알수 있으나 복용량, 복용빈도, 복용시기 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대마 성분 감정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고 연기에 노출된 경우에 소변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 될 수 있다. 아편 성분 감정에서 양귀비 씨앗을 복용한 경우에도 소변에서 성분이 검출 될 수 있다.

사람 몸에는 털이 있으며 부위에 따라 머리털, 음모, 겨드랑이 털, 체모로 구분되며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모발이라고 한다. 모발감정은 주로 머리털을 사용하여 감정한다. 그러나 대검찰정에서는 MDMA 엑스터시 복용자에 대한 모발감정기법을 개발하여 활동중에 있다. 프로포폴 중독자였던 내가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을 배웠다.

제69일차(2012. 9. 22. 토)

“난 오랜만에 귀가하여 여유있게 즐겼다”

가평중앙교육원의 5일 근무로 인해 토요일인 오늘 서울에 있는 집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오후 썸... 블랙커피 (아메리카노) 를 마시러 집에서 2~30분 거리의 되는 시내에 까지 나아가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였다.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병원에서 수면마취에 덜 깨어 좀비처럼 병원밖을 나가야 하는 시간대였던... 이 시간에 난 아주 건강하고 밝은모습으로 바쁘게 걸어가는사람들, 커플들, 이런저런... 여러사람들을 구경하며 아주 오랜만에 여유를 즐겨보았다. 아~ 정말 이제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뜸부기의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나빠진 뇌기능 회복 산림수목 음이온 산호호흡 체험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ㅋㅋㅋ)

제70일차(2012. 9. 23. 일)

시간 참 빠르다.

벌써 70일째 !!!

오후 2시쯤 시계를 보았을때에도 " 벌써 2 시 " 를 외칠 정도로 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흐른다. 지날 날 ... 하른 거 없이 시간만 빠르게 지나가고 수면마취로 마약 (프로포폴) 중독에 이르렀을때에는 낯짜, 시간에 대한 모든 개념은 상실한 채 오로지 마약 (프로포폴)만 떠올렸었다.

하지만 2012년 7월 17일 가평중앙교육원에 정식으로 입교...를 한 내 나이 34세 ... 지금에서야 비로써 목표를 향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난 프로포폴중독 증으로 건강, 친구, 돈 .. 할것없이 모조리 다 잃었다. 목숨까지도 빼앗길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었던 난 프로포폴과의 인연을 끊고 이제서야 편안히 숨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 단약이란 새 삶을 살수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이다. 어찌 보면 프로포폴을 끊고 사는데 말처럼 쉬운일이 될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팽장한 심한 고통일수도 있고...

뭐든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포기, 결심, 정이 떨어질때로 떨어진 지금에서야 난 이제야 자연스럽게 단약에 성공하는 것 같다. ' 성공 ' 이라는 단어 ... 나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꼭 평생동안 단약을 지킬 것이다.

제71일차(2012. 9. 24. 월)

“서로가 만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킨다. 그런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소식이 끊어졌다. 비상사태 발생”

오전 9시... 토요 외박후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의 약속 (출석수업) 장소가 엇갈려 우리는 한시간의 시간동안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엇갈린 장소에서 교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오시지 않는 교수님이 어찌나 기다려지고 약속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걱정이 되었었는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길 기도한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마약의 저장

동법시행규칙 제 26조는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의약품의 저장 장소가 별도로 구획된 곳에 저장할 것.
2. 마약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3. 마약 저장 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 일 것. 동법 시행 규칙 제 27조는 법 제 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 함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 상황보고서 또는 생산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 37조는

- ① 법 제 27조, 법 제 29조 및 법 제 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 매입자.마약류 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 39호 서식에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 ② 법제 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 취급학술 연구자는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 까지 별지 제 40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 몰수 마약류의 인계

동법시행규칙 제 41조는 법 제 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4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동법시행규칙 제 49조에 있어서

- ① 법 제 5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더라도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 49호 서식에 의한 마약류 인계서를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제 1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 50호 서식에 의한 인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피곤하신 틈을 타 공부를 하지않고 나도 오랜만에 깊은 낮잠을 잤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 뜸부기 " 하시며 깨우시고 " 놀러가자 " 하시며 청평에 있는 병천순대국집에서 순대국을 사주시고 목욕요법 프로그램인 사우나를 찾았다.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은 정서불안 등 근심,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럴때마다 불안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러기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남탕에 따라 들어가려다가 되돌아 나왔다.ㅋㅋㅋ 기러기는 장난끼가 있다.

사우나를 유난히 좋아하는 나는 천국을 만난듯 찬물, 뜨거운물을 왔다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소금방에 들어가 소금으로 마사지도 하고...ㅋㅋㅋ 그러던 중, 저기 보이는 아주머니... 등의 때를 미시는데 어찌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순간 나는 '오늘 착한일 해야지' 다짐하곤 바로 달려가 등을 밀어드리고... 소금방에서 소금을 몸에 바르던 중... 또 한분의 아주머니께서 등장... 등에 소금을 발라드리면서 간단하게 어깨와 목도 주물러 드렸다.

나하나 조금만 희생하면 여러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배운 것 중 하나이다. 가평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중... 목욕요법을 마치고 우리집과 다름없는 교육원에 도착하여 식구들께 전화를 드렸다. 몇시간 되지않는 시간이었는데 연락이 없어 많은 걱정을 한 식구들... 이제는 프로포폴 맞기 위해 병원에 가는것 잊은지 오래고, 갈 곳도 없는 나를 왜 걱정하는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서도, 괜한 걱정을 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있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가족들의 걱정한 것을 대화하다 알게된 정답은 나에게 대한 가족들의 ' 잠재적 피해의식 ' 이었다. 이를 어찌... 너무 미안하다 ㅋㅋㅋ 분명 내가 교육원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잠재적 피해의식으로 상처를 받은 가족들은

생각하니... 나 더 노력하여 착하게 살아야한다.

지난 2개월전...

사실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후, 3일만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졸라 귀가를 하고 3일동안의 귀교를 또 늦추어 고민과 계획끝에 내동생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훔쳐 강남으로 향한적이 있었다. 한 시간을 넘게 달려간 병원에서 결제를 하려 동생 카드를 내밀어... 병원직원이 리프팅시술 비용을 계산하는 순간...

" 한도 초과 인데요 ..."

혈 ~ "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

" 한도초과 맞는데요 ... "

" 그럼 5만원 빼고 25만원 해보세요 "

" 안되는데요 ..."

" 그럼 20만원 해보세요 "

" 안되는데요 "

" 그럼 10만원 ..."

신경질내며 " 안됩니다 . "

혈 ~ 노심조차 내동생 카드를 훔쳐 강남에 잇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 시도... 실패... 비단 중독된 상태이지만 돈이 없어 실패 한 것이다.

평소 내가 이병원에서 단골 VIP 취급을 받을정도로 많은 돈을 썼는데...내가 의사들에게 알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게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 그때 나는 다시 외박을 끝내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계시는 가평중앙교육원에 다시 입교했다. 그때 외박기간 있었던 " 한도초과 " 카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그 당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얼굴을 뵈면 면목이 없었다. 그러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 그게 중독증이라고 하셨다. 당연히 그럴수있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잔정과 사랑을 베풀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후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진짜 아빠라고 불렀고, 집에 계신 친아버지를 가짜아빠라고 불렀다. 내가 집에 가면 엄마가 하신 말씀이다. 가평에 있는 진짜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하셨다.



(뜸부기... 가평중앙교육원 영농체험학습 농장에서 첫 호박 수확)

교육프로그램 과목 중 " 투사 (投 射)" 라는 용어 개념... " 투사 " 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생각하면 나쁜길로 가지않고 되돌아 오는 정신의학적 용어 라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였다. 신경전달물질...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되어 도파민, 엔돌핀이 프로포폴투약을 중단 하는 것이다. 우울증, 조증등 정신병적인 태도를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치료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투사"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베푸신 특이한 교육프로그램중 중요한 과목이었다. 그것을 정신의학 용어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하지않아 내 동생이 너무 걱정했나봐... 내동생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확인 전화를 드렸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 뜸부기기 강남으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내동생은 교수님이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짐작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하신 말씀이다. "

뜸부기 날지 못합니다. 뜸부기기 제 집이 가평중앙교육원인데 다른데 가지 못합니다. 뜸부기 진짜아빠는 가평중앙교육원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 여튼 교육을 통해 우리 가족들도 프로포폴 중독증에 걸려 중증환자인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너무도 고마웠다.

제72일차 (2012. 9.25.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춘천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을 다녀왔다.”

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모시고 교육원 차량을 내가 직접 운전해 보았다. 프로포폴에 취했을때 앞이 보이지 않고 빠르게 속도를 내었는데도 수시간을 달린 것과는 기분이 달랐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나선 것으로 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내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먼 미래까지도 단약을 하겠다는 나를... 무척이나 기뻐하실 교수님을 생각, “투사” 내가 배운대로 꼭 보답할 것이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2편 제3장 공부한 내용...”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행하게 되면 국가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게 되는데 범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 필요하게 된다. 즉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또한 그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실체법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범인을 수사, 기소, 심판하고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형법의 적용 및 실현, 즉 국가형벌권 행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을 규정하는 법률을 형사소송법이다. 민법상의 권리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떠나서도 실현될수 있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은 형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행할수 없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는 민법과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보다는 한층 밀접하여 두개의 법률체계가이면서도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공법 (公法), 사법법 (司法法), 형사법 (刑事法), 절차법 (節借法)에 속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혐의의 진부 (眞否)를 명백히 하며 범죄를 진압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다시 실질적 목적과 형식적 목적으로 나눈다.

실질적목적은 소송의 실체면에 관한 목적으로서 소송의 객체인 범죄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 형벌법령의 적정.신속한 적용 및 실현에 있다. 여기서 특히 요청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과 처벌의 확실성이다.

형식상의 목적은 절차면에 관한 목적으로서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 이 두가지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임무인 도시에 기본이념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인데,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보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도 무죄추정의 법라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된다. (刑 事 訴 訟 法 의 法 阮) 형사소송법의 법원 :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되어야 한다.

헌법 제 11조 ① 항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형사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며 명령이나 관습법등으로는 형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주요법원으로는 헌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비용법, 형사보상법, 조세벌처벌절차법, 관세법, 사회보호법 등을 말한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생소한 법학, 법률용어였다. 법의 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조치를 받는것도 이유중의 하나인 것 같았다. 법을 알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될수있다는 소감이다.

제73일차 (2012. 9. 26. 수)

“화장실 한번 안가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기상시간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뜸부기" 하시며 나를 깨우시는 동시에 "네" 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

어찌나 잠이 꿀맛인지... 아무꿈도 꾸지 않고 편안한 밤이었다. 천연지하암반 알칼

리수 한컵을 들이켜 마시고 마약범죄학박물관로 향해 가는 길에 연병장에서 외통 나무건너기부터 해서 아침체조를 마치고 연병장을 한바퀴 돈 다음 빗자루를 들어 여기저기 할 것없이 쓸며 청소를 한 오늘... 세수를 하는데 콧구멍부터 입속까지 황토먼지가 들어가 씻는도중 깜짝놀랄만큼 많은 양이 나왔다. ㅋㅋㅋ 이것이 열심히 청소한 증거이다.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는 것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이라는 것도 알았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3편 제1장 공부한 내용...”

- 진실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 적극적인 면 -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 소극적인 면 - 죄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

형식적 진실주의 - 당사자 처분주의 (민사소송)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여부 또는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소송의 실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진실인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주의로서, 민사소송에서 채용되고 있는 형식적 진실주위에 대한 개념이다. 실질적 진실주의는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근본적인 지도이념이다.

형사소송의 기능 작용의 양면성(作用 의 兩面性)은 적극적 작용과 소극적 작용이 있다. 적극적작용은 모든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작용이다. 소극적 작용은 죄없는 자를 유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작용이다. 소송구조, 룹법계에서는 주로 실체적 진실주의의 적극적 작용이 강조되고, 영미법계에서는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소극적 작용이 중시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소극적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같았다.

제 74일차 (2012. 9. 27. 목)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어제 내어준 숙제”

다쳤던 가슴치료와 어제는 일찍 외박하고 오늘 오전 귀교했다. 가평중앙교육원까

지 지하철을 타고 내려 걸어서 출석하기로 하셔서 상봉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도착역에서 내리려 하던 중 앞자석에 앉은 의심스러운 아저씨 ... 웬지 내가 내리면 따라 내릴 것 같은 불안감... 같은 느낌이 왔다. 그래서 내리지 않는척 하다 '문이 열리면 내려야지' 하고 문이 열리자 내가 내리니 그 아저씨 역시 앉아있다 뒤따라 내리시더니 내게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 나는 내 예감과 같이 반응하던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 다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니 문이 바로 닫쳐... 다행이 그 무서운 아저씨를 따돌릴 수 있었다.

나는 다음역까지 가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갈아타 도착역까지 올수 있었다. 도착역 입구까지의 나의 불안한 오만가지 생각... '설마 그 무서운 아저씨가 기다리진 않겠지' '내가 다시 이 역으로 올거라곤 생각 못하실꺼야' ㅠ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다행이 그 무서운 아저씨는 없었고, 난 도착역에서 가평중앙교육원까지 향해 걸기 시작했다. 무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걸어오던 때에 그리 덥진 않았지만 도로에 차들이 '썹썹' 달리긴 하였어도 도로의 거리가 얼마되지 않았기에 도로를 금방 지나올 수 있었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걷기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건 처음이었지만 그리 낯설지도 않았다.

하지만 혼자 걸어오는 시골길이 내게 조금 무서운 길이었다. 요즘 세상에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어 나혼자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난 조금은 먼거리에 가파를 오르막길까지 무사히 통과하여 멋지게 가평중앙교육원 소문 (개문) 을 열고 현관문까지 열어 교육원 도착... 170M에서 부터 쏟아져 나오는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로 시원하게 목을 추기고 머리부터 흐르는 땀을 씻어내고야 내게 주어진 숙제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3편 제1장 공부한 내용...”

- 탄핵주의 - 국가 (國 家) 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사인 (私 人) 소추주의 - 피해자 소추주의
- 공중 (公 衆) 소추주의
- 규문주의 - 이 제도는 프랑스 혁명 후 없어짐.

탄핵주의는 재판기관인 법원이 재판기능 이외에 자 원고의 소추에 의하여 재판정차를 개시하는 주의로서, 소추기능의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써 스스로 심리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규문주의 (糾 問 主 義) 대립되는 개념이다. 탄핵주의에 의하면 소송의 당사자의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소송주체는 법원, 검사 및 피고인이다.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탄핵소추주의에는 첫째, 국가기관이 소추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국가소추주의와 둘째, 사인소추주의가 있는데 다시 이에는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을 원고로 하는 피해자 소추주의와 일반공중이 원고로 되는 공중 소추주의가 있다.

현대의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탄핵주의 즉, 국가소추주의 내지 기소독점주의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추권을 독점하는 제도) 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개시할수 없고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한하여서만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불고불리 (不 告 不 理) 의 원칙이라고 한다. 재판상 준기소절차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되어도 탄핵주의에 예외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 야간 공동지도학습시간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내용...”

* 마약류등 중독성물질 복용 후 임신, 출산아의 경우에는 - 기형아, 자폐적아이, 후천성 또는 선천성 DNA , 닳아서 태어남. 그리고 마약중독증환자들은 정상인이 아니기에 정상인을 대하듯 하면 아니되므로, 말...과 모든면에 자기편에 서주고 (지지요법) 이해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비웃지 말고... (기뻐함) 그렇지 아니하면 중독자는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내고 폭발하게 되고 분노한다. 모든 마약중독자들은 도와주어야한다.

마약중독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주어 치료해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가 중독자를 발견하면 신고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의사들이 프로포폴마약을 주사하며 되레 중독자를 만드는 세상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의료기관 마약류 중독자 발견 미신고 처벌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다. 처벌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소유예,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은 하되... 강제 구금장소인 정신병원 교도소가 아닌 자유로운 곳에서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마약을 끊고 몸과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가

평중앙교육원 교육의원리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라고 했다.

- 런 (run) 흥행 또는 잔치 binge 라고 한다. 이 기간동안은 잠이 오지않고 밥 맛도 없고 흔들린다. 마약을 계속 했을때이다. 그래서 잠이 오게 하려고 바르비탈 계 (수면제계통) 약물을 사용한다. 잠이 깨면서 환각상태는 사라지나 나른함과 허기와 허탈, 공허감 때문에 반복한다. 또한 황홀감 (rush) 라고도 한다. 그리고, 교환상태 여성을 여러명을 두고 돌려가며 성행위라고 불리는 서와핑이 마약중독자 중 특히 필로폰 중독자들의 심리라는 것도 알았다.

-베드트립은 정신질환이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보함을 타내는 음모를 들었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자기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것을 두고 중독의 의한 피해망상형 정신장애이다. 완치 되어도 스트레스는 과음에 의한 환각망상증이 되살아나 주변 인물들을 괴롭힌다.

-컨택트하이 는 마약중독자가 중독자끼리 이야기를 시키면 그 이야기에 도치되어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도 환각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교도소에 새로 입감한 마약중독자와 새로 눈이 마주치면 마약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호나각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은 동종의 마약투약자는 함께 교육을 하지않고 1 : 1 교육이 원칙이었다.

플래시 백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약물로 약이 된 경험이 일시적 또는 자연적으로 재연되는 것을 말한다. 플래시 백 현상은 시각적 외곡, 시간의 확대감, 신체적 증상, 자아경계선의 상실 또는 강렬한 감정의 느낌이 삽화적으로 나타나는데 대개는 수초에서 수분가량 지속되지만 그 이상 계속되는 수도 있다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강의내용... 이러한 것이 중독“증”인데 ... 내가 프로포폴에 중독 되었을때 겪은 것과 일치 되는 것도 있었다.

제 75일차 (2012. 9. 28. 금)

내가 프로포폴 중독증을 제거한 것은 알고보니 바람, 물, 햇볕 조화로운 환경... 마약범죄학,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적용한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재발방지 평생교육 “NK 세포 3구 3잘 3안 3재교육”이었다.



(나 뜬부기가 개간한 예쁜 채소밭에서...)

오전 7시 기상시간인데 6시 40분에 눈을 뜨고 아직 20분이 남은지라 다시 잠을 청했다. 많은 약물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인한 후유증 “간”기능의 증상 때문인 것 같았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나를 깨우셨다. 마치 서울집에서 엄마가 나를 깨우는 방법 중 한가지와 비슷했다. 사랑으로 대해주신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

“오늘 오전 강의와 더불어 내가 공부한 마약범죄학 제2권(향정범죄론) 제3편
제2장~제6장 공부한 내용...”

-형사소송의 주체에 대한 요점...

소송주체 - 법원 (심판을 하는 자)

- 당사자 (심판을 받는 자) - 검사

- 피고인

소송관계인 - 당사자 (검사.피고인).대리인.변호인.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사법
경찰관

-증거에 대한 요점...

증거방법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 직접증거.간접증거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 - 인적증거.물적증거.증거서류

증거능력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 원시증거.전문
증거

증명력 (증거의 사실적 가치) - 보증.반증.보강증거

해소법에 대한 오늘의 공부는 이정도...

추석을 앞두고 나는 (뜸부기) 외박 간다.... 가짜아버지 (친 아버지) 가 계시는
집에 간다. 진짜 아버지가 없는 " 집 " 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장애... 또
약이 밀려오면 나는 다시 가평중앙교육원으로 신속히 날아와야 한다. 전경수 재발
방지교육사님의 강의 내용... 부대반응, 적적요요, 36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중 가장 중요한 36개 원칙 ... 이라고 하였다. 즉, 중독증이 또 찾아오면 36개 도
망치듯이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

제 77일차(2012. 9. 30. 일)

“가정의 소중함...” 나는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따뜻한 가정속에서 서로를 위해 노력하려는 우리가족들 너무도 사랑한다. 몇년만에 다시 찾은 행복인지... 나를 다시 이 세상의 행복을 찾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과 프로포폴 중독증을 제거시켜 주신 전경수,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쓰러져 있을 당시 신고해주신 신고해 주신 영장실질심사때 기각시켜주신 판사님, 따뜻하게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신 박기동 변호사님과 더불어 모든 분들에게

어제 저녁 음식준비를 하고 사우나를 짧게 다녀왔지만 땀을 흘려 노폐물을 빼기 위해 오후가 되자 우리 엄마와 내동생과 함께 또 사우나를 찾게 되었다. 몇년전 친척들과 함께 찾고 거의 10년만에 찾은 사우나인데... 신이나서 오늘도 우리엄마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다. 내가 단약에 이겨내는 것을 보고...

TV속에서 나오는 한장면처럼 찜질방에서 수건으로 양모자를 만들어 서로를 씌어 주고 우리는 한바탕 웃고... ㅋㅋㅋ 사우나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는데 제법 쌀쌀해진 저녁날씨에 창문이 열려있어 많이 춥게 느껴졌었지만... 가볍고 개운해진 내 정신과, 육체로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제 78일차(2012. 10. 1. 월)

“내가 감기 걸리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다

어제 저녁 찜질방에서 탈의를 하고 추웠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콧물이 흐르고 목이 간질간질... ㅋㅋㅋ 감기에 걸려버렸다. 몸살걸린것처럼 아파왔었다. 프로포폴 투약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강남일대의 거리를 쌀쌀한 날씨에 헤메고 다녀서 걸린 감기라면 너무도 서럽게 아파왔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추석연휴로 경북 문경에 있는 외가댁에 다녀온데 대한 영광의 감기였다.

하하하~ 나 제법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튿날 가평중앙교육원에 다시 입교 내가 콧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다. 누가 어디로 데려가 감기들게 했는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내가 프로포폴을 오랫동안 과다 투약했기 때문에 세균이 많은 병원이나 타인의 집에 데리고 다니면 중독된 내가 면역성이 약해 금방 감기 걸리는 것은 물론 다른 병에 걸린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따라... 외갓집에 다녀왔다고 말씀 드렸다.

제 79일차 (2012. 10. 2. 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전화 두절되면 끝장이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들...

추석연휴로 인해 정말 거의 두달을 넘게 이처럼 긴 휴가를 갖게 되었다. 실감이 잘 나진 않지만 기분 좋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날 의존증과 중독증에 의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늘 긴장되는건 당연한 일이고, 언제어디서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의 연락 역시, 끊어지면 아니된다. 끈을 놓치면 끝장이다. 문득문득 생각나, 인간바이러스 때문이다.

내가 어디서 무얼하는지... 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은 가평중앙교육원 재방프로그램중 교육이수 후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다. 나에게도 누군가가 있다는 든든한 보호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계시기에 인간바이러스 악마들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다.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증에 빠져있었을 당시엔... 난 늘 혼자라는 생각으로 더 힘든 삶을 선택했었다. 이젠 정말 벼랑끝에 서있구나, 바닥 끝까지 더니상 내려 갈 곳도 없구나...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자살충동이 나의 머리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빛을 볼수없는 ...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도 없는 눈을 못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가까운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이 정상인으로는 전혀 볼수없는 정신병 중환자의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너무도 많은 분들, 가족들이 있기에 나는 다시 태어날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들...

제 80일차 (2012. 10. 3.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다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약속장소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만나기 위해 나는 기다리고... 있던 중, 감기기운이 몸까지 밀려와 고통스러웠다. 나는 커피숍 테라스에 앉아 커피한잔도 시키지 않은채 테이블에 엎드려 무려 한 시간 반 동안을 시체가 되어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직 불일이 끝나지 않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일을 보고 계셨고 내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나의 프로포폴 중독증 극복수기 등 자료를 만드는 사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따뜻해 보이는 담요하나...

커피숍주인께서 내가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커피한잔 시키지도 않은 나를 깨우지도 않고 담요까지 배려해주셨다니... 프로포폴 중독증을 제거하고 나니, 이 세상 너무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 모든것이 모든사람들 까지도 부정적으로 나를 대하고 보였던 세상이...

이처럼 변화되어 ... 나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동일수 밖에 없는 난, 꼭... 지금의 마음, 지금의 정신, 지금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 추석연휴 휴가를 마치고 가평중앙교육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따라 참 따뜻하다.

제 81일차 (2012. 10. 4. 목)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도 행복해 보인다

나는 사랑 받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 나의 지도교수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도 행복하시다고 하신다.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도 나에게 감기를 옮아가셨다. ㅋㅋㅋ 죄송해야 하는데 왜 이리 웃음이 나오는지...^^ 지난날 오른쪽 발, 엄지발톱이 빠진적이 있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역시,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범죄학박물관 공사로 일을 하시다 다쳐 나와 같은 부위 오른쪽 발, 엄지발톱이 나와 똑같이 빠지셨었다.

우린 어쩔 이리 닮아가는지...

성격도 나는 지금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닮아가고...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외박으로 서울집에 가면 가족들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랑 비슷하다고 나를 놀려대곤 한다. ㅋㅋㅋ... 내가 존경하는 분을 닮아 가는 내 자신이 나는 너무도 사랑스럽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진작에 미리 만났었다라면 지독한 프로포폴중독증은 내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텐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난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신을 찾고 단약의 성공의 끈을 잡고 있으니,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난 행복의 끈 .. 역시 놓지않고 행복한 인간으로 거듭 날것을 맹세한다. 나는 사랑 받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다.

제 82일차 (2012. 10. 5. 금)

“눈을 뜨면 공부에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한컵 쭈욱~”

주말도 아닌데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니 아주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부에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한컵을 쭈욱~ 들이켜 마시면 쌓여있던 장의 대변도 시원하게 배설되고 건강의 회복시켜 지분도 좋아지고... 요즘 세상은 물도 아주 값비싸고 귀하게 변화되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500원부터 시작해서 몇만원 가량되는 금액까지 이르게 된 먹는 물...

하지만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서만 맛볼수있는 170M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하천연암반 알칼리수를 매일 마실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어릴적 기억에 약수터 큰 물병을 들고 약수물을 떠 온 기억이 있다. 지하수가 아니면 절대 마실수없는 수돗물을 마셔야 하기에 사람들은 차 종류를 넣어 끓여 물처럼 마시곤 한다. 이처럼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어른들께선 가까운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까지 운동을 하며 약수물을 떠다 마시고 하듯이 ... 난 (뜸부기) 정말 축복받은 존재이다. 내가 끓인 뜸부기표 된장찌개에 이어... 그 지하암반수는 나의 중독증을 씻어주는 생명수이자 뜸부기표 생수였다. 비단 내가 논두렁에서 농약이 아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쓰러졌던 중독된 경험이 있었지만...

제 83일차 (2012. 10. 6. 토)

“뜸부기 병원가고 싶은 생각나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병원 가고 싶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제 머릿속엔 온통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생각 뿐입니다.”

서울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와는 사뭇 다른 정수기의 물이지만서도 습관처럼 한 컵을 들이켜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됨으로 이제는 눈 뜨는 동시에 건강먼저 챙기게 되는게 내 하루의 일상 중 우선이 되어버렸다.

내가 일어난 걸 아신 우리엄마... "뜸부기 ~ " " 어 "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가니, 내게 손짓을 하시며 엄마옆에 누워 따뜻함을 느끼라는 것이었다. 오늘 엄마의 표정에서 우리집, 우리 가정의 평화가 느껴졌다. 얼마만에 돌아온 평화인지... 서울집이 너무 따뜻하다.

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이다. " 뜸부기, 병원가고 싶은 생각.. 나느냐고 " 하셨다. 내가 답변드린 말이다. "제가 병원가고 싶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제 머리속에는 온통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생각 뿐입니다." - 라고 말씀드렸다. 토요일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토요 외박을 나온 나 때문에 교수님 역시 불안하신 것 같았다.

제 84일차 (2012. 10. 7. 일)

“프로포폴 마약... 마귀의 덫에 걸려... 나는 하나님께 수없는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불가능했다.”

마약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시절... 가족들중 예배드리는 기독교 신자는 없다. 그러나 나는 살고싶어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위해 교회를 갔다. 그러므로 의지, 사랑, 믿음을 가지어 삶에 만족하며 삶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 새벽기도까지 드렸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나는 마귀의 약... 프로포폴을 처음 접하게 된 후... 점점 마귀의 조종으로 프로포폴의 덫에서 빠져나올수 없었다.

그 무섭고 지독하고 더러운 마귀의 약의 덫에 빠진 나는 아무리 빠져 나오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은 끊이지 않았다. 내 스스로는 불가

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기도로 인한 효험은 고사하고 프로포폴의 중독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갔다. 하지만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재발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나의 체질에 맞았기 때문에... 어떤 이를 통해 죽어가던 내 영혼을 다시 되살아나는 기쁨을 찾게 된 것 같았다.

모든 걸 모조리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회복된 건강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어 오늘도 감사하다. 오전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례 받은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평소 나를 예뻐하시던 성도님께서 " 살쨍네, 너무 건강해 보여 예뻐 ~ 보기 좋다. " 라는 말씀에 나는 회복된 나의 건강을 되찾은 것에 또 다시 느끼게 되었고 어리석은 예전 프로포폴 투약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밝은 미소로 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눈다. 아~ 기대하지 못했던 이 평화~ 이젠, 프로포폴과 나의 정신혁명을 위한 전쟁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제 85일차 (2012. 10. 8. 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그래서 기상시간이 되었는데도 침실에서 일어나기가 매우 싫었다. 그래서 5분만 더 누워있어야지 하던 찬라에 식구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깨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나는 처음이다... 가평중앙교육원 입교 후, 식구들이 아침에 나를 깨워준 것~ 하지만, 만약 식구들이 깨워주지 않았더라면 난 오늘 가평중앙교육원 출석수업에 지각했을 것이다. 우리 가족께 감사드린다.

출석수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경춘선을 타고 도착역에서 내려 지하철 입구 방향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 뽀부기, 뽀부기 ~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하하하~ 우리 아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시다.~ 완전 반가웠다.^~ 그런데 더 기분 좋았던 건 뒤에서 " 뽀부기 " 하고 불러주시던 교수님의 자상한 음성, 목소리였다. 조그만 하게 들렸는데도 아직도 내 귀에선 자상하게 불러주신 " 뽀부기~ " 날씨는 제법 쌀쌀하지만 내 마음은 벌써 봄이 찾아온것 처럼 포근했다.

제 86일차 (2012. 10. 9. 화)

“황토수면 공동체험관에서... 프로포폴 마약에 중독된 나의 뇌 기능 회복을”

프로포폴 수면마취 투약으로 망가진 육체와 뇌기능, 기억력 상실, 정신적 회복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천연지하암반 알칼리수 한컵을 들이켜 마시고 바로 가평중앙교육원 연병장으로 나아가 아침의 맑은공기를 듬뿍 마시며... 아침체조와 더불어 연못 물위를 통과하는 외통나무 건너기를 거쳐 잔디밭에 자라난 불필요한 잡초들을 뽑아가며 풀향기를 맡음으로 프로포폴에 찌든 나의 뇌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 을 위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뜸부기...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내려다 본 “안개”

50m 거리의 사물도 보이지 않을만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가평중앙교육원의 외부가 마치 하늘위 구름위에 떠있는 듯한 멋진 풍경을 자랑하였지만, 목 장갑을 낀 내 손은 아침이슬로 풀들이 다 젖어있는 관계로 손이 시려왔다. 겨울도 아닌데 나는 풀을 뽑다 입김을 불고, 또 풀을 뽑다 입김을 불다 도저히 안되겠어 손을 털어 운동도 하고 빠른 속도로 풀을 뽑으면 썩 낱아질까" 하는 생각에 시도도해보았지만 조금은 낱아지는 것 같았어도 또 다시 손이 시려워 ' 이제그만 ' ㅋㅋㅋ 하고 교육원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젖어있었던 중독“증”에 도움된 교육 기자재였다.

뜨거운 물로 손을 녹이고 나니, 따뜻한 교육원 내부로 내 몸은 금방 정상체온으로

돌아왔다. 인체독을 제거해주는 황토수면공동체험관 1 실에는 카탈라데, 디페놀옥시디아제, 사카라제, 프로테아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엑셀로 연결된 보일러로 열을 가하면 마약중독자들은 뇌기능을 편하게 해주고 더 많은 약물과 노폐물을 제거해 줌으로서 굉장한 효과를 가지게 된것 같았다.

그러므로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나를 위해 전기도 아끼지 않으시고 매일 따뜻한 잠자리를 배려해줌으로 늘 감사하다. 그의 보답은 병원에서 중독된 프로포폴 중독증에 벗어나야 한다. 중독증은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호시탐탐 나의 뇌(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는 나의 중독증에 대해 어제까지 30% 회복에서 오늘은 20% 증가, 50% 정도 인정 해 주셨다. 몇일 후면 나의 몸과 정신은 완전히 회복 100점 맞는다...

제 87일차 (2012. 10. 10. 수)

“몸이 찌뿌둥... 그건 일기예보였다” 프로포폴 약물과다 투약으로 인해

오늘 출석수업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출석수업을 하게 되었다. 늘 바쁘신 와중에도 나로 인해 가정, 집안일의 행사도 참석 안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꼭... 단약에 성공하여야 한다.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마약류 퇴치와 중독자를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에 손해 볼 행동은 안하려 하지만,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선 그렇지 않으시다. 다르시다. 정말 요즘 세상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드문 분이시다.

점심시간이 되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을 하시고, 우리는 하루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너무 반가워 아주 환한 미소로 서로를 반겼다. 아 ~ 즐겁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나(뜸부기) 몸이 찌뿌둥해진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교육원을 지으시면서 과도하게 노동을 하셨기 때문이고, 나는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했기 때문이다. 몸이 무겁고 처지면 일종의 일기예보나 다름없다.

그래서 따뜻한 황토수면공동체험관 1 실에서 몸을 녹이고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마치 가평중앙교육원은 나의 별장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 강남에 있는 피부과 여의사가 프로포폴을 맞고 나처럼 (뜸부기) ... 프로포폴 빈병과 주사기를 손에 쥐고 자택에서 또 사망하여... 그 문제 때문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KBS 등 방송...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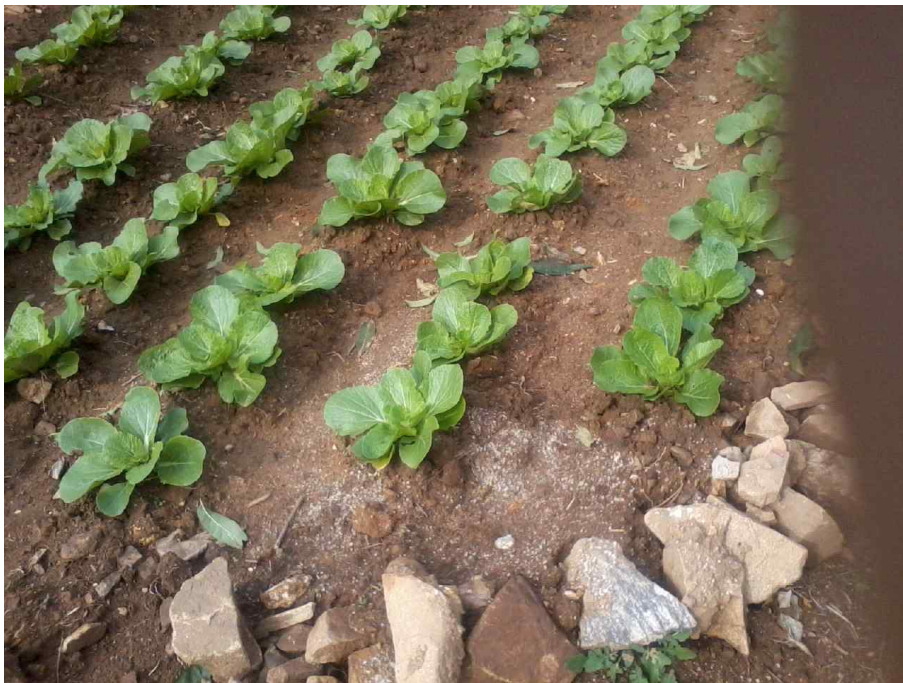
채기자들과 하루종일 인터뷰 했다고 하셨다.

제 88일차 (2012. 10. 11. 목)

“프로포폴에 중독된 뜸부기가 개간한 밭에 심은 배추가 무럭 무럭 자라다...”

가평중앙교육원 입교 후, 처음으로 알람, 모닝콜을 듣고 새벽일찍 잠에서 깨어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 기상으로 아직 해가 밝게 떠오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말 아주 가까이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안개 낀 교육원... 그림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 아침식사를 마치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천안지역감시단 마약퇴치 강의차 떠나시기에 난 가평역에서 ITX(청춘)를 타시는 교수님을 모셔다 드리고, 상천역에서 우리교육원 강은주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모시고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을 하였다. 새벽 일찍 깨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고 졸리지 않은 오늘... 어제 깊은 낮잠의 숙면에 의해서 인가보다.ㅋㅋㅋ

매주 목요일이면 강은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를 지도 해 주시기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을 찾으신다.



(뜸부기가 심은 가을배추가 무럭무럭 자라다...)

강은주 재발방지교육사님과 나는 내가 심은 배추, 고추 밭에 나아가 불필요한 잡초들을 뽑다보니, 지난날의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 심어둔 가을배추가 두배나 자라 아이에서 어린이로 성장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어제 비가 오선지 얼른 어른이 되어 겨울 김장때... 우 ~ 미안 배추들아~ 여튼 오늘은 햇볕은 쨍쨍~ 내 기분도 밝아졌다는 것은 또다시 병원에 달려가고 싶지 않다는 증거다. 집에 있을때는 그렇게도 프로포폴 주사 맞고 싶어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에 온 후, 한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

제 89일차 (2012. 10. 12. 금)

“마약범죄학 제 1 권 (마약범죄론) 제 1 편 ...” 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 라고 나의 침상 머리쪽에 써붙였다.”

"프로포폴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지 못하였다면 내 인생은 결국 재생될 수 없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의 내용을 나의 침상 머리쪽에 써 붙였다. 약리학적인 마약류의 정의는 " 인간에게 의존성 (依 存 性) 과 남용 (藍 用) 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 " 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 (WHO) 의 마약에 대한 정의는 "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간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의존성 약물 사용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내성 (耐 性) 즉,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금단현상 (禁 斷 現 象) ,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 " 고 되어있다.

이러한 마약류는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존해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고귀한 의약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남용 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마약류에 의해 과생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와 더불어 커다란 해악이 되고있다.

역내성 (逆 耐 性) 은 코카인 들 마약을 연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약에 과민해져서 극소량만 투약하여도 대량을 투약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에이즈환자 10명중 9 명꼴... (마약에 의해 중독된 것으로 나타남.)

어느날 마약에 중독된 여동생 오빠 " 안정시 "라는 사람이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단장님께 호소한 글이다.

" 도와주세요 "

" 제 여동생은 약물 중독자입니다.

30대 초반인 여동생이 마약에 중독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 끊었다 끊었다 ' 말은 하면서도 또 다시 마약에 빠져들면...

그분은 ... 나 뜬뽀기 친오빠와의 심정과 , 나의 지독한 프로포폴 중독증으로 인해 늘 주위사람들에게... ' 끊었다 끊었다 ' 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때... 와 너 무도 같은 상황이다.

중독에 빠진 여동생 때문에 안정시라는 분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 보낸 글... 무료로 치료받기 원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경찰에 신고하면 전과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 신고가 꺼려집니다."

이 글을 읽어본... 나는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곳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 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고 프로포폴 중독“증”과 마약중독에 의한 합리화... 가족과 지인들에게 태도를 보낸 거짓말을 끊고, 무료로 교육까지 받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나처럼 마약중독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하루 빨리 마약의 덫에서 벗어나 맑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도록...

가평중앙교육원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명명백백히 인간답게 살아갈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라고 내가 가르쳐 주었다. 세상 모든 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우리는 " 나 " 의 문제만이 아니라 ... " 우리 " 모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도 종교도 성도 이념도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 우리 " 라는 울타리의 경계를 가리지 못한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이런 의미의 발전을 지향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수 있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붙잡아 주는데 있다. 이처럼, 가평중앙교육원이 지향하는 마약류등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이념과 목표를 두었기에... 내가 단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의미였다.

제 90일차 (2012. 10. 12. 토)

“난 확실하게 건강했던 옛날로 다시돌아간다... 90일만에”

놀랍게도 시간 참 빠르다. 벌써 90일째... 미래의 목적없이 오로지 마약(프로포폴) 투약만 떠올리고 투약했던 그 시절엔 날짜, 시간 개념도 없었지만 하루가 참 기레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강한 의지, 노력들이 있어서 인지... 삶이 즐겁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 이 소중한, 귀한 시간들이 미래의 나를 완성시키고 있어 더 더욱 목적이 이끄는 삶에 행복하다. 난 확실하게 건강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90일만에...

제 91일차 (2012. 10. 14. 일)

“나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머리 탈모증까지 생긴 우리 아빠” 오늘은 훨씬 웃으셨다.

가평중앙교육원에 입교 한지가 벌써 91일째이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 목적이 이끄는 삶에 몰두하니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가을... 이지만서도... 천고마비 계절...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말이 살피는 계절처럼 나 (땀뿌기) 도...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을을 맞이하고 따뜻한 가을로만 느껴진다.

오늘 저녁,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나로인해 우울증에 걸리셨던 일들 우리 가짜아빠 (친아버지) ~ 오늘은 많이 밝아보이시고 많이 웃으셨다.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로 고생하시는 우리 가짜아빠 (친아버지) ~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듯이 우리 가짜아빠 (친아버지) 도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한다.

제 92일차 (2012. 10.15. 월)

“마약범죄학 제1권 (마약범죄론) 제1편 제1장 공부한 내용 ... ”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투약후 첫 경험 후 5~6개월이 경과하면 환

각을 경험하게 되고 메스암페타민을 멀리 하지 못한다. 그리고, 환락 (歡 樂) 과 전락 (轉 落) 의 교차상태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환각범죄가 발생된다. 즉 멀쩡하던 메스암페타민 중독자가 패트롤카의 번쩍이는 경고등을 보고 받은 자극으로 발작하는데 정신이 돌아버리는 증상이다. 그리고 완치되어도 스트레스나 과음에 의거 환각 망상증이 되살아나 가족이나 주변인물들을 괴롭힌다. 이것을 베드트립 (Bad Trip) 형 정신질환자이다. 컨택트하이는 각성제를 복용하다 수감한 환자가 최근 각성제를 복용하다 붙잡혀 온 새로운 환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면 서로 각성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도 각성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환각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메스암페타민 사용사범은 Methamphetamine 의 유통경로에 있어 최종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용 그 자체는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약자 자신들 스스로 범법자라고 인정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정신장애 상태에서 환각 또는 각성 상태에서 사회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사회보호법상 치료 감호소 대상이다. 약은 정신을 변화시킨다. 약물중독으로 변화된 정신은 사회, 가정, 나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린다.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한 통합된 학문이 " 마약범죄학 " 이다. 내가 마약범죄학을 배우는 이유였다.

제 93일차 (2012. 10. 16. 화)

자연산 식용식물시음으로 오늘은 내가 측백나무잎을 따다 차를 끓이고... 이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셔도 스스로 혼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ㅋㅋ

“마약범죄학 제1권 (마약범죄론) 제1편 제1장 공부한 내용...”

知 覺 (Perception) 과 障 碍

지각이란 외부로 부터 들어온 감각자극 (sensory stimulus) 인 청각 (聽 覺), 시각 (視 覺), 미각 (味 覺), 후각 (嗅 覺) 을 과거의 경험과 결부시켜서 조직화 (organize) 하고 해석해서, 그 외부자극의 성질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그 자극과 자기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런 자극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선 외부자극을 직접 받아들이는 말단 감각기관, 말초신경이 받아들이는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신경계통, 이 자극을 해석하는 고위 중추신경 기능이 정상이어야 함은 물론, 이 자극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과거의 경험 축적, 즉 기억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자극이 들어왔을 당시의 정동상태 (affect state)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각기능은 우선 외부자극이 있을때 그 자극의 주위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각의 장애는 들어온 자극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단순한 장애에서부터 자극을 잘못 판단하는 착각 (錯 覺 , illusion), 또는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환각 (幻 覺 , hallucination)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감각은 감정과도 밀접하다.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 재방교육센터 " 가 평중앙교육원... 맑은 가을하늘에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는게 밭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더불어 목장갑을 끼고 배추밭에 물을 뿌려 주었다. 잘 자라고 있는 가을 배추들을 보니, 나와 같은 건강을 자랑한 듯 하여,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의 자연환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내가 개간한 아주 예쁜 밭에서 가을 배추도 무럭무럭 자란다. 여윌에 내가 심은 고추 따는 맛에 나는 기분이 상쾌해 진다.



(뜸부기가 심은 가을배추)

제 94일차 (2012. 10.17. 수)

“나는 이제 마약 프로포폴 중독의 덫에서 해방된다...”

적어도 백일동안은 지각을 안하려고 다짐하였었는데... 94일차가 되는 오늘 출석수업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보통 마약중독자들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난 마약중독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더욱 애쓰고 노력해왔다.

백일이 되면 프로포폴 중독자에서 일반인으로 거듭나고 마약류등 중독성 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피교육생이 아닌 평생교육사로 진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차가 생겨... 나는 하루종일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정말 끝까지 잘 할수 있었는데... 몇분의 차이로 지각... 우 ~ ㅠㅠ 내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지각은 하였지만, 오늘을 교훈 삼아 프로포폴 중독증에서 제대로 벗어나 3년~ 10년이 흘러도 꼭 성공할 것을 약속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안내로 가평읍내에 있는 보신탕... 교수님의 말씀... 교육프로그램상 귀가 멍하고 콧물이 찼찼 나올때... 영양보충... 귀가 뻥 뚫리고 콧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긴, 내가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거액의 돈으로 프로포폴 마약이 내 몸속에 과다 투약했는데 내몸 영양실조는 물론 뼈만 앙상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심은 배추처럼 건강해졌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중독되어 쓰러져 한강물에 버려진 연예인, 집에서 사망한 여의사, 교도소에 수감된 연예인...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처지였다. 그런데 나는 이곳 물 좋고, 공기 맑은 청평 하늘아래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약과 더불어 중독증에서 벗어났다. 이제 6일 후 100일때 수료한다. 그리고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가 프로포폴 중독의 덫에서 해방된다.

제 95일차 (2012.10. 18. 목)

오늘 역시 훌륭하신 (오늘 느낌) 강은주 재발방지교육사님을 통해 영광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날, 가슴윗부분 타박상이 생긴 이 후, 내가 힘을 쓰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빨래당번은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하시게 되었다.

오늘은 나의 뭉이 된 빨래를 오랜만에 수건, 양말들을 빨다보니 땀이 뚝뚝 떨어지고 마치 머리를 잡아 끌어 흔드는 기분에 지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 깨끗해진 빨래처럼 아주 개운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었고, 오늘 95일째를 거치고, 100일째 되는 날 수료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허무하기만 했다. 갓난아기에서 걸음마를 배우게되는 ...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 시작된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줄아는 참, 진리, 정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적적요요: 내가 가만 있으면 남도 가만히 있게 되듯이... 이 모든게 만복의 근원, 천국이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이 천국인 것이다.

제 96일차 (2012. 10. 19. 금)

“마지막 건강 점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달리기 교육 프로그램”

아침 기상... 연병장에 나아가 체조를 하며 맑은공기를 듬뿍 들이켜 마시고 내뱉고... 갑자기 달리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을 뒤따라 나도 속력을 내어 달렸다. 달리는 맨 마지막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셨다. 프로포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체력검증 통과... 또 뒤따라 달리고...ㅋㅋㅋ 아침부터 연병장을 빠른속도로 몇바퀴를 달리다보니, 두배로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고 연병장을 둘러보자 아주 싱싱한 상추를 발견하여 식탁위에 올려 맛있게 식사도 하고...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해진 가평중앙교육원과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과 함께여서 세상의 모든게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분명 이겨내고,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다. 난 백두산 호랑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의 딸이니까... ㅋㅋㅋ 전경수 재발방지 평생교육님의 허락으로 나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백두산 호랑이 전경수 평생교육사님의 딸이 되었다.

제 97일차 (2012. 10. 20. 토)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정책 연구”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

친구의 관심과 배려와 도움으로 재래시장에서 교육원의 필요한 많은 음식과 재료
들을 사면서... 아무리해도 많이 부족하지만 ... 가평중앙교육원에 조금이라도 보탬
수 있다는 점에 하루종일 기쁜 기분였다.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 정책 연구...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2012, 10, 18 받았다. 책속엔 ' 나의 사랑하는 " 땀부기 " 제자에게... 써있
는 교수님의 글씨를 보는 순간 (' 나의사랑하는...') 너무도 행복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난 정말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거 .. 분명하다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에 대한 교정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투약범죄는 재범, 누범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의 교정정책은 일반사람들과 격리시키는데만 초점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또, 일반 범죄인들과 공동 수용함으로서 치료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이들을
오히려 다른 범죄에 물들게 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우리사회는 경제 성장 이
후 점차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되면서 선진국형의 마약류 투약자가 날로 폭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이에 수반하여 마약류 오. 남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는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것만이 최
선의 방법은 아니다.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전 가족
이 생활터번을 잃고 고통의 긴터널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투약범죄의 가장 큰 위험은 한번 치료를 했더라도 완전히 근치가 되지 못
하고 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중독증이다. 처음에는 비록 호기심으로 주사를
맞거나 음용한 경우에도 냉정한 판단력 만으로는 향후 절대 재투약 하지 않기가
어렵다. 스스로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 밀매 조직들에 의한 강매도 중독증을 부채
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일단 누범이 되면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거의 끊기 어려운 것이 마약류이다.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마약 근절, 재범방지로 가족, 시민단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피료요로 한다. 정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검거와 이들에 대한 교정정책을 나름대로 중실하게 추진 해 왔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정정책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미결 구금 장소인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무료하게 대기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범행에 오염되고 있고, 법원의 재판 확정 후 교도소에 재배치 되면 일정기간 신체적 자유만 구술 될 뿐, 몸에 밴 마약류 중독증 제거를 위한 치료교정이 전무하다. 둘째, 교도소내에서 수감되기 이전 단계인 미결구금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호관찰소에 위탁되어 일정기간 수감 명령과 사회봉사 명령등 보호관찰 처분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의존성 (依 存 性)을 이겨내지 못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중독증이 보호관찰 처분에 재화와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요소가 되고있다.

셋째, 마약투약 행위 그 자체가 ' 중독 ' 이라는 환자의 개념이라면 변호사나 법관의 판단 보다는 전문적인 의료교정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넷째, 마약류투약에 의한 범죄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되는 제도인데 치료감호소는 교도소처럼 강한 통제력이 없어 마약류 중독과 범죄 경력을 가진 이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메스암페타민, 몰핀,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류 투약자를 교정없이 그냥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대체되어 석방하면 중독증에 의해 재범의 원인은 물론, 제 2 의 환각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행 교정 정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교정정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박사학위 논문 방법으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정책이라는 새로운 교정이론을 적용하기위해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약류에 의해 중독된자도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각종 유해물질 중독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정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해 봄으로서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이 성립시키는 것이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박사학위 연구논문의 목적이었다.

제 98일차 (2012. 10. 21. 일)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대체의료교정정책 연구”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이 연구의 대상은 마약류 단순 투약 범죄에 대한 대체의료교정 정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 투약범죄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피우거나, 주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단 한번 시도한 경우에도 실정법상 범죄이고 중독증에 의거 재차 투약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범죄이다. 마약류 투약에 의한 피의자의 위치는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경찰이나 검찰에 검거되어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마약류 투약 범죄에 대한 ' 교정정책 ' 이란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들을 마약류 투약상태에서 벗어나 일반 정상인처럼 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반 정책을 말한다. 교정정책의 내용 속에는 검거된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하는 행위, 정신적, 육체적 치료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마약류 투약 범죄의 범위는 제조자, 소자자, 밀매자의 유혹에 의해 마약류를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투약 범죄자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하거나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 조 각 호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99일차 (2012. 10. 22. 월)

“범죄 측면의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가을비가 '주룩룩' 떨어지는 가운데... 많은 짐을 (재래시장에서 장은 보다) 갖고 가평중앙교육원을 향해 상봉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비내리는 풍경이.. 아주 멋지게 보여진다. 하루하루 무사히 잘 자라라고 가을배추들에게 물을 뿌려 주었었는데 오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덕분에 마르던 수분을 맘껏 만끽하게 되어... 안심이다.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 정책에 관한 연구...제 2 장 3 절 우리나라의 대체교

정 정책...의 내용 범죄 측면의 대체의료교정에 있어서 치료감호소는 사회성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마약자 내지 마약류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를 수용하는 치료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제도가 가진 한계... 행위자의 과거의 행위나 책임과는 직접 관계없이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여 그 특성을 상용하는 치료나 개선을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1983년 스위스 형법학자 슈토스 스위스 형법 예비 초안 제시 이후 1909년 형법 초안과 그 이후 1922, 1925, 1927, 1930년 형법 초안에서 보안처분 규정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처분의 하나로써 치료감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처우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 10조 1 항에 의한 심신장애가 그 대상이다. 즉, 마약류나 알코올 중독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심신장애자는 처벌을 하더라도 형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하며 환각상태 등 정실질환에 의거 또 다른 범죄가 노출될 수 있는 결과 때문이다.

이에 책임능력이 없으나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강제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코올, 마약류 중독자와 같이 개선적 내지 위하적 형벌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 새로운 위험 제거 수단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이러한 대체교정은 환자들 자신이 자유롭게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제도로서 법관의 판단하에 중독증세가 매우 강한 중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재활교육을 받고져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2003년에 쓴 학위논문 "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정책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바로 나(뜸부기)에게 적중될 줄이야 ㅋㅋ

내일이면 나는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에 의거 100일간의 재활교육을 받고 나는 교도소가 아닌,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

육원에서 마음을 깨끗히 씻고 하루종일 머리속에 맴돌던 프로포폴 마약중독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자, 교육생이 아니고 나도 정상인이 되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아빠)...(가짜아빠는 나의 친아버지) 병원생각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온통 머릿속에는 가평중앙교육원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진짜 아빠)생각뿐입니다. 가평중앙교육원 교육의 목표.. 문득문득 생각나, 맹송맹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 완전척결... 나로부터의 정신혁명 완수 ~~~

“재방교육 온라인 문자교육...” 공군 전투기 한강다리에 배치

뜸부기에게...

뜸부기... 입교 후 1주일만에 있었던 일이다.

뜸부기에게 내가 토요일 외박을 보낸적이 있었다. 재발방지교육사인 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병원에 또 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 이튿날 일요일 아침 뜸부기가 나에게 걸어온 전화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아빠) 뜸부기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식혜 꼭 드셔야 됩니다." 알았다. 노철환 재발방지교육사님이 보지 않는 사이 나 혼자 먹었다. 뜸부기 너...강남에 있는 병원에 또 가고 싶었는지... 너하고 비슷한 뜸부기 한마리가 강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보았다.

뜸부기 가 한 말이다.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아빠) 병원생각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병원은 정말 재수없는 곳입니다. 내가 번 돈 프로포폴 주사맞느라 병원 의사들에게 다 털리고 알거지가 된 곳입니다. 온종일 백두산 호랑이 딸 뜸부기의 머리속에는 가평중앙교육원과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 (아빠) 생각 뿐입니다. ~ 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뜸부기를 완전히 믿을수가 없었다. 내가 뜸부기한테 한 말이다.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방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에 있는 공군전투기 8대 (말벌 8마리) 를 한강다리 밑에 배치시켰다"고 했다.

너 또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날아가면 말벌 8마리 (전투기 8대) 한테 물린다고

뽕을 쳤다. 다행히 뽕부기는 강남쪽으로 한발짝도 날아가지 않았다. 뽕부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정신병이라는 중환자... “중독증” 제거에 성공한 것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었다. 내일이면 뽕부기 100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환자가 아닌, 정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 간다.

나는 뽕부기의 모범적인 교육태도를 지켜보고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상의 T셔츠 한개를 뽕부기에게 선물할 것이다.(오천원짜리... 이천원 깎아, 삼천원짜리)

제 100일차 (2012. 10. 23. 화)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뽕부기... 중독의 덫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나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에게...

" 와... 드디어~ 백일째... 다 "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단약을 백일동안의 정신혁명을 통해 성공하게 되었다. 어제밤, 취침에 들어가기 전... 프로포폴 투약하던 그 시절을 되돌아 보았다. 엄청난 양을 투약함으로써 엄청난 금액도 쏟아부었고, 주위사람들과 가족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던 나(뽕부기)...

병원을 가지 않으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불안한 정신 때문에 집에 있는 패물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열쇠부터... 엄마 목걸이까지도 모조리 훔쳐 팔았다... 그러고도 난 병원비가 또 필요해 며칠 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돼지 저금 통까지... 돼지 저금통은 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시려고 한푼두푼 500원이 수북히 담긴 황금 돼지 저금통이데... 그것까지 들고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정말 미웠다.

아~ 정말 그때 나 제정신 아니었다.

가족을 그리도 끔찍히 생각했던 나 였었는데...병원가고 싶어 프로포폴이 밀려오든 그 순간은 그누도 나를 멈추지 못했다. 오로지 ...병원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갈 것을 알고서... 동생한테 눈물을 흘리며 " 20만원 주지말라고... 언니가 병원갈려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 같다" 며...ㅠ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 참 못할 짓 너무 많이하며 살아왔다. 내가 처음 집에 있는 패물에 손을 댔을때에는 패물이 없어졌는데도 부모님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다. 어릴 적 부터 집에 백원짜리 동전하나 탐을 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내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울 정도로 항상 선한 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늘.. 초점없이 사람을 노려보며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었다고 하셨다. 섬뜩한 눈매...다름아닌 나의 자화상이자 정신병 환자였다. 절에 찾아가 절을 수천번 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께도 메달려 보기도 하셨다. 나의 태도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하셨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신비로운 나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어가며 내게 " 이제 그만 해 " 달라며 빌기까지 하셨는데... 나 왜... 그동시 그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없는지... ㅠㅠ 이 많은 .. 지독한 나의 정신병... 내가 중독된 과거의 시절은 이제 지난날이 되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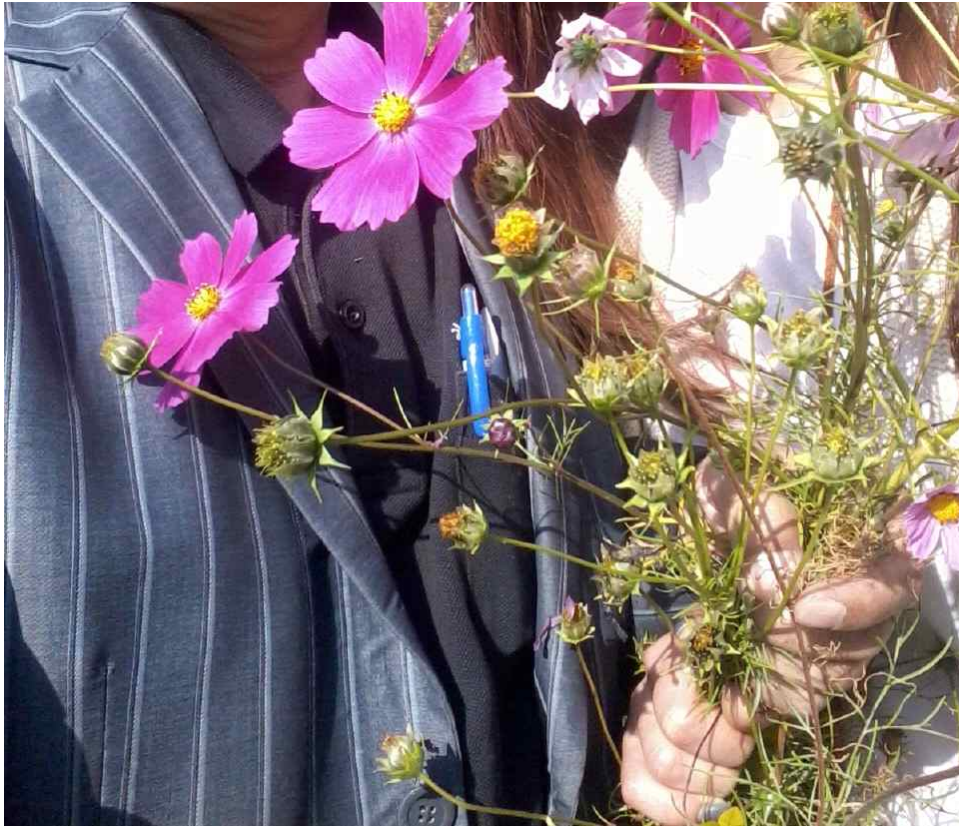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께서 나(뜸부기)에게 고맙다고 하셨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본...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의 말씀이다. 나를 지도하신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님은 일생동안 자신이 탄생시킨 “마약범죄학”, “마약류투약범죄대책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에 의해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마약범죄학자로서의 본능적인 말씀이었다. 고마운 것은... 뜸부기인 나 자신인데... 3개월전 내가 프로포폴 마약에 중독되어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죽음일보 직전 이곳을 찾은지 100 켤라니... ㅋㅋㅋ 재생될수 없었던 기억력도 되찾았다. 끊어진 생리도 되찾았다. 빈혈로 쓰러져 냉장고 모서리에 박혀 머리를 다쳐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던 반귀머거리였던 것도 이제 들린다. 하루에 수십번씩 밀려오던 프로포폴 마약 생각을 접었다니...정말 기적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저(뜸부기) 살리기에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전경수, 노철환, 전경수, 강은주 재발방지교육사님, 성북중앙병원 김광천 원장님, 박기동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검찰청 김진학 수사관님, 구속 영장 실질심사 기각 시켜준 판사님의 배려 잊지않겠습니다.

뜸부기 수명을 대해 죽더라도 저세상에 가서도 고마움 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결초보은(結初報恩)...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 그리고 내가 재발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 황토수면 공동체험방 벽에 걸린 액자에 찍여진 글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것 역시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 父 不 憂 心 因 子 孝 夫 無 煩 惱 是 妻 賢 ’ (부 불 우 심 인 자 효 부 무 번 뇌 시 처 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함이 없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머물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본인(뜸부기)이 프로포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일말의 글을 남깁니다. 나처럼 중독된 분들... 절망하지 말고 노력하면 마약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12. 10. 24.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 주사맞고 중독된 뜸부기...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떠나면서...



(가평중앙교육원 전경수 재발방지교육사와 경춘선 상천역에서 헤어지면서...)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은 이 시대의 고질적 병폐... 마약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위해 한국마약범죄학에서 탄생시킨 ... 마약범죄
학,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적용, 문득문득 생각나, 맹송맹
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 척결을 위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 곳이다.

가평중앙교육원에 있는 바람, 물, 햇볕, 흙, 돌, 나무,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모
두 다 귀중한 교육 자재이다. 가평중앙교육원은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
다. 배울것도 없고, 배워줄 것도 없다. 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너가 알
고 있는 진리를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배우겠다는 그것은 거짓이다.

가평중앙교육원 정문을 열지 말고 스스로 돌아가거라. 이 곳에서는 되는 것도 없
고, 안되는 것도 없다. 그래도 들어오고 싶거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리
고 동심으로 돌아가 깨닫고자 한다면 소문 (개문 犬門)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곳

이 가평중앙교육원이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의사,약사,경비원,사무요원,요리사,학생, 교수도 없다. 너도 교수요, 나도 교수다. 모두다 의사,약사,경비원,요리사,사무요원이다. 전부다 교수이고, 전부 다 학생이다. 치료가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자아발견과 자기성찰을 위해 보완해주는 곳이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발생한 자기자신의 모든 문제도 가평중앙교육원 운영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야 하고, 망망대해를 향해 가면서 성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때가 있다. 바람, 물, 햇볕, 조화로운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는데 교육적 목표를 두었다.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을 완수하고 청평역에서 전철을 타고 대성리, 마석, 평내 호평 긴 터널을 벗어나 환승역인 7호선 상봉역에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 내가 실천해야 할 10대 수칙이다.

1.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만나거나 만나주지도 않는다.
2.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유혹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사기성 발언을 하지도 듣지도 않는다.
4.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약속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5.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6.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의지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7.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금전거래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8.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보증을 써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9.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이성적 교재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10. 나는 인간바이러스와 중독성 물질을 권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또 다시 문득문득 생각나, 맹송맹송 잠안와, 인간바이러스가 나타 날 경우... 다시 찾아오는 곳이 가평중앙교육원이다.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떠난 모든 교육생은 1달에 한번 온오프라인 예비군 점호식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충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란군의 역쿠데타에 의해 나로부터의 정신혁명은 또다시 실패하기 때문이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만난 교육생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 알려고도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곳을 통해 잘못 만난 인연이 될수 있다...명함을 받거나 주는것도 일제 금한다.가명과 닉네임을 사용하며 ...금전거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수료 후 사회에서 만나더라도 아는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객차에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밍더라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수가 없다. 고운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손은 우리의 적이다. 부드러운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활취고, 살을 앗아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러한 정객에 대하여 증오의 탄환을 발사하자...이러한 자각...이러한 결의 ...이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 정치도 정화되고 문화도 발전되고 사회도 건전하고 종교도 승화되는 것이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명명백백히 인간답게 살아 갈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다. 세상 모든 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다. 우리는 " 나" 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도 종교도 성도 이념도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우리" 라는 울타리의 경계를 가르지 못한다. 가평중앙교육원은 이런 의미의 발전을 지향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수 있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붙잡아주는데 있다.

기초적인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사회적 기회, 경제적 자원을 활용할수 있는 경제적 편의, 전쟁이나 기아, 자연재해등으로 부터 생명을 지킬수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적 안전,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정치적 자유. 마약류등 중독증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는 사회적 기회 ...이 모든 자유가 제한되고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 그 중 가평중앙교육원이 지향하는 것은 마약류등 중독성물질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이념과 목표를 두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 또 온다.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 약을 먹여 고치는 병도 아니다. 수술하는 병도 아니다. 본인의 의지로도 안된다. 기도를 수없이 해도 응답이 없는 중독 정신... 재발방지 평생교육을 통해 중독증을 제거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1일 또는 주차별 평가가 필요하다.

자신은 물론,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가평중앙교육원을 다시 찾아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 준 재발방지교육사로부터 평생을 통해 멘토를 받지 않으면 마귀와 같은 인간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교육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약류등 중독성범죄 재범방지 평생교육 프로그램(NK 세포, 3구, 3잘, 2안, 3재) 정기, 부정기 배터리 충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독증 제거를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히로뽕, 프로포폴, 본드 등에 중독되면 뇌세포를 수 없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는... 해마의 신경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해 뇌 손상을 받는다. 뇌손상을 받으면 폭력적이다.

전두엽에 상처를 주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한다. 연수가 마비되어 숨통이 끊어진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간, 폐, 신장이 나빠 나른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무기력, 몸이 따라주지 못해 약속도 못 지킨다. 그래서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 회장은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적용 NK세포를 활성화 시켜 “마약 중독증 제거, 요해(了解)라는 이론을 22년간에 걸쳐 정립하여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증을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제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재발방지 피톤치드 힐링 평생교육에 성공한
송충근 재발방지교육사입니다.

- 마약류등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

핵심 이유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외국산
마약판매 업자에게 유혹당하여 중독되어 -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
소에 또 온다. 정신병원 등 치료감호소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 - 는
명제하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보장되는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민
간학술단체에서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국내에서 개발한 재발방지 평
생교육에 성공한 지적재산권을 무료로 받아들여 마약중독자 발생 다
발 전국 지자체에 확대시켜 마약에 중독된 국민을 살리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국에서 입법시켜 전 세
계에도 보급하여 마약으로 부터 인류를 보호해야할 당위성입니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2
----------	-------

발의연월일 : 2022. 9. 23.

발 의 자 : 태영호 · 김상훈 · 허은아
정우택 · 이원욱 · 임이자
이만희 · 김정재 · 유경준
이철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병·의원 등 치료기관을 통한 구금 치료 정책에 집중해 왔음. 그러나 마약류 등에 의한 중독성 범죄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마약류 등의 중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마약류 등 중독자 중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는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병·의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가 출소 또는 퇴원하지만 그 재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재발, 재범, 재중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이 개인 인격의 존중 속에서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평생을 통하여 실시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등의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기회가 평생에 걸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 및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등의 재중독 및 재발방지교육,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법무부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위한 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재발방지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으로부터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교도소, 치료감호, 병·의원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퇴원 후,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환각물질: 그 흡입 또는 섭취 등으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자”라 함은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으로 인해 형사처벌(「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보호를 받고

퇴원 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재발방지 평생교육”이란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보호를 받고 퇴원 조치된 사람을 대상으로 마약류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적·부정기적 교육을 말한다.

4.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이란 마약류등의 중독자가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방지 평생교육을 받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발방지 평생교육의 기본원칙) ① 재발방지 평생교육은 개인의 인격의 존중 속에서 그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평생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재발방지 평생교육은 개인과 환경, 정신과 신체 등이 상호 연계되어 균형을 이루어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등의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기회가 평생에 걸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마약류등의 중독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발방지 평생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재발방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장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

- 제7조(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등의 설치·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등의 재중독 및 재발방지 교육,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의 설치·지정 또는 운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3장 재발방지교육사 등

제9조(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재발방지교육사”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등에 의한 재발방지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등에 의한 재발방지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실습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발방지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③ 재발방지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마약중독증의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발방지교육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발방지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는 재발방지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된 재발방지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행정처분)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지정 또는 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재발방지교육사,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마약류등에 의한 중독 범죄자 특례) ① 마약류 및 환각성 중독 물질을 투약한 자가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때에는 「형법」 상 자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판사 및 검사는 연성 마약류 또는 1회성 단순투약자가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희망할 경우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조건부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17조(벌칙) 제13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평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지정된 기관으로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조(재발방지교육사 자격증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에 따라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급한 재발방지교육사 민간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재발방지교육사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작성(안)

- － 제7조에 관한 시행령안 동 법안 제7조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제안 이유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제정안은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실효성 없는 유사 교육기관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필로폰, 본드 환자는 얼굴이 수축한 물골로 변한다. 필로폰 등 독성물질을 투약한 중독자의 체내에 침입한 나쁜 세균은 물론 교감신경을 변화시켜 생명력을 꺾었기 때문이다. 필로폰 독성물질에 의해 림프구가 감소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코카인, 헤로인, 몰핀 등 진통제 역시 암과 싸우는 NK세포(Natural Killer, 자연살해세포)세포의 림프구는 물론, MP세포(macrophage, 대식세포)까지 파괴한다. 역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에 중독된 환자에게는 필로폰 독소에 의해 손상된 뇌세포 회복 산림술 음이온 산소호흡 등, MP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중독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합병증을 이겨낼수 있다.)

“평생교육시설 입교,퇴소 상황 재발 재중독 여부, 교육실태 등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 의무 조항 명시 등, 아래 항목 참조 본 법안 시행령안 작성”참조

1. 가평중앙교육원(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센터)에서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善行)교재 5권,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중독으로부터 자기방어 교재 15권,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한 360명 중 21명의 교육생이 남긴 선 수기를 교과목 교재로 활용한다. 「5권, 21권, 5편람 교육교재, 21권의 선 수기 참조」
2. 염산, 중조, 아세톤, 활성탄, 클로로포름 등으로 제조된 북한 산 필로폰 중독 물질에 의해 손상된 전두엽, 해마, 연수 등 뇌세포 회복을 위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산 중턱 향균 및 방충 효과가 있는 측백, 편백나무 등 산

림“숲”음이온 피톤치드 산소호흡, 간, 폐, 혈관 등에 박혀 있는 필로폰 등 중독물질 체외배출을 시킬 수 있는 산 중턱 70m 지하암반수 채취 시설이 갖추어진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MP세포, NK세포, 적혈구, 백혈구, 림프구 등 면역력을 충전할 수 있는 교육 장소이어야 한다. 「교육의 장소적 적합성, 18개 교육시설, 112개 교육기자재 참조」

3. 뇌세포 회복 등 정신적, 육체적 나쁜 세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MP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해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산 중턱** 영농체험학습장이 갖추어진 1,400평 이상의 부지,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는 카탈라아제, 디메놀 프로티아제 성분이 있는 황토 침실 등 18개 교육시설, 뇌세포, 간 기능 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112개 식용식물 등 교육 기자재가 갖추어진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4. 재발방지교육사는 한국의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평생교육 기법”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 마약범죄학 1~5권, 마약류투약범죄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 등 제이론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습 포함 2년간의 교육을 받고 재발방지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5. 재발방지교육기관은 교육부 법령인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설립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단, 교육부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기히 운영중인,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 발행된 자격증은 경과조치에 의해 인정한다.
6. 위 1, 2, 3, 4, 5항의 조건을 갖추고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위 1~5항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설립되어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법시행 경과 조치에 따른다.

- 마약청 또는 마약안전부 신설 제안 -

• 목적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정부와 국회는 전시와 평시가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국민이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는 마약중독자구제법(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및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을 입법하고, 정부는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보사부 국방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통계청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마약청을 신설 지휘체계를 단일화 하여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닉스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만든 나라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핵무기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 두었다.

전 국민이 안보의 차원에서 국난극복을 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여 인류에게 마약의 재앙을 이겨내기 위함이다

• 현실태

인구 5,180만명

년간 출생 24만명 사망 37만명

결혼 19만명 이혼 9만3천명

자살 13,352명 1일 37명, 1시간 2명

마약사범 2만명

재소자 1인당 연간수용비 3100만원 1일 85,000원

(미국인구 3억4천만명 약물중독사:년간 10만명 1일 300명)

• 분석

인구감소 매년 12만명 65세 이상 980만명, 출생률 0.78명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다음세대 유전 심각 (정신병 등)

법무부 교육부 보사부 등 전부처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지방자치단체 마약중독재활교육센터 평생교육원 신설,

재발방지교육사 운영 마약퇴치 및 재발·재범·재중독 예방

예산 절감

- 마약청 조직도

정부조직법 청 기본조직도 참조

재활국

예방국

재범방지국

재방교육사지원국

교육부 담당관

법무부 담당관

행안부 담당관

(시.도.구.군)

보사부 담당관

국정원 담당관

국방부 담당관

검찰청 담당관

경찰청 담당관

식약처 담당관

통계청 담당관

- 제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약청 신설을 제안한다.

마약과의 전쟁은 국민을 살리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행형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정부부처, 국회, 대법원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할 수 있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재건이 어렵다.

국민정신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마약으로 부터 인류가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킨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핵무기와 같은 무기를 만들어 두었다.

이순신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었던 고뇌에 찬 심정일 것이다

- 마약중독자 구제법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 빨리 입법하고 마약청 신설, 대통령실 마약대책위원회 편성하기를 제안 한다.

2023. 8. 3.

제안자 송 충 근 마약범죄학석사

-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위한 정책 제안 -

● 배경

마약중독자 100만명. 가족 등 500만명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현재의 처벌위주의 정책을 재활위주 정책과 병행하여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국민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함.

● 현실태

1. 마약사범 2만명 (1일 55명 처벌됨)

- 마약중독 자살 및 마약중독 자연사 연간 15,000명 추정
(1일 사망자 1,000명중 5%. 청소년 사망원인 1위)

★ 미국 연간 마약중독사 10만명(1일 300명 사망) 통계 있음.
114만명 체포.

2.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 3,100만원 (1일 85,000원)

예산 절감 필요

● 분석

1.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다음세대 유전 심각 (정신병, 분노조절장애 등)
2. 법무부, 교육부, 보사부, 국정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청, 통계청, 항만청, 관세청, 등 전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실 컨트롤 타워 필요.
3. 지방자치단체 마약중독재활교육원 신설, 재발방지교육사 운영 마약퇴치 및 재발, 재범, 재중독 예방

● 제안

1.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법률(안)
입법 후 재발방지 교육사 양성.
▶ 253개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 교육사 5~10명 배치
2. 마약청 또는 마약안전부 신설
▶ 연간 5,0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가능
▶ 사회간접비용 계산 제외

3. 대통령직속 마약대책위원회 신설

- ▶ 대통령의 위민정책 실현, 마약과의 전쟁 승리

4. 마약범죄학 UN 등 전세계 전파

- ▶ 재단법인 K-희망교육원설립 가평중앙교육원 교재 및 재발방지 교육사 세계화

2023. 9. 30.

제안자 : 송 충 근 마약범죄학석사

가평중앙교육원 이사장

마약과의전쟁 입법추진위원장

(H) 010-3317-8866

첨부: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마약류등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 300명의 국회의원님께 보내는
- 입법서명 동참문 -

마약으로 부터 우리국민 수십명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2만명의 마약중독자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100만명의 마약중독자가 희망이 없는 늪에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약중독자 전원을 교도소로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교도소는 수감할 수 있는 잉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매년 10만명이상의 국민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있고, 컨싱턴거리는 좀비거리, 죽음에 도시로 변했습니다.

30여년전 한국마약범죄학회는 마약의 폐해를 알고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한 마약범죄학 학문을 창시하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뇌세포를 살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0년 마약중독재활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하여 마약중독자 360명을 무료로 재활시켰습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학문적 근거로 입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1)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을 살리는 법안. 마약중독자 구제법안.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법안. 즉,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 의안번호: 2117492
<https://naver.me/IgN6keCa> 의안정보시스템

하루 빨리 입법시켜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서명 동참문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7

마약중독자 구제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충근 마약범죄학석사

존경하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한국마약범죄학회는 47년간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회에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 (안)을 제안하고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전세계에도 없는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의거 360명에게 재활교육을 시켜서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마약중독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계에 K-마약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여 인류의 마약문제 해결에 공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헌터 바이든께서 한국의 마약중독재활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에 오시면 100일간 재활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ON-LINE으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언 :

1. 헌터 바이든께서 마약중독 재활의지가 있고, 가평중앙교육원 규칙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헌터 바이든을 초청하여 가평중앙교육원에서 코카인으로부터 중독증을 극복시켜 미국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국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마약중독재활교육 시스템을 헌터 바이든이 이수하게 된다면 재발방지교육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미국에서 마약중독자 재활교육 학교를 설립하고 전세계 마약퇴치는 물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마약정책이 이루어져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걸고 약속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미국으로 헌터 바이든님을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2

한국마약범죄학회·마약범죄학국제연맹
한 국 사 이 버 시 민 마 약 감 시 단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이사장(마약범죄학석사) 송충근

Dear Honorable Joe Bide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llo

Based on 47 years of research, the Korean Society of Narcotics and Crime has proposed the "Act on Supporting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Elimination of Drug Addiction and Prevention of Relapse" (draft)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promoting the legislation.

In 2010, we opened the Gapyeong Central Education Center for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Under the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program, which has no counterpart in the world, 360 people have been rehabilitated and are living normal lives.

It is giving hope to drug addicts who cannot be cured by modern medicine.

In the future, we plan to contribute to solving humanity's drug problem by spreading the K-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around the world.

If Robert Hunter Biden, son of U.S. President Joe Biden, comes to Gapyeong Central Education Center, a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education center in Korea, he will receive 100 day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return to the U.S. to live a normal life after 3 years of ON-LINE education.

Proposal: If Hunter Biden is willing to rehabilitate drug addiction. and promise to follow the rules of Gapyeong Central Training Center.

We will invite Hunter Biden to attend Gapyeong Central Education Center and help him overcome his addiction to cocaine so that he can return to his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nd lead a normal life in Korea.

I promise you on my scholarly conscience

If you allow us, we will personally escort Mr. Hunter Biden to the United States.

Thank you.

July 12, 2023

Korean Society of Narcotics and Criminolog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Criminology.

Korea Cyber Citizen Drug Watch.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Gapyeong Central Education Center

Chairman Master of Drug Criminology Song Choong-geun

Email: songjayoo@naver.com

Cell: 821033178866

Name: Choonggeun Song

윤석열 대통령님 귀하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1. 저희 단체는 30년전 마약의 위험성을 예단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구물을 완성하고 19대 20대 21대 국회에 마약중독자 구제법을 제안하여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은 마약중독자 360명을 사비로 살려놓은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3. 마약과의 전쟁을 가장 깊게 고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4. 건의

1)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의안번호: 17492)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 (안)을 조속히 입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저희 단체에 입법이 되기 전 행정지원 등 보조를 하여 주시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대통령의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7.6

한국마약범죄학회.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범죄학 국제연맹.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

입법추진위원장 마약범죄학석사

송 충 근 (전 육군종합행정학교 마약수사 교관. 예,육군중령)

010-3317-8866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안) 입법시켜야 할 이유

한국마약범죄학회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재활교육 가평중앙교육원
- 전경수 단장님 살려 주십시오 -

1. 전경수 단장님, 마약 했는데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 죽을 지경입니다. 언님이 필로폰을 몰래 먹었나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저는 이제 정말로 마약이 싫습니다. 중독증을 끊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필로폰 투약 슬픔에 목이 매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또 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4. 전단장님, 비밀글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
5.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6. 비밀 글입니다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7. 전경수 단장님, 남편이 마약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8. 아기엄마 입니다. 아빠가 마약에 중독되어 죽을지경입니다
9. 단장님, 중독자입니다. 과연 내가 예전으로 돌아 갈수 있을까요
10. 전경수 단장님, 마약의 늪에 빠진 친구가 있습니다. 어케하면 되겠습니까.
11. 전경수 교수님, 마약 때문에 어제 자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2. 전경수 단장님, 필로폰에 중독된 동생을 살려주세요..
13. 제 딸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마약주사 맞고 중독되어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14. 자수하려고 하는데... 근데 교도소에 가면 나쁜 것을 더 배운다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15. 필로폰에 중독되어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16. 약물에 중독된 저희 엄마 좀 도와주세요...
17.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서 일주일 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뺑깁니다. 전경수 단장님 도와 주십시오
18. 전경수 단장님, 마약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19. 전경수 단장님, 저 쏘이예요. 이제 정말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0. 전경수 단장님 생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필로폰 때문에..." 도와주

십시오

21. 이제는 결단을... 아 그런데 안된다. 좀 도와주세요
22. 전경수 단장님 비밀글입니다 환각상태의 남자 친구좀...
23. 친구 때문에 걱정입니다....
24. 똑똑...도와주세요 단장님, 필로폰에 중독되어 죽을지경입니다.
25. 전...지금 마약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26. 전경수 단장님, 저도 단약을 하고 싶습니다 ...어케하면 됩니까
27. 전경수 단장님, 단약을 할려는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8. 도와주세요. 마약 때문에.... 오늘도 마약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Re: 오늘도 마약 찾아 하루종일 찾아 헤매었습니다
29. 전경수 단장님, 마약과의 첫 만남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0. 도움이 필요해요.. 절실한 도움이요... 이상한 것이 보이고 들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31. 전경수 단장님!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다니... 살려주십시오.
32. 전경수 단장님 ...애 엄마가 이상해요 ..혹시 마약 하는것이 아닌지
33. 필로폰에 빠져 나올수 없는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34. 오빠가 마약합니다. 어케하면... 도와주세요.
35. 마약을 하는 형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36. 마약에 중독된 제 여동생이 걱정입니다...
37. 저는 이제 정말 필로폰이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8. 제가 시력이 엄청 좋았는데, 필로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39. 전경수 단장님 동생이 또 러미나 ...미치겠습니다.
40. 전경수단장님 필로폰 중독자입니다. 가슴이 쿵쾅 쿵쾅 합니다.
41. 전경수 단장님 부산입니다. 필로폰에 중독되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42. 인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본드에 중독된 제 아들 좀 살려 주세요. 마퇴 본부 등 이곳 저곳 부탁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말 뿐입니다. 정신병원은 물론 기도원까지 이미 갔다 왔는데 자꾸 합니다.

한국마약범죄학회·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장 도경 전경수 박사는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판매상의 유혹의 덫에 걸려 중독되어 법적조치를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 또 온다. 정신병원, 치료감호소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 가정파탄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 법적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 부터 두려움을 지닌채 신고도 못하고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 마약수사관 퇴직금과 사재를 털어 전 세계에도 유례없는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하여 탄생시킨 마약범죄학 제1권 마약범죄론, 제2권 향정법죄론, 제3권 환각성물질범죄론, 제4권 마약류투약범죄 정책론, 제5권 마약류투약범죄 교정론에 의거 주창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적용하여,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 중독증제거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 세로토닌, NP 세포, NK세포 중심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살려달라는 국민을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받아들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켜 구제해주었다.

재활교육을 통해 마약류등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부설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선행교재 제1권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 제2권 나의 삶, 나의 어머니 제3권 나의 프로포폴 중독 극복수기, 제4권 프로포폴에 중독된 뜸부기 살리기 제5권 나는 이제 다왔다 - 등 교재에 의거

필로폰 등 마약에 중독된 원인을 규명한 바,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하는 판매상의 유혹은 대부분 신분상 말 못하는 재력이 있는 자녀 유력정치인 자녀, 연예인 심지어 마음이 여린 종교인의 자녀, 마약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 등이었다.

이러한 재발방지교육을 마약중독다발 지자체에 확대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 재활교육 부문
가평중앙교육원(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관)

- **마약중독 재활교육 교재** -

마약범죄학
1~5권

1. 마약범죄학
2. 행정범죄론
3. 환각성물질범죄론
4. 마약류투약범죄정책론
5. 마약류투약범죄교정론

마약류 등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선행교재 **가문 1~5권**

1.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
2. 나의 삶, 나의 어머니
3. 나의 프로포폴 중독증 극복 수기
4. 프로포폴에 중독된 땀부기 살리기
5. 나는 이제 다 왔다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 교정주의
교정이론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Serotonin, MP 세포(Macro Phage: 대식세포),
NK 세포(Natural Killer: 자연살해세포) 중심-

가평중앙교육원 마약중독 재활교재에 의거
교육받고 재발, 재범, 재중독 방제한 교육생이 남긴 21권의
마약중독 극복 수기

- | | |
|------------------------|----------------------------------|
| 1. K양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12. 토순이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 2. 안나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13. 전.노 가짜장군, 프로포폴에 중독된
극복 수기 |
| 3. 본드에 중독된 3남매 극복 수기 | 14. 나의 프로포폴 중독 극복 수기 |
| 4. 클레멘스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15. 기러기의 인터넷게임 중독 극복 수기 |
| 5. JKK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16. “가상” 마약중독 극복 수기 ‘경찰관’ |
| 6. JCS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17. “가상” 마약중독 극복 수기 ‘목사’ |
| 7. KWJ 대마 중독 극복 수기 | 18. “가상” 마약중독 극복 수기 ‘종교인’ |
| 8. K군의 대마 중독 극복 수기 | 19. 프로포폴에 중독된 땀부기 살리기 |
| 9. K양의 대마 중독 극복 수기 | 20. 버펄로 군의 본드 중독 극복 수기 |
| 10. 조 조교의 알코올 중독 극복 수기 | 21. J군의 돼지표 본드 중독 극복 수기 |
| 11. 빼꾸기의 필로폰 중독 극복 수기 | |

*과연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송이 엄마의 문자 메시지

-마약류 사범수사론-(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

***마약과의 첫 만남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민간 참전기

•저자: 한국 마약범죄학회 회장,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마약류 등 중독증 제거 재발 방지 평생교육센터)

가평중앙교육원장 행정학박사 전 경 수 (경남 밀양시 출신)

고민 상담: 010-7307-6934, 도서출판 삼진 Tel. 02-454-6160



기고문

마약과의 전쟁은 국민을 살리는 전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전세계는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미국 중국은 신 아편전쟁이고 예콰도르는 대통령후보가 암살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3년 8월 현재 1만8천명이 마약으로 교도소에 갇거나 법적조치를 받았다. 연간 재소자 1명당 수용비용은 무려 3,100만원이며 1일 85,000원이다. 3만명이면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살은 OECD 1등 국가이다. 연간 1만5천명이 자살을 한다. 1개월 1,250명, 1일 40명, 1시간에 2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하고 있다. 그중 마약과 관련이 있는 자살자는 몇 %일까? 통계도 없다.

미국 닉슨대통령은 1971년‘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지 못했다.

2021년 100,306명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순천시 전체 인구수가 죽은 셈이다. 2022년에는 10만3000명이 약물중독으로 죽었다. 공주시 전체 인구수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에는 마약중독으로 상주시 전체 인구수 만 큼이 사망할 것이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하나씩 증발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청소년 18세~45세까지 사망원인 중 1위가 마약중독사이다. 하루 300명, 1개월 1만명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한다. 911테러 당시 3,000명이 사망하였는데 10일에 한번씩 세계무역센터가 폭격당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현재 미국은 통제불능의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펜타닐에 이어 자일라진이 연일 폭격을 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 44.7%가 마약중독자이며 필라델피아 켄싱턴 등 통제불능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단속국(DEA)은 4억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압수하였고, 매년 116만명의 마약 사범을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

북한 김정은도 2021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중국은 마약사범 처벌이 강력하다. 필로폰 1KG 이상 운반자는 사형에 처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뜻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전쟁이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런 지경인데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마약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처벌과 재활의 양방향 정책전환이다.

생산.제조.유통.판매상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환자 피해자는 낙인보다는 재활을 시켜 희망을 주어야 한다.

각국 재활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2001년부터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데 드는 비용을 재활과 예방에 쏟았고 국민을 마약 소비자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 이후로 약물 관련 사망률 EU 평균보다 5배 낮았고, 미국의 5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에이즈 감염률도 2000년 100만 명당 104.2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비범죄화 정책으로 재활과 예방 정책에 성공한 것이다.

태국은 수감자 5명중 4명이 마약수감자 (79%)였다.

마약수감자 20만명 중 17만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활 정책전환으로 2022년 12만명 재활을 받았고, 2019년 26만명 재활원에 입소후 매년 감소추세이며 입소자중 75%가 필로폰 남용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재활센터가 200여 곳이 넘는다.

전쟁은 무기체계 우위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마약과의 전쟁 역시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는 23년간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만들어 놓고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며, 마약중독으로 부터 재발·재범·재중독을 방지하는‘면역요법’ 마약중독자 구제법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장·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 전경수 박사는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융합한 새로운 학문 「마약범죄학」을 세계최초로 창시하여

2010년 사재를 털어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마약중독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하고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마약류중독자 360명을 무료로 입교시켜 100일간 OFF-LINE 교육을 하여 1년 ~ 3년간 ON-LINE 교육을 통해서 중독증을 제거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시켰다.

현대의학으로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없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마약중독재활 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다. 최근 재활센터가 여기저기 있는데 하루아침에 상담으로 재활 할 수 없다. 기도해서 치료할 수 없다.

재발방지 교육사와 함께 정성스런 재활시간을 통하여 재활하는 과정을 이겨내야 기적처럼 단약에 성공한다. 이런 수많은 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23년간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사람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의 신무기가 발명된 것이다.

일명,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이 법안을 입법시켜 가평중앙교육원에서 360명을 재활시켰듯이 이제는 국가에서 100만명의 중독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하고 민간 참여를 시키기 바란다. 마약과의 전쟁은 여야도 국경도 없다.

현재의 법규(무기 체계), 현재의 전쟁사령부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잠이 안 온다. 걱정이 태산이다.

나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으로 마약청 또는 마약안전부 신설을 제안한다.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보건부, 국방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통계청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마약대책위원회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일본, 중국 등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면역요법 재활교재에 감탄하고 배워서 자국민을 살리고 있는데 마약범죄학을 창시한 대한민국은 재활의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는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시켜

전국 지자체 시.군.구 226곳에 마약중독 재활교육 센타 가평중앙교육원 분교를 설립해서 마약중독자 50% 약 50만명을 재활시켜서 정부 예산 5000억원 이상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100만중독자 가정의 500만명에게 희망과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으로부터 안전의 시작될 것이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이 입법되면 새로운 한류가 또 생긴다. K-희망재활교육원은 세계화되고 마약의 재앙으로부터 인류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2023. 11. 4.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 입법추진위원장

가평중앙교육원 이사장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편저자 송충근 마약범죄학석사

맺는 말

나의 시조는 송유익(宋惟翊)이며, 31대 손이다.

시조 송유익은 고려때 진사로 나라에 공을 세워 여산군에 봉해졌으며, 은천광목대부로 추밀원부사에 추증되시었다.

문헌에 의하면, 선계는 중국 경조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를 지낸 송주은의 후손 자영이시다.

슬하에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유익: 여산 송씨 시조가 되시었고

둘째 천익: 은진 송씨

막내 문익: 서산 송씨 시조가 되시었다.



시조 송유익의 묘



여산 송씨 시조 공묘

중시조

서재 송간 충강공은 세종, 문종, 단종의 3대에 형조참판에 이르렀고, 1455년 세조1년 왕명으로 남쪽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오던 중 단종이 손위하고 영월로 쫓겨 갔다는 말을 듣고 영월로 달려가 복명, 고향 여산에 돌아가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 그 후, 단종이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속에 들어가 2년간 복상했으며, 1468년 세조12년 간신들의 탄핵으로 충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고향의 마륵촌으로 내려가 뒷산에 서산정을 짓고 자호를 서재로 하였다.



서산정과 서산정 증건 현성비 (전남 고흥군 소재)

서재 송간 충강공은 좌참찬에 추증되었으며, 숙모전 및 고향의 세충사에 제향되었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우리 자손들은 당상관 이상 관직에 오르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송희립 장군은 송간의 6대손으로 자는 신중, 송대립의 아우이다.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종군 1598년 노량에서 적에게 포위된 명나라 도독 진인을 역전 끝에 구출하여 온몸에 중상을 입었으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송여중은 한산대첩에 무공을 세웠다. 왕에게 올리는 이순신의 보고문을 가지고 적진을 돌파하여 행재소에 이르렀다.(송씨통사)



재동서원



재동서원 입구 하마비



송씨 쌍충정려 전경 (전남 고흥군 소재)

이이율곡이 10만양병설을 주장할때 조선은 태평성대라고 왜란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희립 장군 등 고흥에서는 일본에서 떠내려 온 참나무 조각들을 대량으로 목격하고 수군을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일본 간자가 고흥 등 상륙작전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흥쪽은 방비가 튼튼하여 부산으로 선정하였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왜군은 멀미가 심해서 3일간 상륙하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고흥으로 침입하였다면 적벽대전 처럼 화공작전으로 일본군은 상륙도 하지 못하고 패멸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사실 거북선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완성되었고, 칠천량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전멸했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 송희립 장군 등이 고흥, 여수, 순천, 벌교 등을 순회하면서 병력, 군수품을 확보했었다.

이순신 장군은 최측근을 좌 희립, 우 정운이라고 한다.

나는 송간, 송희립 장군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자랑스럽다.

마약과의 전쟁 민간대표로써 이율곡, 이순신, 송희립 장군의 심정으로 거북선 같은 신무기를 만들었다.

정부와 국회에 국민을 살리는 마약중독자 구제법 입법을 촉구한다.

마약의 폭격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국민을 살리기 바란다.

미국은 닉슨, 레이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만명이 마약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 2022년에는 103,000명 사망 했다. 교도소 수감자 44.7%가 마약중독자이며, 샌프란시스코 등 통제불능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단속국(DEA)은 4억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압수하였고, 매년 116만명의 마약사범을 체포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2001년부터 마약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데 드는 비용을 재활치료와 예방에 쏟았고, 국민을 마약소비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으로 약물관련 사망률 EU 평균보다 5배 낮았고, 미국의 5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에이즈 감염률도 2000년 100만명당 104.2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포르투갈은 비범죄화정책으로 재활과 예방정책에 성공한 것이다.

태국은 2023년 수감자 5명중 4명이 마약수감자(79%)였다. 마약수감자

20만명 중 17만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활정책 전환으로 2022년 12만명 재활을 받았고, 2019년 26만명 재활원에 입소 후 매년 감소추세이며, 입소자중 75%가 필로폰 남용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재활센터가 200여 곳이 넘는다.

한국은 가평중앙교육원이 유일하다. 그나마 정부 지원이 안되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일본, 중국 등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면역요법 재활을 배워서 자국민을 살리고 있는데 마약범죄학을 창시한 대한민국은 재활에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마약중독자는 2만명이 늘어났고, 재범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수감자 관리비용은 1명당 연간 3,100만원, 1일 평균 85,000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예산 3,100만원을 청소년에게 재활, 예방에 쓰여진다면 자살 1등 국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면역요법 재활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범죄자라는 낙인보다는 초기에 피해자 또는 환자로서 재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시·군·구 250곳에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분교를 설립해서 마약중독자 80% 약 80만명을 재활시켜서 정부예산 1조원 이상 절감에 기여하고, 100만중독자 가정의 500만명에게 희망과 인류에게 마약의 재앙으로부터 대책을 제시하는 면역요법 재활교재를 세계에 공유하고 싶다.

2023. 9. 24.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편저자 백향 송 충 근



백향 송 충 근

- 학맥계승자 마약범죄학석사
- 가평중앙교육원(마약중독재발방지교육기관) 이사장
- 마약과의전쟁 대표
- 마약류등 중독증제거및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추진위원장
- 한국마약범죄학회 수석부회장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부단장
- 중국 우한홍업병원 그룹 부회장
- 가평중앙교육원 한·중 마약중독 확산방지 연구소장
- 육군종합행정학교 마약수사 교관
- 제12사단 헌병대장 예비역 육군 중령

-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대학교 자연의학 명예박사
- 광운대학교 대학원 마약범죄학 석사
- 호남대학교 법학사
- 가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수료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수료
- 육군대학 정규과정 수료
- 경찰수사연수소 수사 지휘 과정 수료

- **편저**
 - － 도경 전경수 박사 - 마약세기 -
 - －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뜬부기 살리기)
 - － 마약중독재활교육기관 가평중앙교육원 편람 등

- **논문**
 - －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죄 실태 분석
(마약범죄학 석사학위논문)

- **수상**
 - － 한국마약범죄학회 선정 마약범죄학 연구
최우수 논문상 수상
 - － 경찰수사연수소와 육군종합 행정학교간 마약 수사
교류 공로패 수상

마약! 이것이 재활이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뜸부기 살리기)

편 자	송충근 마약범죄학석사
감 수	전경수 박사 (H) 010-7307-6934
발행처	가평중앙교육원(마약중독재발방지평생교육기관)
출판사	도서출판 삼진 서울 광진구 화양동 497-1 Tel.(02) 455-8133 Fax. (02) 2201-0133
가 격	50,000원
홈페이지	www.drugcci.com
E-mail	songjayoo@naver.com
문 의	010-3317-8866

본 책자 판권은 도서출판 삼진에 있다.

출판사와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할 수 없다.

ISBN :